

온양아산근대사료집

〈1929년 발행〉

〈옛 : 일본어판 아산군지〉

- 번역본 -

온 양 문 화 원
온양아산향토사연구소

발 간 사

국제화 추세에 밀려서인지 아니면 외래문화의 분별없는 유입과 그로 인한 혼란 때문인지 선조들이 물려주신 문화유산의 입지가 좁아져가고 있음은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에 지역의 향토사보전 전승에 많은 관심 제고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문화원에서는 작지만 큰 정성을 쏟아 전통문화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헤아려 왔으며 특히 문화원부설 연구기관으로 향토사연구소를 지원·육성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어 만족스러운 실적은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많다. 그러나 나름으로는 문화재 도감책자 발간사업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기행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향토사연구소에서 1900년대 일본인들이 서술하여 발간한 ‘일어판’ 아산군지를 어렵게 입수하여 번역작업을 거쳐 우리지역의 행정·산업·교육·종교·상공업 등 각 분야 사료 등을 한국어로 번역 기술하는 향토사 발간작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바라옵기로는 이 향토지가 우리 고장의 큰 원동력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값진 노력을 베풀어주신 박노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양문화원 원장 김 시 겸

편 간 사

인류가 우리 고향에 뿌리내려 삶을 영위해 온 지난날의 흔적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고대 및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왜일까?

이는 기록성에 대한 우리들의 무딘 정서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결코 몇몇한 변명으로 합리화하기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번에 우리 향토사연구소가 사료집 간행사업을 계획 추진하면서 1900년대 초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 발간된 “일어판” 아산군지의 자료들을 떠올리면서 이 책을 어렵사기 입수하는데 성공, 이를 번역·편찬하게 되었다. 그러나 계획 초기 한때는 일본인들에 의해 서술된 향토지나 지역관련 기록물들의 대부분이 일제식민정책을 미화내지는 합리화하는 정책적기조에 주안점을 둠으로서 그 기록물에 마땅히 표기되어야 할 소중한 사료와 지역의 특성이 배제되고 지방세만 과시하고 숫자와 통계의 나열에만 치우침으로서 사료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비판에 부딪칠까봐 잠시 망설이기도 하였다. 이번에 편간하는 일본어판 아산군지에는 다분히 일본인들이 설립한 조선경남철도회사와 온양온천 신정관 경영을 위한 대외홍보적 색채가 묻어나긴 하지만 일제하 아산군청에서 간행해 온 군세 일반이란 책자와 비교할 때 일어판 아산군지에 수록된 자료에는 온양 아산에 관한 자료를 30여개 편으로 세분하여 수록하였으며 특히 아산에서의 청일전쟁 격전 당시의 모습 성웅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승전 모습 개혁정치



가 김옥균의 활동상황과 온양온천 중심 관광명소 등을 자세히 소개하여 향토지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주위 분들의 긍정적 판단에 힘입어 용기를 얻고 활자화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모처럼만에 큰마음 먹고 시작한 일이니 꼼꼼하게 챙기고 왜곡과 곡필 또한 경계하여 후일에 말꼬리 잡히지 않도록 노력하였지만 더러는 허술한 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후일 보완하여 바로잡도록 노력할 것이며 모쪼록 이 사료가 우리고장 온양 아산을 알고자 하는 이들과 우리 지역의 근대사 연구자료로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적은 예산, 짧은 시간, 부족한 인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정 어린 충고로 모자람을 채워주고 끈끈한 일체감으로 빈틈을 매꿔 주시며 어렵고 어슬픈 환경을 이겨내어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광병수, 맹온재, 원재식 선생님, 그리고 현충사 관리소 송대성 과장님과 아산시청 문화관광과 김영록 선생님 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양아산향토사연구소장 박 노 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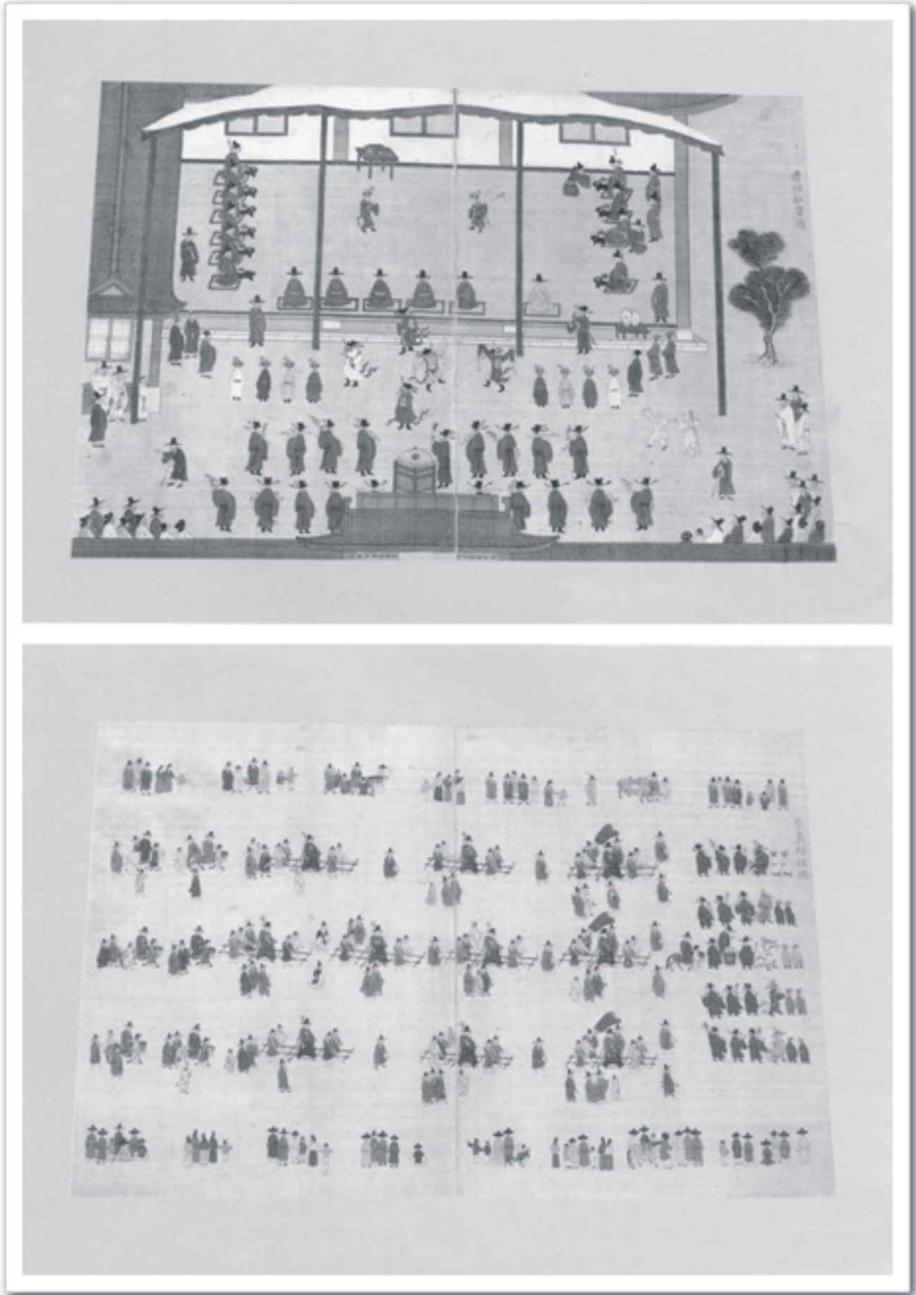


일 러 두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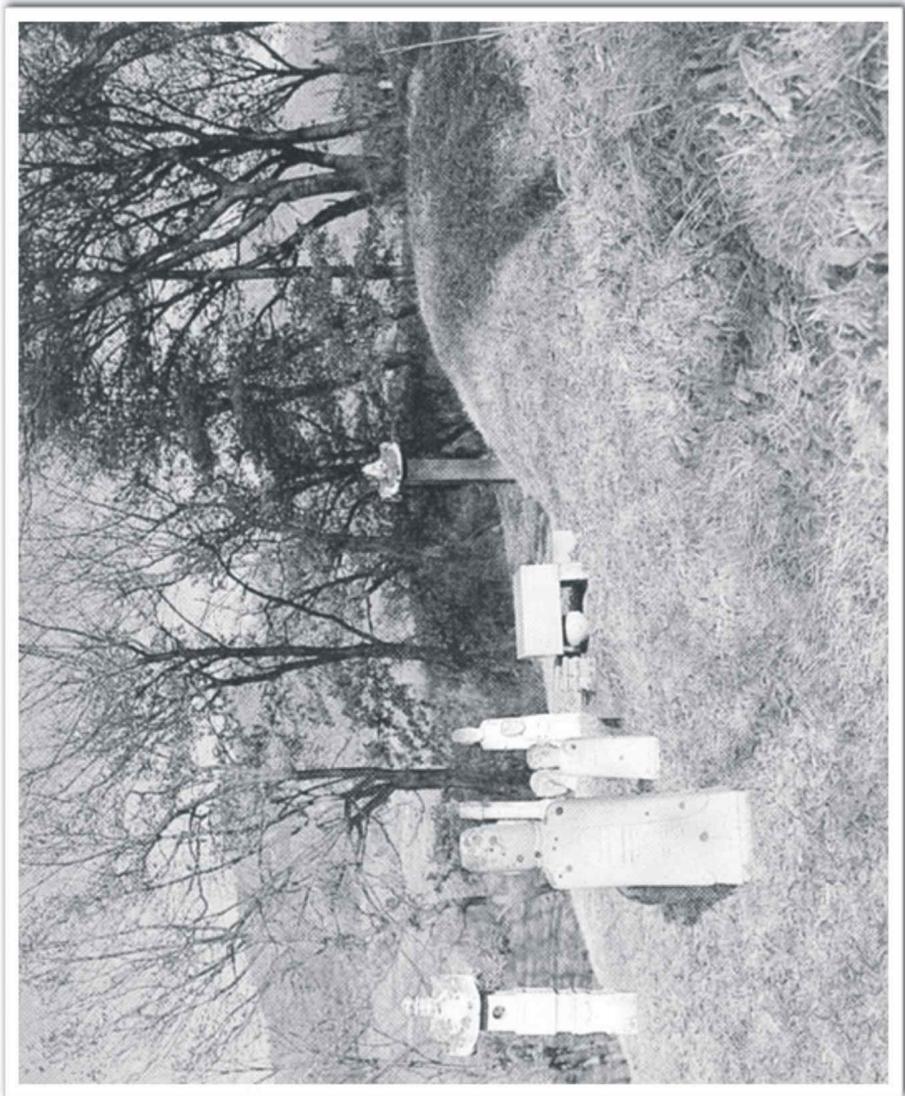


1. 이 책은 1929년 아산군청에서 발간한 아산군지(일어판)를 우리말로 번역한 향토사료다.
2. 이 책을 펴내는 뜻은 실용적 기능적 물질문명에 이끌려가는 청소년들에게 “내 고장 우리문화 바로알기”, “내 고장 뿌리찾기”, “빛나는 조상들의 문화유산 이어가기” 등의 뜻을 심어주는 청소년들의 필독물이 되게 하고 우리 고장 온양아산을 알고자 하는 이들과 우리 지역의 근대사 연구자료로 이바지 하고자 함이다.
3. 이 책의 번역문은 쉬운 말로 쓰고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였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한자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4. 이 책의 연대표기는 주로 서기를 사용하였고 숫자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술하였다.
5. 이 책의 편집표기에서 원문(일어판)은 세로쓰기로 원형을 유지하고 번역판은 가로쓰기로 수록하였다.
6. 이 책은 “일어판” 아산군지의 세부항목별로 번역문을 합성 편간하려 하였으나 시간, 재정의 제약으로 합본 처리하였다.
7. 이 책은 단독 번역물이 아니라 부문별 문맥이 고르지 못할 수도 있다.
8. 이 책에 수록된 각종통계표는 일어판의 세로쓰기 형에서 번역문은 가로쓰기 형체로 바꾸어 이해력을 높였다.
9.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미진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발견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후일 증보판에서 바르게 보완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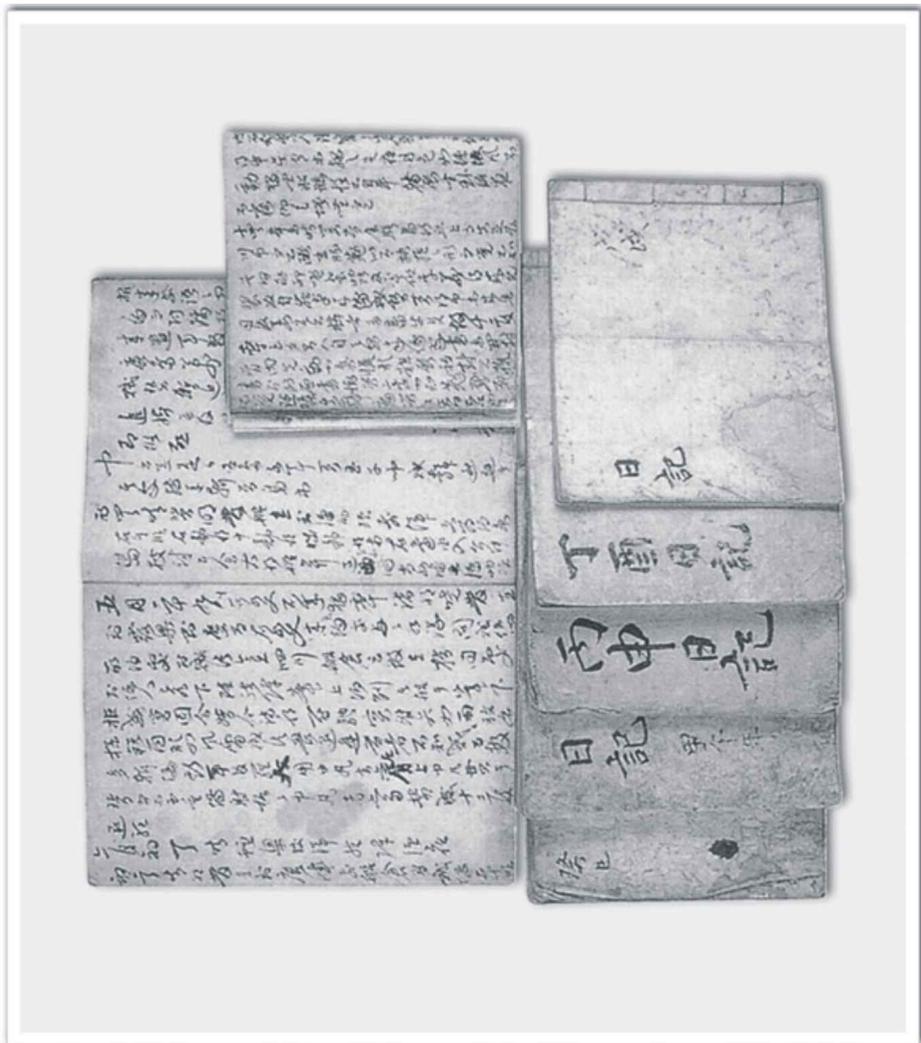
온양아산향토사연구소장 박 노 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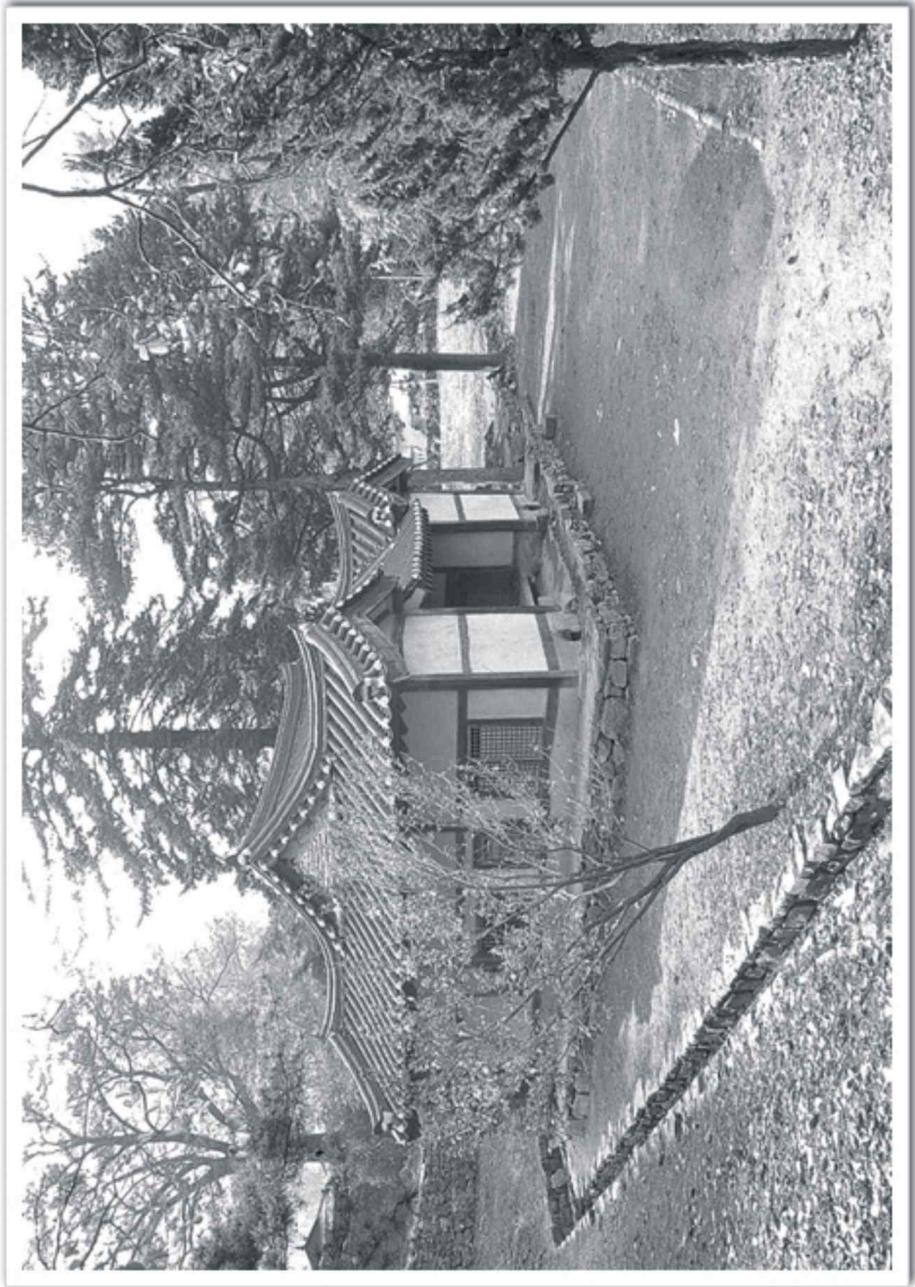
〈기사계첩〉



〈김옥균선생 유허비〉



〈난중일기〉



〈맹씨행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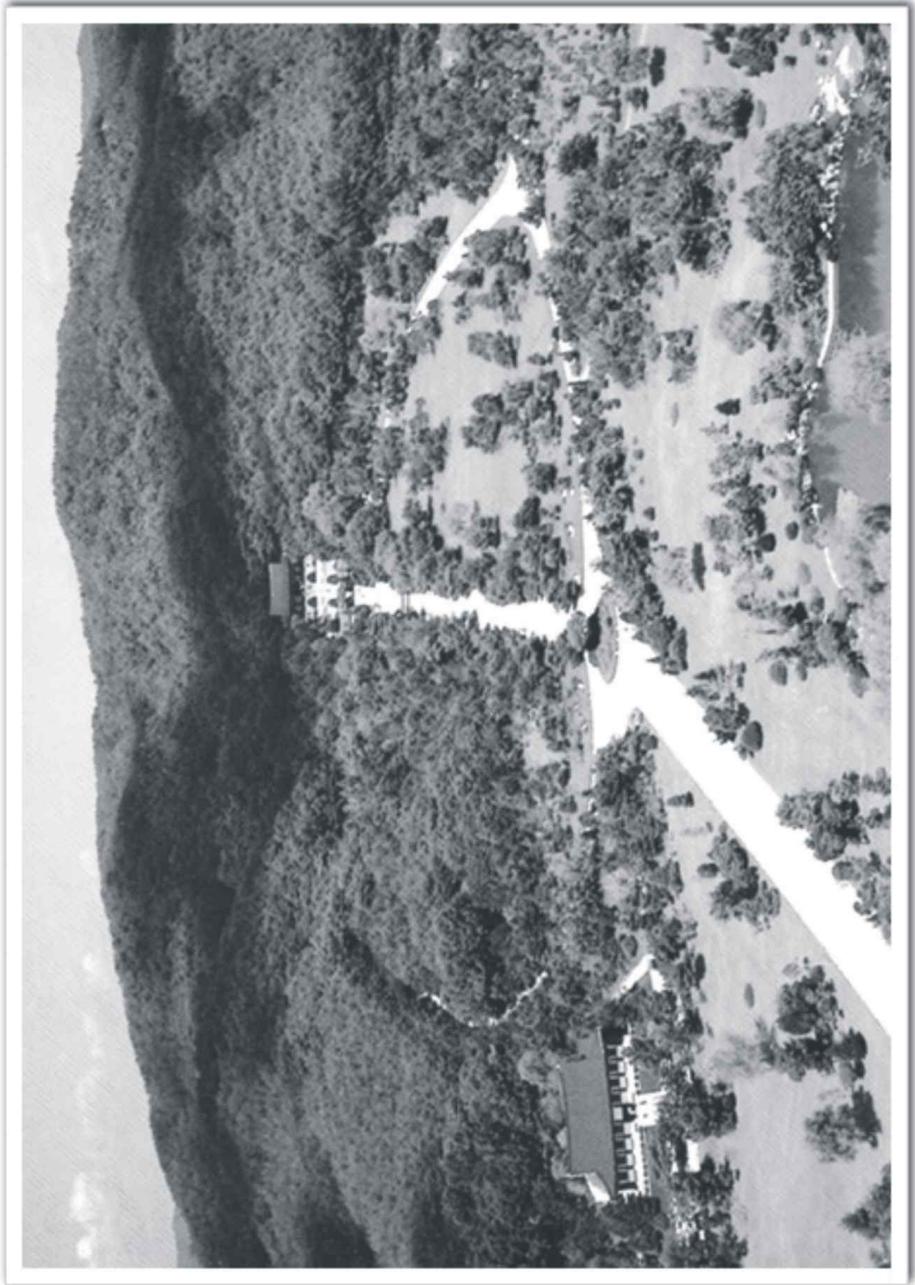
〈온주아문〉



〈외암마을〉



〈주필신정비〉



〈현충사〉

이제까지 아산군에서 편찬한 군지(郡誌)를 볼 것 같으면, 대개 군세(郡勢)만 과시하고자 숫자, 통계의 나열에만 치우쳐, 정작 중요한 명승(名勝), 사적(史蹟)등을 소개하는 것을 극히 소홀히 하였다.

그래서 이번 우리 아산군지 편찬에 있어서는 그 선택을 달리하여, 여러 행정상황은 물론 산업 통계 등을 게재(掲載)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군내의 명승 고적 및 옛 전쟁터 등의 위치 및 사실(史實) 등을 해설하였다. 그리고 쉬운 문장과 가볍고 묘한 필치(筆致)로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숙독하도록 배려했다.

그러므로 아산군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둘도 없는 이 간행물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자부하며, 감히 무딘 붓을 들어 권두(卷頭)에 적는 바이다.

소화(昭和) 4년(1929년) 11월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 (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

취체역부사장 (取締役副社長)

아끼모토 토미노신 (秋本豐之進)

둔포보통학교장 (屯浦普通學校長)

우에무라 나리하치 (上村治八)

△ '온천유기(溫泉遊記)'를 기고(寄稿)하셨음.

아키하시 치요토 (秋芳千萬人)

여러분의 정성과 많은 노고와 위대한 공적에 대해 경의를 포함.

△본회(本會) 사업을 후원하여 오늘의 성과를 있게 한
경남철도주식회사 부사장 아키토 토미노신 씨에 대해서는 만강(滿腔)
의 사의(謝意)를 표하는 바임.

소화 4년 10월 하순

아산군교육회부회장 (牙山郡教育會副會長)
편집자 료오카쿠 코오이치(兩角恒一) 적음.

머 리 말

지방행정을 담당한 우리에게는 먼저 그 지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지방을 잘 알려면 먼저 과거의 사실(史實)을 탐구하고 민도(民度)의 변천을 꿰뚫어, 현재의 문화 실상을 자세히 파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장래의 추향(趨向)을 숙지(熟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시설 경영을 도모하는 것은 실로 우리들 목민(牧民)의 요체(要諦)이다. 그와 아울러 이것을 기록하여 후세(後世)에 남기고, 그 진상(真相)을 천하에 소개하여, 지방 개발에 기여하는 것은 이 또한 우리들의 중요한 사명인 것이다.

우리 아산군의 온양온천은 조선조 500년의 옛적부터 이미 그 명성이 알려진 조선 유일의 온천이었다. 또 아산 땅은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픈 욕망으로 일본제국(日本帝國)이 국제 무대에 첫 걸음을 내디디고자 일으켰던 일청전쟁(日淸戰爭)의 첫 전장(戰場)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최근의 온천 설비와 산업 경제가 발전을 거듭한 것은 경남철도가 군산(群山) 대안(對岸)에의 진출을 꾀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일대 혁명을 일으켜, 이제까지의 구태(舊態)에서 벗어나 면목(面目)을 일신(一新)하는 기세를 드러내고 있는 터다.

그러나 이러한 아산군의 군정(郡情)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아무런 정리된 기록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유감으로 생각했던 바였다.

천만 다행으로 비로소 좋은 기회를 얻음으로써 군세(郡勢)의 대략 줄거리를 기술 편찬하여 세상에 공표하기로 하였다.



원래 나는 전문적 학문 지식이 빈약하고, 아울러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는 극히 천박하며, 또한 공무 수행의 여가를 타서 이를 기술한 관계로 그 내용이 공허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책으로 말미암아 이 아산군의 실상이 어떠하며, 오늘날까지 어떠한 경로로 이어져 왔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면, 크나큰 보람으로 여기겠다.

내용이 훌륭하지 않건만, 감히 세상에 출간하여 여러분의 가르침을 바라고자 책머리에 짧은 글이나마 적었으니, 독자의 이해를 바라는 바이다.

소화 기사 중추(昭和己巳仲秋)

아산군교육회장

아산군수 이 민 녕(李敏寧)

범례

- ▲ 이 책은 우리 아산군 전체 상황을 알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군의 상황을 대충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아산군 형편의 대강을 주로 소개하고, 다음에 역사적 사실 및 명승 고적을 아울러 적었다.
- ▲ 온양온천은 본군(本郡) 문화의 중추이며, 장래도 이를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기에, 온천이 지니는 역사적 사실과 현재의 상황을 되도록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이리로 찾아오는 사람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노력했다.
- ▲ 아산의 전적(戰蹟), 수장(水將) 이순신(李舜臣)의 사적(事跡), 지사(志士) 김옥균(金玉均)의 사적, 및 신정관(神井館)의 설비 등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이며, 또 어느 누구도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었기에, 그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였다.
- ▲ 각종 통계는 소화 3년(1928년)말 현재로 아산군청이 공표한 것이다.
- ▲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자료를 수집했으며, 그 출처를 명백히 밝혔고, 원전(原典)의 문장의 의미가 어긋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평이한 문장으로 바꾸었으니 송구한 마음이 든다.
- ▲ 해마다 아산군청에서 간행하는 군세일반(郡勢一斑)은 이 책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 올해는 이 간행물로 대응하기로 했다.
- ▲ 이 책은 조선박람회의 회기(會期)중에 간행하고자 계획했기 때문에, 편집 기술이라든가,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미비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뒷날 증보(增補), 개정(改訂)하여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 이 책의 간행에 관하여
 - △ 자료 수집에 있어서 특별히 지도해주신 전(前) 조선군사령관 카네타니(金谷) 육군대장에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 △ 나누어 집필해 주신
 - 온양보통학교장 코바야시 켄사쿠 (小林權作)
 - 아산보통학교장 사카모토 츠요시 (坂本 強)

옛 일본어 아산군지

CONTENTS 목차

1. 아산군 연혁	27
(1) 구 아산군 연혁	27
(2) 구 온양군 연혁	28
(3) 구 신창군 연혁	28
2. 아산군 위치 및 면적	29
3. 아산군 지세 및 토질	29
4. 아산군 행정구획	30
5. 아산군 기상	30
6. 아산군 호구	31
(1) 현주호구	31
(2) 직업별호구	31
(3) 주요지호구	32
(4) 인구동태	32
7. 교육	33
(1) 소학교	33
(2) 보통학교	33
(3) 실업보습학교	34
(4) 학술강습회	34
(5) 서당수	34
8. 종교	35
(1) 사찰	35
(2) 교회	35



9. 토지	35
(1) 국유지	35
(2) 민유지	36
가. 과세지	36
나. 비과세지	36
다. 토지매매가격	37
10. 농업	38
(1) 경지면적	38
(2) 농업자	38
(3) 농산물	38
(4) 중요농산물 우량품종	39
(5) 중요농산물 누년비교	39
(6) 과수	39
11. 양잠업	40
(1) 상전반별	40
(2) 양잠상황	40
(3) 치잠공동사육상황	40
(4) 균공동판매상황	41
(5) 가잠사 및 잠종 제조상황	41
(6) 상묘생산수	41
(7) 건균기 설비상황	41
(8) 잠구공동구입상황	42
12. 면작(목화농사)	42
(1) 육지면작	42
(2) 모범작포	42
(3) 지정리동	42
13. 축산	43
(1) 가축가금	43
가. 소	43



나. 말과 양	43
다. 돼지	43
라. 닭	43
(2) 소의 매매	43
(3) 종우	44
(4) 젖소	44
(5) 양봉	44
(6) 축산물	44
14. 임업	45
(1) 임야면적	45
(2) 조립	45
(3) 묘포	45
(4) 임산액	45
15. 수산	46
(1) 어업자 (어선 및 어구수)	46
(2) 주요어획물	46
(3) 어업별어획고	46
(4) 수산제조물	46
16. 상공업	47
(1) 회사	47
(2) 공장	47
(3) 시장	47
(4) 공산물	48
17. 진흥회	49
18. 교통	49
(1) 온천리에서 각 지역 리정	49
(2) 도·군청간의 거리	49
(3) 도로	49
(4) 철도	50



(5) 자동차 정기운전 구간	50
(6) 육상운반구	50
19. 산업단체	50
(1) 군농회	50
(2) 축산동업조합	51
(3) 삼림조합	51
20. 관공서	52
21. 직원	52
(1) 군	52
(2) 면	52
22. 재정	52
(1) 국세	52
가. 세외수입	52
(2) 지방세	53
(3) 면예산	53
(4) 학교비예산	54
(5) 학교조합예산	55
(6) 수리조합예산	56
가. 온양수리조합예산	56
나. 도고수리조합예산	56
(7) 향교재산예산	57
(8) 직접세부담액	57
(9) 금융산업	58
가. 금융조합	58
나. 저금(△표는 단체의 저금을 표시)	58
23. 온양 온천	59
(1) 위치	59
(2) 연혁	59
(3) 유래	59



(4) 지형	60
(5) 지질	60
(6) 온천	60
(7) 천질	61
(8) 용출량	61
(9) 기후와 온천과의 관계	61
(10) 지질구조와 온천과의 관계	62
24. 온양 온천 안내	62
(1) 신정관 유래	62
(2) 정량분석	63
(3) 온천수의 치료효과	63
25. 온천 신정관안내	64
(1) 본관	64
(2) 여관부	64
(3) 부속유원지	64
(4) 특유요리	64
가. 야채요리	64
나. 물고기요리	65
다. 온양온천 토산품(선물)	65
(5) 각종요금	65
1) 본관입장료	65
가. 보통입장료	65
나. 할인입장료	65
2) 전용대실	66
3) 전용대탕	66
4) 수중루각 입장료	66
5) 대선료(벧삿)	66
6) 여관부요금	67
가. 숙박료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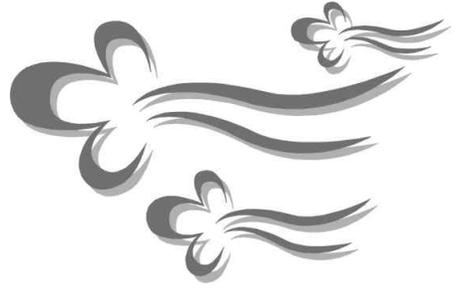
나. 실료	67
다. 정식료금(식사대)	67
26. 온양온천 기차임 할인	67
27. 직통 객차의 운전	68
(1) 경성발-온양착	68
28. 온양온천역 기차 및 자동차 발착시간표	68
(1) 온양역 기차 및 자동차 발착시간표	68
(2) 천안행(온양에서) 온양행(천안에서)	69
29. 기타의 여관	69
(1) 일본인여관	70
(2) 석전여관	70
(3) 광양여관	70
(4) 한국인여관	71
(5) 대성여관	71
(6) 광성여관	71
30. 온양온천 유기	71
31. 관광(漫遊)을 중심으로 한 온양온천 부근	78
(1) 영괴대	78
(2) 육군요양소	80
(3) 야구장 및 정구코트	80
(4) 변천지(신정호 저수지)	80
(5) 과수원	80
(6) 효자바위	80
(7) 송림(솔밭)	81
(8) 온양읍내(구온양)	82
(9) 설화산	82
(10) 복보부성	82
(11) 오행대	82
(12) 관선제	83



(13) 사기소 (유곡리 사고시)	83
(14) 봉곡사	84
(15) 연암산	84
(16) 학성산	84
(17) 신창 공립농업보습학교	85
(18) 이순신의 묘와 한평생	87
가. 거제도의 해전	91
나. 장문포	92
다. 한산도	93
라. 명량해전	93
마. 순천해상의 싸움	98
바. 순천성의 싸움	98
사. 노량해전	98
아. 애 이통제	99
(19) 둔포	100
(20) 아산읍	100
(21) 백석포	101
(22) 공세리	101
(23) 군명산	102
(24) 형제송	102
(25) 하라다농장	102
(26) 걸매리 제염장	103
(27) 아산전과 백석포	103
1) 전전에 있어서의 청군	103
(가) 태고에 있어 귀남호에 의한 도한병	103
(나) 산해관에 있어서는 해안 해정의 양선에 의하는 것	104
2) 일본혼성여단의 남진	106
3) 성환의 전투	107
4) 아산의 전투	109



5) 귀환	111
6) 말미	111
7) 부 장강장군담(나가오까장군담)	112
(28) 김옥균	113
1) 김옥균 연보	113
2) 고균 김옥균 사력	114
(가) 김옥균 처음으로 일본에 오다	114
(나) 김옥균의 재유	115
(다) 일본의 대한정책의 일변	116
(라) 참간과 한정의 광칭	121
(마) 청병의 내습과 개혁의 실패	122
(바) 독립당 실패의 원인	123
(사) 망명중의 김옥균	125
(아) 김옥균의 횡사와 동방변국의 동기	126
(자) 김옥균 시체의 조치와 국론의 비등	127



1. 아산군 연혁

충청남도 아산군은 1913년(대정2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로써 아산·온양·신창의 3개군을 합병하여 1914년(대정3년) 3월 1일 아산군이라 명칭을 정하고 군청을 온양면 온천리에 두어 오늘에 이르렀다.

합병전의 각 군의 연혁을 부기(附記)하면 다음과 같다.

(1) 구 아산군 연혁

백제시대의 아술현(牙述縣)이었고, 신라조(新羅朝)에 이르러 음봉(陰峰)일명 음령(陰嶺)이라고 변경하여 탕정군령(湯井郡領)이 되고, 고려초에 그 명칭을 인주(仁州)로 개정했다.

995년(성종 14년)에 자사(刺史=지방관의 명칭)을 두었다가, 1005년(목종 8년)에 이를 폐지하고, 1018년(현종 9년) 천안부(天安府)에 속했고, 그 후 아주(牙州)로 개명하여 감무(監務)로 두었다.

그리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1413년(태종 13년)에 아산(牙山)이라고 개명하고 현감(縣監)을 두었다. 1423년(세종 5년) 현을 폐지하여 온양·평택·신창



의 각 군에 분속(分屬)시켰다. 따라서 1505년(연산군 11년)에는 경기도로 이속(移屬)시켰고, 중종 초에 다시 복구시켜 아산현이 되고, 근세에 군으로 승격시켜 오늘날(1914년)에 이른 것이다.

(2) 구 온양군 연혁

백제시대의 탕정군이다. 신라 문무왕(661~680) 때 주(州)가 되어 총관(總管)을 두었다. 그 후 주를 폐지시키고 군(郡)이 되었고, 고려 초 온수군(溫水郡)으로 개칭한 후에 고려 현종 9년(1018년)에는 천안부(天安府)에 속했다가 명종 2년(1172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태종 14년(1414년) 신창을 병합하여 온창(溫昌)이라고 이름하였지만, 동16년(1416년) 분리시켜 온수현을 두었다. 그리고 세종 14년(1432년)에 이르러 온양군으로 개칭되었으며 군을 폐합하고 현재(1924년)에 이른 것이다.

(3) 구 신창군 연혁

백제시대의 굴직현(屈直縣)이었는데, 신라시대에는 기량(祈梁)으로 개칭, 탕정군령(湯井郡嶺)의 縣이 되고, 고려초 신창현으로 개칭했다.

고려 현종 9년(1018년) 천안부로 속했다. 그 후 공양왕 3년(1391년) 성을 현서(縣西) 장포(獐浦)에 쌓아 당성(塘城)이라 했다.

조선조에는 태종14년(1414년) 온수현을 합쳐 온창(溫昌)이라 이름했다. 동 16년(1416년)에는 다시 이를 분리하여 현감을 두어 신창이란 원래의 이름으로 복귀했다. 근래에 들어와서 郡으로 승격한 이래 계속해서 1924년 군폐합으로 이어졌다.



2. 아산군의 위치 및 면적

아산군은 표고 18m, 북위 36도 47분 동경 127도로서 충청남도의 북단에 위치하고, 동은 천안군과 접속되고, 서는 삽교천을 격하여 당진군과 대면하고 있으며, 서남쪽은 예산과 공주 두 군과 인접하고 있으며, 서북은 아산만과 북쪽에 경기도 진위군(振威郡)과 접하고 있다. 동서로는 7리 20정(七里二十町), 남북은 8리 24정, 면적 35평방리(平方里)가 된다. 그리고 군청은 군의 중심인 온양면 온천리에 있다.

3. 아산군의 지세 및 토질

아산군의 동쪽 일부는 산악과 구릉(丘陵)으로 연결되었다고는 하지만, 대개는 얇은 구릉이기 때문에 준험(峻嶮)하지는 않다. 그리고 남부로는 역시 봉만(峰巒)이 중첩(重疊)되고 있으나, 조금은 삼림(森林)이 볼만도 하다.

이 밖에 곳곳에 산과 능선의 기복이 있으나 곡교천의 유역일대 및 서북 아산만으로 뻗어난 일대는 전망이 좋은 평야를 이루어 충청남도 중 굴지의 농산지이다.

그리고 곡교천은 군의 중앙을 횡단(橫斷)하여 군계(郡界)를 관통한 삽교천과 합류하여 아산만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많은 지류(支流)로 형성되어 무엇보다도 관개(灌溉) 즉, 농수이용으로 풍부하다. 그리고 삽교천의 하류는 수상교통의 이용이 훌륭하다.

토질은 대개 기름져 쌀·보리·콩 등의 경작에 적합하며, 산림도 또한 조림 및 목축의 이용에 적당하다고는 하나 수원(水源)이 풍부하지 못하여 한해와 수해를 입는 곳이 적지 않다. 이 후 수리조합 즉 저수지가 절대 필요하다. 현재 온양 수리조합과 도고수리조합 등이 있으나 오히려 부족한 편이다.



4. 아산군 행정구획

면 명	면사무소 소재지	면적(방리)	정동리수	면 명	면사무소 소재지	면적(방리)	정동리수
운양면	읍내리	2,110	12	영인면	아산리	3,425	13
송악면	역촌리	3,708	13	인주면	공세리	3,699	12
배방면	중 리	2,958	12	선장면	군덕리	2,363	15
탕정면	용두리	2,168	10	도고면	향산리	2,868	16
염티면	염성리	2,675	14	신창면	읍내리	2,889	15
음봉면	삼거리	3,902	16	계		35,445	163
둔포면	둔포리	2,680	15				

5. 아산군 기상(1928년)

종별	월차												합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온 (섭씨)	오전10시평균	4.3	1.5	5.2	14.1	19.2	23.3	26.2	27.5	22.1	14.7	6.3	-0.5		12.7
	평균	최 고	1.4	3.7	10.4	19.6	24.7	28.4	30.4	31.8	26.8	19.8	12.1	4.6	17.8
	최 저	-10.3	-7.1	-1.7	3.6	8.7	15	20.9	19.6	15.5	4.9	-0.2	-5.2		5.3
	극	최고	10.2	15.8	19.4	25.5	31.3	32.4	34.2	33.7	32	26	18	15.1	극수
	일	27일	28일	20일	29일	28일	10일	24일	18일	6일	28일	5일	6일		7월 24일
	최저	-24	-13.6	-5.9	-1.5	2.3	10.4	18	15	3.6	-2.2	-6.4	-13.5	극수	-24
	일	7일	9일	23일	4일	18일	4일	30일	22일	26일	31일	17일	19일		1월 7일
맑은 날 수	17	18	22	19	20	14	16	22	17	22	17	16	220	182	
비눈 날 수	8	5	7	7	7	9	13	8	12	6	13	15	109	9.1	
증발량(미리)				100.7	116.7	101.5	74	110	54.2	43.7			600.8	85.8	
강수량(미리)	45.9	5.4	27.1	22.7	28.9	180.5	275.3	175.1	313.5	17.1	65.5	25.8	1,192.8	99.4	
서 리			어 림				눈								
초	중		초	중		초	중								
9월 26일	3월 23일		10월 21일		3월 30일		11월 16일		3월 9일						



6. 아산군 호구(1928년)

(1) 현주호구

면명	내지인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합계		1방리당		일호당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은 양	131	547	1,765	8,531	16	46	1,912	9,124	906	4,324	4.8
송 악	2	6	865	6,826			867	6,832	233	1,843	8.0
배 방	6	27	1,338	7,188			1,544	7,215	454	2,440	5.3
탕 정	3	12	1,125	6,546			1,128	6,358	520	2,932	5.6
염 티	6	20	1,106	5,506			1,112	5,526	416	2,065	5.0
음 봉	2	4	1,037	6,420			1,039	6,424	266	1,646	6.2
둔 포	8	18	1,213	6,081	15	31	1,236	6,130	461	2,287	4.5
영 인	14	56	1,232	6,37			1,246	6,593	364	1,925	5.3
인 주	4	15	1,006	5,950	2	2	1,012	5,967	276	1,613	5.8
선 장	9	28	1,055	5,723	6	20	1,070	5,771	453	2,443	5.5
도 고	14	47	1,105	6,196	4	12	1,123	6,255	392	2,181	5.5
신 창	15	44	1,207	7,102	3	6	1,335	7,152	462	2,476	5.4
계	214	824	14,054	78,406	46	117	14,314	79,347	404	2,229	5.5

(2) 직업별호구

종 별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농 립 목 축 업	37	180	12,160	66,872	1	1	12,198	67,053
어 업 및 제 염 업			32	188			32	188
공 업	7	67	225	2,025			232	2,092
상 업 및 교 통 업	54	255	473	3,320	44	115	571	3,890
공 무 및 자 유 업	102	269	270	1,621	1	1	373	1,891
기 타	5	21	502	1,777			507	1,798
무직 및 직업을 신고하지 않은사람	9	32	392	2,403			401	2,435
합 계	214	824	14,054	78,406	46	117	14,314	79,347

옛 일본어 아산근지



(3) 주요지 호구

지 명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기타외국인		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온양면 읍내리	7	32	365	1,762	4	13			376	1,807
동 면 온천리	105	428	375	1,641	11	31			489	2,100
둔포면 둔포리	8	18	180	888	15	31			204	937
영인면 아산리	14	56	216	1,088					230	1,144
인주면 공세리	3	14	219	1,209			1	1	223	1,224
선장면 군덕리	8	24	140	691	6	20			154	735
신창면 읍내리	6	13	103	583	2	3			110	599

(4) 인구동태

종 별	출 생						사 망			결혼	이혼	배우자수
	출 산			사 산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일본인	4	6	10				2	3	5			199
조선인	1,495	1,343	2,838	1	3	4	848	711	1,559	935	23	24,835
외국인												5
계	1,499	1,349	2,848	1	3	4	850	714	1,564	935	23	25,039



7. 교육(1928년)

(1) 소학교(교원난중 ×표는 촉탁 △표는 강사)

교 명	소재지	학급수	교원수	생도수			1928년 3월 졸업자 총수			1928년도 경비(원)
				남	녀	계	남	녀	계	
온양공립심상고등학교	온양면 온천리	3	2 × 1	59	57	116	79	56	135	8,527
아신공립심상소학교	영인면 아산리	1	1 △ 1	2	7	9	13	2	15	2,260
계		4	3 × 1 △ 1 계 5	61	64	125	92	58	150	10,787

(2) 보통학교(교원중×표는 촉탁)

교 명	소재지	수업 연한	학급 수	교원수	생도수			1928년 3월 졸업자총수			1928년도 경비(원)
					남	여	계	남	여	계	
온양공립보통학교	온양면 읍내리	6	13	13 × 1	572	139	711	558	52	600	59,098
아산공립보통학교	영인면 아산리	6	8	9	351	55	406	430	23	453	
신창공립보통학교	신창면 읍내리	6	6	7	260	33	293	428		428	
둔포공립보통학교	둔포면 둔포리	6	6	7	288	58	346	178	5	183	
선장공립보통학교	선장면 군덕리	6	5	5	178	20	198	102	1	103	
송남공립보통학교	송악면 역촌리	4	4	4	105	24	129	93	1	94	
음봉공립보통학교	음봉면 삼거리	4	2	2	101	7	108	43	3	46	
계(7교)			44	47 × 1 계 48	1,855	336	2,191	1,832	85	1,917	



(3) 실업보습학교(교원난 ×표는 검무자 본교는 1927년 5월 설립)

교 명	소재지	수업연한	학급수	교원수	생도수			1928년도 경비(원)
					남	여	계	
신창공립농업보습 학교	신창리 읍내리	2	1	1 × 2	2		2	2,819

(4) 학술강습회

명 칭	소재지	교원수	강습생도			1928년도 경비(원)	동상1인당 면액
			남	여	계		
보 성 학 술 강 습 회	인주면 공세리	1	40		40	226	5,65
백 암 학 교	염티면 백암리	1	25	7	32	400	12,50
신 명 의 숙	탕정면 매곡리	3	55	23	78	400	5,13
백 영 학 술 강 습 회	도고면 화천리	2	60		60	658	10,97
계		7	180	30	210	1,684	8,02

(5) 서당수

서당수	교사수	생도수			1928년도 경비(원)	한서당당 경비(원)	일면평균 서당수
		남	여	계			
50	50	472	1	473	5,551	12,02	4



8. 종교(1928년 말)

(1) 사찰

명 칭	소재지	승	니	계
오 봉 암	온양면 장촌리	1		1
봉 곡 사	송악면 유곡리	13		13
신 심 사	염티면 산양리	1	1	2
인 취 사	신창면 읍내리	2		2
계		17	1	18

(2) 교회

명칭	교회당수	포 교 자 수				신 도 수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계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계
기독교	6		5		5		217		217
천주교	1			1	1		960		960
불 교	4		18		18	252	12		264
계	11		22	1	24	252	1,189		1,441

9. 토지(1928년말)

(1) 국유지

지 목	필수	지적(정보)	지목	필수	지적(정보)
밭	1,033	143,5625	임 야	5,399	16,3550,9919
논	2,005	464,10046	묘 지	2	0,2720
대	382	24,70215	철 도 용 지	1	1,1925
잡 종 지	24	47,7824	도 로	37	8,7136
하 천	38	5,3325	철 도 선 로	1	0,5621
뜰	31	1,0618	절 터	2	0,1103
계 류 지	16	18,9516			
제 방	12	0,2722	계	8,946	17,292,5136



(2) 민유지

(가) 과세지

지목별		종별		외국인	계
		일본인	조선인		
밭	필지	2,403	28,110	37	30,550
	지적	562,8828	5,156,1004	8,5,213	5,727,5105
	지가	175,155,96	1,013,090,21	2,540,65	1,190,786,82
논	필지	4,269	33,140	147	37,556
	지적	1,053,2428	11,957,63,25	73,0711	13,083,9604
	지가	600,158,58	4,983,832,93	36,515,73	5,620507,26
대	필지	710	5,965	28	6,703
	지적	48,9906	653,5,418	1,5811	704,1205
	지가	37,076,32	254,613,18	845,65	292,535,15
잡종지	필지	34	51		85
	지적	14,8821	24,2323		39,1214
	지가	3,097,29	4,611,00		7,708,29
합 계	필지	7,416	67,266	212	74,894
	지적	1,680,0113	17,791,5211	83,1805	19,554,7129
	지가	815,488,15	6,256,147,32	39,902,05	7,111,537,52

(나) 비과세지

지 목	필 지	지적(정보)	지 목	필 지	지적(정보)
임 야	4,958	11230,4114	공 원 지	7	0.8109
묘 지	360	114,5300	철 도 용 지	36	6.4504
도 로	845	17,0136	제 방	39	2,3107
하 천	8	3,1700	철 도 선 로	648	37,23189
뜰	1,134	40,67558	절 터	8	2.2302
계 류 지	321	82,2727	합 계	8,383	11659,0131



(다) 토지매매가격(전·답·잡종지는 - 반보당 대는 백평당)

종별		상 등 지		중 등 지		하 등 지		
		가격(원)	지가	가격(원)	지가	가격(원)	지가	
전	상	95,000	48,000	55,000	21,000	20,000	4,800	
	중	78,000	39,000	40,000	12,000	15,000	4,800	
	하	60,000	30,000	32,000	12,000	10,000	1,800	
답	상	240,000	87,000	150,000	57,000	75,000	28,500	
	중	200,000	81,000	140,000	51,000	50,000	13,500	
	하	180,000	72,000	120,000	36,000	30,000	3,600	
대	상	900,000	180,000	230,000	40,000	40,000	15,000	
	중	700,000	100,000	80,000	30,000	30,000	12,000	
	하	500,000	60,000	50,000	20,000	15,000	9,000	
잡종지	상	40,000	39,000	18,000	21,000	12,000	4,800	
	중	25,000	30,000	15,000	12,000	10,000	1,800	
	하	20,000	30,000	13,000	12,000			
표준지소재	전	상	둔포면 둔포리 473번지		송악면 동화리 30번지		송악면 동화리 219번지	
		중	송악면 외암리 433번지		송악면 외암리 292번지		송악면 외암리 340번지	
		하	송악면 외암리 326번지		송악면 외암리 400번지		둔포면 운옹리 304번지	
	답	상	송악면 역촌리 203번지		송악면 역촌리 679번지		둔포면 신남리 425번지	
		중	송악면 역촌리 64번지		송악면 외암리 37번지		송악면 외암리 12번지	
		하	온양면 장촌리 327번지		둔포면 봉재리 169번지		영인면 구성리 297번지	
	대	상	온양면 온천리 220번지		온양면 온천리 242번지		송악면 역촌리 196번지	
		중	온양면 온천리 50번지		둔포면 둔포리 463번지		송악면 역촌리 397번지	
		하	온양면 온천리 64번지		온양면 읍내리 287번지		염터면 공현리 28번지	
	잡종지	상	온양면 온천리 218번지					
		중			인주면 갈매리 40번지			
		하					인주면 갈매리 138번지	



10. 농업(1928년)

(1) 경지면적(반)

논			밭	합계	농가1호당 경지면적
1모작	2모작	계			
12,3579	1,1819	13,5398	5,871,1	19,410,1	10,76

자작소작별면적								계	
자작겸소작의자작				자작		소작			
밭	논	밭	논	밭	논	밭	논	밭	논
1,702,6	1,512,5	2,950,6	1,114,5	1,207,9	1,035,6	7,678,7	2,208,5	13,446,4	5,871,2

(2) 농업자

농업자수	농가호수			경작별호수				
	전업	겸업	계	지주	자작	자작겸소작	소작	계
69,343	9,684	1,271	10,955	293	498	2,086	8,078	10,955

(3) 농산물

종류	작부반별	수확고	일반당 수확고	종류	작부반별	수확고	일반당 수확고
쌀	쌀	12,658,4	10,314,3	보리	보리	3,906,9	37,052
	찰쌀	5,67,3	4,278		밀	856,2	6,171
	발쌀	287,8	1,906		겉보리	24,1	162
	계	13,513,5	109,327		계	4787,2	43,385
콩류	콩	3,604,6	13,218	특정작물	강냉이	289,1	1,308
	팥	446,3	1,652		옥수수	29,2	150
	녹두	147,3	453		교맥	71,5	416
	채두	15,4	28		육지면	5702	607,476
	완두	5,3	10		대마	43,0	6,931
	땅콩	5	1		저마	4,9	127
	기타				왕골	52,2	13,080
계	4219,2	18,552	호마		60,4	304	
잡곡	조	152,7	717		마늘	38,1	52
	지장	9,1	39		곤마	14,8	51
	옥수수	11,5	58		감자	21,3	49,660
채소	마	442	100,170		포도	175,4	39,1450
	령	4,5	8,450		배차	176,9	397,940
	서	48,7	108,620		차미	110,4	296,270



(4) 중요농산물 우량품종

종류		작부반별	수확고	반 당 수확고	종류		작부반별	수확고	반 당 수확고		
쌀	수작	조신력	5978,3	46,671	778	보리	대	돈보리	2146,5	16,221	756
		다마금	5479,6	46,346	846		대	계	2,146,5	16,221	756
		공양도	2626	2,157	821		밀	강도	1858	1179	634
		중생신력	14,1	119	842			캘포니아	2,4	14	580
		계	11,747,6	95,293				계	18,85	1,194	
	발쌀	검은벼	118,1	823	696	콩	단천	237,6	1,295	568	
		오이랑	7,1	42	605		白밤콩	198,4	974	490	
		계	125,2	866			白존닝	283,1	1,466	517	
		계	11,872,8	96,159			계	709,1	3,755		

(5) 중요농산물 누년 비교

년별	작부반별			수확고(석)		
	쌀	대소맥	콩, 팥	쌀	대소맥	콩, 팥
1924년	13,577,2	5,153,9	4,066,5	86,113	40,230	13,387
1925년	13,322,9	5,203,9	4,041,6	131,408	43,737	22,441
1926년	13,252,3	5,194,2	4,023,4	128,239	40,074	22,010
1927년	13,364,6	4,763,1	3,986,0	144,989	43,223	23,485
1928년	13,513,5	4,759,5	4,219,2	109,327	32,327	18,552

(6) 과수

품종명		재배수(본)	수확고(관)	품종명		재배수(본)	수확고(관)
본과	홍 옥	650	750	배	축	400	490
	국 광	1,300	1,500		유 옥	455	450
	왜 금	670	1,500		육	455	600
배	장 십 량	1,215	750		계	3,925	8,290
	만 삼 길	700	380		금 촌 추	1,025	850
	명 월	300	160		서 양 배	300	300
	계			계	3,540	3,880	



11. 양잠업(1928년)

(1) 상전반별(묘)

기설상전			신설상전			합 계			산상이용 견입반별
본반별	견적반별	계	본반별	견적반별	계	본반별	견적반별	계	
394.6	1,657.7	2,052.3	176.0	430.0	606.0	570.6	2,087.7	2,658.3	

가. 위내역

근예상전		중예 및 고예상전		입통상전		합 계
본반별	견적반별	본반별	견적반별	본반별	견적반별	
570.6	-	-	-	-	2,087.7	2,658.3

(2) 양잠상황

구별	상전반별 (정)	사육호수 (호)	잠종매수 (매)	균산액 (석)	동상가격 (원)	양잠가1호당		잠종일매고	
						균산액 (원)	금액 (원)	수균량	금액 (원)
봄	2,658.3	2,772	2,423	1,348	60,161	486	21.70	557	24.83
가을		1,486	1,574	639	21,611	43	14.54	406	13.73
계	2,658.3	4,256	3,997	1,987	81,772	465	19.21	495	20.46

(3) 치잠공동사육상황

개소	공동사육소	경비	보조금	잠 종 소립매수	수균량	잠종1매당수 균량	공동사육1호당	
							수균량	경비
5	98	423.00	295.00	162	88	543	898	1.28



(4) 균공동 판매상황

춘 잠			하 추 잠			계	
판매량	가격	석당평균가격	판매량	가격	석당평균가격	판매량	가격
1,144	51,068	45	496	16,773	33	1,640	67,841

(5) 가잠사 및 잠종 제조상황

가 잠 사					잠 종				
제조호수	생산액	가격	제사가호당		제조자수	제조매수			
			생산액	가격		춘잠종	하잠종	추잠종	계
289	84	2,520	300	8.70	2	2,630		500	3,130

(6) 상묘생산수

생산호수	접 목							실생	합계
	노상	적시	시평	대엽조생	개량서반	금상	계		
4호	228,956본			8,400본	8,400본		245,756본	486,000본	731,756본

(7) 건균기 설비상황

소재지	소유자	건균장수	1회입 균석수	1일 건균양	건균분치 형식명칭	직접열 간접열별	균취급 장소면적	설립년
온양면 온천리	아산군 농회	1개소	31석	62석	탄화식	직접열	72평	대정10년



(8) 잠구공동구입상황

구입인원수	잠 구 종 별 수 량						
	잠박	잠가	잠망	잠족	잠좌지	건습계	포정
208인	3,490	1,216개	1,407매		15,000매	15	-

12. 면작(목화농사)

(1) 육지면작

경작반별	경작호수	생산량	사 도 별			1호당 생산액	1반당 수확고
			자가용	판매수량	동상가격		
511.00정	4,928	607,476근	540,101	67,375	11,541원	123근	119근

(2) 모범작포

개소수	면적	생산량	1반당 수확고	성적, 개황
5	8.27정	14,493근	175근	량호

(3) 지정이동

설치장소	농가호수	면작호수	동상면적	수확고	1반당 수확고	성적, 개황
배방면 주출리	70	67	11.01정	15,963근	145근	량호
도고면 시전리	120	99	13.05정	18,268근	140근	동



13. 축산(1928년말)

(1) 가축 가금

가. 소

사육호수	현재두수			출산			폐사	박살	도살
	숫소	암소	계	숫소	암소	계			
4,392	752	3,743	4,495	353	556	909	39		1,094

나. 말과 양

사육호수	말			당나귀	노새	양	
	숫말	암말	계			산양	면양
15	11	4	15	4	2	115	2

다. 돼지

사육호수	재래종		개량종			출산			폐사	박살	도살
	숫돈	암돈	숫돈	암돈	합계	숫돈	암돈	계			
2,494	706	1,001	585	747	3,029	986	1,445	2,431	119		1,525

라. 닭

사육호수	재래종			개량종			합계	사육자 1호당 평균 마릿수
	수탉	암탉	계	수탉	암탉	계		
4,177	2,619	5,624	8,243	1,890	3,876	5,766	14,009	3.4

(2) 소의 매매

시장명	팔려는 두수	매매두수			매매총액	한 마리당 평균 가격		
		큰소	송아지	계		최고	최저	평균
온양시	1,289	247	149	396	17,607	71.50	21.50	46.45
온천시	5,076	780	845	1,625	62,656	66.20	21.20	43.70
둔포시	30	6		6	250			
계	6,395	1,033	994	2,027	80,513			

옛 일본어 아산근지



(3) 종우

종모우			종빈우			종모우	
도유	면유	계	도유	조합유	계	종부수	일개년일두 평균종부수
	51	51		38	38	2,230	44

(4) 젓소

조선종		우유량	착유장
암 소	숫 컷	246근	2곳
2두			

(5) 양봉

사양호수	사양상자수			꿀채취량		채취장	
	재래종	개량종	계	근량	가격	근량	가격
133	201	54	255	1,530	1,254	365	124

(6) 축산물

종별	산 액		종별	생산액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우 피	23,942	10,603	벌 꿀	1,339	1,168
우 꿀	16,268	227	밀 랍	326	111
소 기 림	2,937	313	우 유	246	123
돼 지 털	254	29			12,601
돼 지 기 림	376	27	합 계		



14. 임업(1928년말)

(1) 임야면적

종별	성림지	치수지	미입목지	계
국유	7,504,15	6,077,20	2,430.22	16,011.57
민유	5,314,50	4,685,10	1,537.26	11,536.86
합계	12,818,65	10,762,30	3,967.48	27,548.43

(2) 조림

구별	면적	수종별 식재본수						계
		흙송	낙엽송	조선송	밤나무	참나무	자작 낙엽고목	
면유림	187	256,500	4,500			156,200	29,500	464,200
학교림	31	14,000	6,750		500			21,250
사유림	836	724,900	24,700	1,000	18,000	148,100	217,100	1,379,100
합계	1,054	984,400	29,200	1,000	18,500	304,300	246,100	1,864,550

(3) 묘포

구별	묘포수	면적		묘포 생산묘목수(본)					
		전면적	시설면적	흙송	낙엽송	밤나무	참나무	자작 낙엽고목	계
사설	44	21,440	18,220	964,015	673,459	2,683	410,678	14,620	2,065,453

(4) 임산액

종별	수량	가격(원)	종별	수량	가격(원)
용 재(척)	16,745	502,025	약 초(관)	2,670	484
숯	460,945	18,437	염 료	295	75
지 업	376,410	11,291	오 배 자	21,200	318
나 무 풀	3,273,995	84,349	옷 나 무	50	400
목 탄	58,390	934			
종 실	765	15,334	계		181,857



15. 수산(1928년말)

(1) 어업자(어선 및 어구수)

종별	어업자		어 선 수			어 구	
	호수	인구	어업양식	수산제조운수기타	계	통수	가격
일본인							
조선인	35	110	18		18	91	3,335
계	35	110	18		18	91	3,335

(2) 주요어획물

종류 구별	조기	새우	상어	농어	계	뱅어	계	강다리	잡어	합계
수량(관)	200	1,640	500	100	24,470		3,400		18,718	49,028
가격(원)	80	256	85	29	5,785		620		24,219	9,294

(3) 어업별 어획고

어업종별	총어선수	승조원	어획고	어업계절	주요어장
안 간 망	6	17	4,980	4월~12월	아산만
거 망	4	8	1,500	4월~12월	아산만
달 간 망	2	4	500	4월~12월	아산만
궁 선 망	2	4	850	4월~12월	아산만
연 망	1	2	238	2월~12월	아산만
포 방 망	2	4	710	2월~12월	아산만
주 목 망	1	2	166	3월~6월	아산만
괘 조	4	8	150	4월~12월	아산만
계	22	51	9,294		

(4) 수산제조물

식 용 품					
마른생선		염 장		계	
제품수량	가격	제품수량	가격	제품수량	가격
320	416	550	856	870	1,272



16. 상공업(1928년말)

(1) 회사

명칭	위치	창립년월	영업종별	공 칭 자본금	불 입 자본금	적립금	차입금	대부금
온양전기주식회사	온양면 온천리	1921년 11월 25일	전등전력의 공급과 부태업무	50,000	12,500		37,500	

(2) 공장

명칭	위치	공장주명	창업년월	공장평수	자본금	생산물		
						종류	수량	가격
정미공장	영인면 신운리	유기영	1924년 10월	70평	3,000	현미	850	21,250

(3) 시장

시장명	소재지	경영장	개시 회수	개시 일	1개년매매고(원)					계
					농산물	수산물	직물	가축류	기타잡품	
온양시	온양면 읍내리	온양면	72	1,6	57,500	25,100	32,900	37,700	99,590	252,790
온천시	온양면 온천리	온양면	72	4,9	108,300	64,550	99,500	49,550	120,590	452,470
둔포시	둔포면 둔포리	둔포면	72	2,7	17,500	7,500	9,500	2,800	6,000	43,300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영인면	72	3,8	15,000	200	20,000	100	500	35,800
선장시	선장면 군덕리	선장면	72	4,9	21,123	4,982	50,879	5,214	68,912	151,110
신창시	신창면 읍내리	신창면	60	2,7	2,300	700	1,500	450	200	5,150
용호원시	도고면 향산리	도고면	72	3,8	931	256	1,800	170	862	4,020
합계					222,654	103,288	216,099	95,984	306,635	944,640



(4) 공산물

종류	생산			종류	생산		
	호수	수량	금액		호수	수량	금액
생 사	109	53	2,650	베	720	1,200	3,600
면 포	884	1,563	4,751	모 시	45	49	245
건 포	539	367	2,936	자 리	2,236	4,359	8,718
교 직 포				개 량 자 리	620	3,140	471
도 자 기	2	8,500	5,100	가 마 니	2,373	207,883	45,736
금 은 세 공	2	1,020	2,550	새 끼	6,397	344,038	65,367
칼	5	3,150	1,400	비 단 가 공 품	2,500	38,000	19,000
낫 그 림	1	830	1,411	양 잠 구	270	4,890	489
기 타 금 속 제 품	2	1,100	330	차 량	2	20	1,600
장 갑	9	250	750	약 주	19	146	11,680
장 레 물	1	3,500	2,450	탁 주	19	6,579	197,370
나 막 신				식 초	1,200	12	120
기 타 목 제 품	0	3,000	6,000	누 륵	188	35,000	75,000
교 맥 분				신	1	30	300
기 타 곡 분	1,950	2,400	1,920	소 기 림	25	530	318
국 수 류	9	12,000	11,400	초	25	52	140
태	89	2,500	3,000	들 기 림	4,200	530	74,200
참 기 림	3,500	680	81,600	향 수	175	75	13,500
과 자	5	4,500	9,000	콩 깨 목	5	970	291
꿀	28	213	1,278	합 계	28,213	257,679	661,457



17. 진흥회(1928년)

일반진흥회			지정진흥회			계			면 당 진흥회수	군진흥회연합회	
회수	역원수	회원수	회수	역원수	회원수	회수	역원수	회원수		회수	일년경비
56	319	3,569	17	113	1,152	73	432	4,721	6	1	364

18. 교통(1928년)

(1) 온천리에서 각 지역까지의 리정

지 명	이 수	지 명	이 수
온 양 읍 내	0.32	신 창 읍 내	1.24
아 산 읍 내	2.30	백 석 포	3.26
선 장	3.28	평 택	7.16
흥 성	11.16	성 환	7.18
둔 포	5.03	예 산	6.02
천 안	3.21	공 주	15.09

(2) 도·군청간 거리

육 로	기 차로	수 로
6리 20정	30리 4	

(3) 도로

노선명	등급	주요 경과지	군내연 장리수	노선명	등급	주요 경과지	군내연 장리수
천 안	2	온천리	7.01	성 환	3	곡교리	1.00
흥 성	2	아산	7.01	둔 포	3	삼거리	1.00
온 천	3	백석포	7.21	자 온 천 리	등외	역촌리	5.03
평 택	3	둔포	7.21	지 둔 포	등외		5.03
공 주	등외	둔포	2.00	자 온 장	동		2.18
온 양	등외	중리	2.00	지 유 구	동		2.18



(4) 철도

노 선	군내기점역	군내중착역	哩 程
경남철도 충남선	세교정류소	신장역	16.8

(5) 자동차 정기운전 구간

경영자	구 간	경과지	리 정
유익영	온천리 역촌리(송악면)	온양 염성리(염티면)	2.14
	온천리 공세리(인주면)		4.17
永松吉 (友吉)	온천리	아산	6.15
	둔포	염성리 아산	0.16
	온천리 홍공재 (온양수리조합 저수지)	백석포	

(6) 육상운반구

자동차	인력거	화물차	소하차	말하차	자전거	합 계
7대	10대	60대	243	1	548대	868

19. 산업단체(1928년도)

(1) 군농회

역 직원수	세 입 (원)										
	경상부예산					임시부예산					세입 합계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	재산 수입	잡수입	경상부 계	이월금	보조금	잡수입	차입금	임시부 계	
45명	12,050	1,959	144	463	14,615	3,100	2,695	4,666	1,500	11,961	26,571



회원 수	세 출 (원)												
	경상부예산									임시부예산			세출 합계
	사무비	회의비	사업비	기본재산 조성관리비	회비 취급비	도농 회비	잡지출	예비비	경상부 계	영선비	차입금	임시부 계	
13,800	2,937	328	18,462	775	215	844	559	800	24,956	1,500	120	1,620	26,576

(2) 축산동업조합(畜産同業組合)

역 직원수	세 입 예 산									
	조합비	수수료	지방 보조	축산연합 회보조	차입금	과년도 수입	조월금	경 우양파 대상금	잡수입	세입 합계
6명	1,736	2,860	125	598	400	43	773	44	1,317	8,292

조합원 수	세 출 예 산								
	사무비	사업비	부담금	차입금액	기본재산 적립금	회의비	잡지출	예비비	세출 합계
4,340	1,107	4,979	718	420	50	56	390	590	8,292

(3) 삼림조합(森林組合)

역 직원수	세 입 예 산						
	조합비	조월금	보조금	과년도 수입	잡수입	수수료	세입 합계
42명	6,126	750	1,046	700	65	300	8,987

조합원수	세 출 예 산					
	사무비	사업비	회의비	삼림조합 연합회부담금	예비비	세출 합계
6,379명	1,044	7,252	123	122	446	8,987



20. 관공서(1929년 5월)

군청	면 사무소	학교 조합	수리 조합	경찰서	동 주재소	동 출장소	토목관구 사무소	곡 물 검사소	금융조합	동 출장소	지방법원 출장소	우편소
1	12	2	2	1	10	1	1	1	2	1	1	4

21. 직원(1929년 5월말)

(1) 군

군수		군속		군가수		산업기수		지방서기	척량수	고원		합계		
선	일	선	일	선	일	선	선	선	선	일	선	일	선	계
1	3	6	1		3	1	2	1	1	6	8	17	25	

(2) 면

면장	회계원	서기		구장		합계
선	선	일	선	일	선	
12	12	1	49	1	167	242

22. 재정

(1) 국세(1928년도)

세 목	금 액	세 목	금 액
지 세	120,896	광 세	1,034
소 득 세	784	주 세	8,447
영 업 세	1,916	계	131,993

가. 세외수입

세 목	금액	세 목	금액
산 림 수 입	781	징벌및몰수금	770
역 둔 도 수 입	4,191	토지불하대금	37,377
관유물 대하료	463		



(2) 지방세(1928년)

세 목	금 액	세 목	금 액
지 세	68,699	어 업 세	31
호 세	17,366	차 량 세	2,658
도 장 세	2,220	부 동 산 취 득 세	10,014
도 축 세	1,379	계	102,354

(3) 면예산(1928년도)

세 입		세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부 과 금	74,696	금 여	53,032
재 산 수 입	5,159	사 무 비	7,371
사 용 료	2,518	토 목 비	2,945
수 수 료	820	권 업 비	23,214
교 부 금	6,977	위 생 비	2,568
잡 수 입	6,015	경 비 비	937
전년도조월금	1,500	기 본 재 산 조 성 비	7,022
보 조 금	8,004	면 사 무 소 건 축 적 립 금	2,400
기 부 금	700	면직원퇴직및사망급여적립금	2,007
재 산 매 각 대	1,684	교 량 가 설 적 립 금	670
과 년 도 수 입	1,385	재 산 관 리 비	916
		잡 지 출	1,320
		기 부 금	3,143
		보 조 금	200
		예 비 비	1,713
세 입 합 계	109,458	세 출 합 계	109,458



(4) 학교비예산(1929년도)

세		입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부 과 금	11,425	보 조 금	45,954
사용료 및 수수료	121,694	기 부 금	14,000
재 산 수 입	2,580	과 년 도 수 입	2
잡 수 입	399	세 입 합 계	93,493
조 월 금	5,459		

세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평 의 회 비	191	재 산 관 리 비	535
선 거 비	20	국 고 납 금	432
보 통 학 교 비	61,082	학 교 비 취 급 비	1,327
실 업 보 습 학 교 비	2,955	잡 지 출	450
실 과 교 육 비	1,580	예 비 비	1,350
기본재산조성비	1,718	경 상 부 계	71,640

세		출(임시부)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보 통 학 교 건 축 비	19,023	임 시 부 계	21,853
교 원 숙 사 건 축 비	2,380	세 출 합 계	93,413
적 립 금	450		



(5) 학교조합예산(1929년도)

세 입		세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경 상 부		경 상 부	
부 과 금	3,993	사 무 소 비	1,038
수 업 료	420	회 의 비	46
도 장 사 용 료	3,540	교 육 비	8,238
독 촉 수 수 료	3	도 장 비	2,417
재 산 수 입	47	기 타 지 출	590
기 타 수 입	55	경 상 부 계	12,329
경 상 부 계	8,058		
임 시 부		임 시 부	
조 월 금		수 선 비	100
기 부 금		조 합 채 비	190
국 고 보 조 금		기 타 지 출	1,100
지 방 비 보 조 금		임 시 부 계	1,390
기 타 수 입		세 출 합 계	13,719
임 시 부 계			
세 입 합 계			
부담금 1호당 평균액	25원93전	생도 1인당 경상 교육비	59원70전



(6) 수리조합예산(1929년도)

가. 온양수리조합예산

세입(경상부)(원)					세입(임시부)(원)				세입 합계
조합비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재산 수입	경상부 계	조월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임시부 계	
60,847	363	95	144	61,449	4,890	100	191	5,181	66,630

세출(경상부)(원)					세출(임시부)(원)				세출 합계
관리비	사업비	재산비	잡지출	예비비	세출경 상부계	조합채비	과년도 수입	세출임 시부계	
9,545	6,154	50	774	800	17,323	49,070	237	49,370	66,630

나. 도고수리조합예산

세입(경상부)(원)					세입(임시부)(원)				세입 합계
조합비	수수료	잡수입	재산 수입	경상부 계	조월금	조합비	국고 보조	임시부계	
9,200	1	1,336	180	10,717	5,000	240,000	26,600	271,600	282,317

세출(경상부)(원)				세출(임시부)(원)						세출 합계
관리비	사업비	예비비	경사부 계	공산 감독비	계속 사업비	조합채비	건축비	잡지출	임시부 계	
10,762	794	500	12,056	9,670	224,191	29,400	3,000	4,000	270,261	282,317



(7) 향교재산예산(1929년도)

세 입 (원)					세입 합계
재산수입	잡수입	전년도 조월금	과년도 수입	보조금	
1,601	7	130	20	301	2,054

세 출 (원)					세출 합계
문묘비	지방교회비	재산관리비	사무비	예비비	
627	880	452	86	9	2,054

(8) 직접세부담액(1928년도)

종별	호수	인구	부 담 금										합계	
			국세		지방세		면비 부과금		학교비 부과금		학교 조합비			
내지인	214	824	4755	480	9,233	660	7,272	850			3,519	990	34,981	980
조선인	14,054	78,406	102,482	480	79,122	980	61,617	170	8,961	740			252,184	390
외국인	46	117	564	200	393	23	294	610					1,252	40
계	14,314	79,347	118,402	160	88,749	870	69,184	630	8,961	740	3,519	990	288,418	390

종별	평 균 부 담 액											
	국세		지방세		면비 부과금		학교비 부과금		학교 조합비		합계	
	1호당	1인당	1호당	1인당	1호당	1인당	1호당	1인당	1호당	1인당	1호당	1인당
내지인	69,882	18,149	43,147	11,205	23,983	8,826			26,448	4,271	63,467	42,454
조선인	7,029	1,307	5,629	1,009	4,384	785	637	114			17,944	3,216
외국인	12,265	4,822	8,548	3,362	6,404	2,528					27,218	10,701
계	8,024	1,486	6,200	1,118	4,833	871	626	112	245	44	20,149	3,636



(9) 금융상황

가. 금융조합

조합명	조합원 수	조합원 출자금	불입 제출자금	정부 하부금	제 준비금	예금	차입금	대출금	잉여금
아 산	1,164	14,700	30,108	10,000	37,500	145,423	16,793	113,903	4,655
영인지소	477					26,825	27,402	56,314	3,517
선 장	996	13,980	10,682	2,000	4,950	41,019	75,412	124,263	1,002
계	2,637	28,680	40,790	12,000	42,450	213,267	119,607	294,480	9,174

나. 저 금 (△표는 단체의 저금을 표시)

조합명	내지인		조선인		외국인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아 산	324	45,383	2,139 △1,110	72,827 △26,958	3	254	2,466	118,464
영인지소	37	6,418	978	20,407			1,015	26,825
선 장	45	4,830	1,169	36,152	2	37	1,216	41,019
계	406	56,631	4,286 △1,110	129,386 △76,958	5	291	4,697	186,308



23. 온양 온천

(1) 온양 온천의 위치

온양 온천은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면 온천리(아산군청 소재지)에 있다. 경부선 천안역(경성역에서 남쪽으로 약 97km)에서 약 14km의 지점에 위치하고 천안에서 광천간을 (광천까지만 개통) 연락하는 경남철도(경남철도주식회사 경영)의 편을 가지고 있다. 철도의 편을 이용하면 경성에서 다만 약 3시간(천안-온양온천간 29분, 그밖에 자동차 편도 있음)으로 온천장에 도착할 수 있다.

(2) 온양온천 연혁

온양온천의 부근에서 동쪽으로 천안군 경계까지의 지역은 백제시대에는 탕정군(신라시대에는 탕정주라 불리우기도 했다. 구 온양군 연혁 참조). 또 고려시대에는 온수군(溫水郡)이라 불리운 곳이다. (동국여지승람 19쪽에 의함) 이들지명은 모름지기 오늘날의 온양온천이라는 지명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근거는 이 온천의 존재는 백제시대 이미 알려져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구 건물은 조선조 태조가 건축하고 대원군이 이를 중수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경남철도회사가 직영한 후 대부분 없어졌음).

또 온천장의 서쪽에 있는 건물은 조선조시대 건축한 온궁(溫宮)이라 칭하는 궁전이 있으나 임진왜란 때 없어진 것이라고 한다.

(3) 온양온천의 유래

온양온천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백제시대 이미 널리 알려졌다고 생각이 되나 이는 지명으로 추리한 고증일뿐 두루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500년전 고려나 조선조 초기가 되고, 조선조시대에 이르러 특히 유명해



진 것 같다. 세종·세조·현종·숙종·영조·정조대왕은 자주 이를 이용하였고 따라서 그 유적이나 비석이 온천장 부근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 지형

온천장은 해발 20m미만의 좁은 평야로 서쪽에는 서서히 북방의 난류로서 흘러 곡교천에 합치는 온천천(내)을 끝으로 사방은 해발 150m 이하의 구릉으로 그 지형은 단조롭다

(5) 지질

아산군의 대부분은 조선반도를 북동 동서로 사단되는 화강암 대중에 있고 주로 천한 무리아계의 변질 암류와 이에 관입 접촉한 것이 분명하며 이로부터 병상흑모각섬석화강암으로 됨. 이 화강암은 충남도내 홍성, 예산 및 당진의 3개 분에 걸쳐 분포된 흑운모미사장석화강의 이상으로서 보령, 서천 및 청양 각군에 퍼진 하부주라기층보다 고대 시대의 것이다.

(6) 온천

탕맥(湯脈)과 원천(源泉)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源泉	水面에 있어서의(온천섭씨)	氣溫(섭씨)	氣壓(○)
A	43.0	19.0	772.7
N	50.0	15.5~16.5	771.0
M	49.5	15.0~16.0	770.0~770.7
K	46	16.5	771.0



(7) 천질(泉質)

각 원질(各 源質)을 통해보면 무색 무치이며 조금 짠맛이 있고, 상온(常溫)일 때 약한 알카리성을 띄면 A 및 N보다 시료(試料)가 물 1킬로그램 중 다음과 같은 염류(소금)가 함유한 용액과 성질이 같다.

성 분	A	N
염 화 가 리	15.1	9.7
염 화 소 다(鹽化소다)	17.0	17.1
유 산 석 회(유 산 石 회)	8.5	10.9
염 화 마 그 네 슴	4.5	3.0
유 산 소 다	0.6	0.3
준 탄 산 소 다	142.5	144.2
합 계	188.2	185.2
메 다 규 산	71.0	74.5
총 계	259.2	259.7

이 밖에 다소의 「라지움에마나치은」도 함유돼 있다.

(8) 용출량(湧出量)

용출량은 1분간 0.3입방미 즉 1시간 약 1.6키로 입방미(9石)라고 보면 큰 차이가 없다.(경남철도회사가 직영한 후의용출량은 1일 1만 수천석)

(9) 기후와 온천과의 관계

기압과 용출량과의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온천에서 그런 것과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기압이 낮을 때는 높을 때에 비하여 용출량이 많고, 또 비가 내릴 때는 온천수의 혼탁과 온도가 내려가는 천질(泉質)변화 등을 일으키는 일이 없는 것 같다.



(10) 지질구조와 온천과의 관계

이 지방의 지질구조선이 특히 온천을 유도(誘導)하고 있는 것은 모르지기 이 지방의 지질구조선(線)이 온천의 상승로(上昇路)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열원(熱源)이 특히 이곳에 있어서 비교적 얇은 곳에 존재하는지? 또는 지하 깊은 곳에서 온천수를 유도해내는 또다른 특징이 있는 통로로 용출하는 것인지에 의문이 생긴다. 「이상은 주로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 조사서에 근거를 둔 것임」

24. 온양 온천 안내

온양 온천은 최근 십수년간 온양온천주식회사에 의해 경영되어 왔으나 시설 불비로서 천혜의 영천을 개발하여 널리 세인에게 소개되어 오던 중 1926년 11월 1일 경남철도주식회사가 이를 인수받아 예의 여러므로 설비하고 아울러 온양의 발전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개량을 계획한 이래 1년 반 시설완비를 전제로 하여 신탕원의 시추에 힘써, 2개소(9굴진) 300척에 달해 십씨 50도의 온천이 주야 일만수천석 용출을 이루게 되어 많은 온천수를 얻게 되어 미온 탕원은 전부 이를 폐지. 이 2개소에서 용출되는 온천수를 사용하게 되었음.

(1) 신정관 유래

경남철도주식회사가 개축한 온천장의 총칭을 신정관이라 명명함은 탕원 부근에 국가의 조영물로서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신정비의 비문에 천순8년 봄2월 이조세조 남유에 즈음하여 역을 온천군온양에 두고 사일 되는 날 신정이 갑자기 용출마당에 범람하였음. 세조 이를 보고 놀라 파게 하자, 여전히 솟아나왔고 그 물의 차기는 눈과 같고 맑기는 거울과 같았고 온탕은 따뜻하고 냉천은 차가웠다. 이에 대안희열에 하였으며 전국의 팔도에 표하여

축하하였다.

한편, 동회사에서 신탕시추공사에 착수중 지하 약 15척에서 불과 3척을 사이에 두고 하나는 냉천, 하나는 온천이 맞서 용출함에 신비한 비문이 결코 과장함이 없는 사실로 판명된 근거에 입각하여 신정 두글자로 상호에 붙여 신정관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 비는 현재 관유물로서 아산군 관리하에 두어 영구 보존하고 있다.

(2) 온양온천수의 정량분석(定量分析)

온양온천수는 약한 염류천에 속한다. 색이 없고 맑고 거의 냄새와 특별한 맛이 없어 그 반응이 중성(中性)이나, 이 물을 끓여보면 극소의 「알카리」性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비중은 섭씨 15도에서 1,0004가 나타난다. 그리고 정량분석(定量分析)에 의하면 매 1,000분중(每千分中)에 함유되어 있는 고형물(固形物) 총량은 0.2069분(分)이 되는데, 그 각 성분의 량은 다음과 같다.

	양(g)
硅 酸	0.0740
硫 酸 칼 슴	0.0067
硫 酸 마 그 네 슴	0.0123
크 로 루 나 트 림	0.0276
重 炭 硫 나 트 림	0.1584
炭 硫 칼 림	0.0039

이상의 성분외에 미량의 철분과 「알미늄」 이온이 존재하고 있다.

(3) 온천수의 치료효과

■ 외과

筋 및 관절·류마치스·만성습진·설사적리·脊·수로·반신불수·부인 생식기만성제병 선병



■ 내과

위가답아·위통·하리복가답아

25. 온천신정관안내

(1) 본관

본 관내에는 남녀 별 대공동욕장, 큰 휴게실, 전용대탕, 식당, (간이식당, 내식당), 당구장, 바둑방(球戲 碁) 장기실, 매점, 주막, 어린이놀이방, 등의 설비완비, 욕객으로 하여금 싫증이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음.

(2) 여관부

여관부는 숙박료와 대실료의 두 가지로 되었고, 몇 사람 공동숙박시에는 할인의 규정도 있음.

(3) 부속유원지

신정관으로부터 약 1마일 떨어진 곳에 주위 44정, 면적 약 100정의 대저수지 일명 변천지가 있어 물 맑고 깊은 주위에는 산에 둘러 있어 경치 좋은 산자수명의 미경으로서 경남철도주식회사는 4간폭의 회유도로를 통해 자동차의 편 있으면 편리하기 그지 없음.

(4) 특유요리

가) 야채요리

경남철도회사직영의 농원은 폐탕을 이용 온상재배에 의해 네 계절 내외의 싱싱한 야채를 재배하여 신선한 야채요리는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들이다.



나) 천어요리(민물고기 요리)

온양천 및 변천지에 번식하는 잉어회, 장어구이, 피라미 튀김, 소금구이, 기타 물고기의 조달로 이 요리는 신정관의 최대 자랑의 하나임.

그 중 피라미는 조선총독부 수산시험장으로부터 산란을 분양 받아 동 회사에서 변천지에 방유한 것으로 은어와 같이 1년어로서 담백하고 맛이 좋음.

다) 온천 토산품

온천특제의 과자, 과물 피라미의 소금조림, 그림엽서, 기타 문화사진관실 등 타지방에 있어 귀중한 온천장토산물은 관내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음. 특히 참외 및 배는 황실에 진상한 바 있는 영예를 받고 있음

(5) 各種料金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오전 7시 개관, 오후 10시 닫음.

10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오전 8시 개관, 오후 9시 닫음.

1) 본관 입장료

가. 보통입장료

- 대인 1회 : 25전
- 소인 1회 : 10전

나. 할인입장료

- 20인 이상 단체 1명 1회 : 대인 20전
- 20인 이상 단체 1명 1회 : 소인 8전
- 50인 이상 단체 1명 1회 : 대인 15전
- 50인 이상 단체 1명 1회 : 소인 5전
- 100인 이상 단체 1명 1회 : 대인 10전
- 100인 이상 단체 1명 1회 : 소인 3전



- 현역 군인, 소학교 아동, 유치원 원아 30명 이상 : 5전
- 소학교, 보통학교, 유치원 어린이, 인솔직원 : 무료

2) 전용대실 (6첩 본간, 3첩 차간, 광연 5첩 딸림)

- 1일 개관시간부터 문 닫는 시간까지 : 2원
(단, 1명이 늘을 때마다 50전)
- 소아 12세 미만 : 반액, / 4세 미만 : 무료
반나절 오후 2시부터 문닫을 시간까지 : 1원 50전
(단, 1명이 늘을 때마다 35전)

3) 전용임대탕 (전용 욕조 및 4첩반 휴게실 딸린곳)

- 1시간 : 50전
(단, 1명이 늘을 때마다 20전)
- 소아 12세 미만 : 반액 / 4세 미만 : 무료

4) 수중루각 입장료

- 대인 : 1회 / 5전
- 소인 : 1회 / 3전

5) 대선료(배 빌리는 값)

배삿	요금	대 선 료				비고
		1일	반나절	1시간	야간 1시간	
50인승	15원	8원	1원 80전	2원 20전	뱃사공 2명 딸림	
30인승	10원	6원	1원 30전	1원 60전	1명	
12인승	7원	4원	1원	1원 20전	"	
10인승	5원	3원	70전	85전	"	
5인승	3원	2원	50전	50전	"	
3인승			30전	30전	"	

※ 그러나 야간은 시간임대 이외는 반나절 문의 요금



- 모타보트 (10분간) 3인까지 낮에는 90전, 밤에는 1원 10전
- 모타보트 (10분간) 4인까지 낮에는 1원 20전
- 모타보트 (10분간) 5인까지 낮에는 1원 25전, 밤에는 1원 50전
(단, 5인이상 1명이 늘을 때마다 25전)

6) 여관부 숙박요금

가. 숙박료(아침, 저녁 일식 따라 나올 때)

① 일박 : 5원

② 일박 : 4원

- 한방에 여러명이 같이 이용시에는 1명은 정액요금이고 다른 사람은 정액요금의 일할인

나. 실료 (식자 제공 없는 숙박료)

① 일박 : 3원 50전

② 일박 : 3원

③ 일박 : 2원 50전

- 한방에 단체 숙박 때에는 1명은 정액요금 그 외는 정액요금의 50% 할인함.

- 차 값은 절대 안 받음.

- 단체 숙박일 때는 따로 할인을 협의해 드립니다.

다. 정식(定食)요금

① 일식 : 조식 1원 / 점심 1원 50전 / 저녁 2원

② 양식 : 조식 1원 50전 / 점심 2원 / 저녁 2원 50전

26. 온양온천행 기차 샅 할인

목욕객, 유람객의 권리를 도모해 드리기 위하여 경남철도사선 각 역에서 2, 3등 20% 할인 및 서울, 용산, 인천, 상인천, 수원~대전간 각 역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2, 3등 40% 할인(통용기간 : 2일간) 2밤의 날에는 철도국선의



앞에 쓴 각 역과 조선철도주식회사 충북 청주로부터 2, 3등 30% 할인(통용기간 14일간)의 왕복승차권을 발매함.

40% 할인 통용 2일간의 왕복승차권을 지참하신 분의 경우 위 체제기간을 연장 되어 있지 않을 때 승차권의 통용기간 안에 온양 온천 또는 온양온천 사무소에 신고하시면 30% 할인된 차액요금 만을 받습니다.

27. 직통 객차의 운행

경부선 천안역에서 차를 갈아타거나 수화물을 옮겨 신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매일 다음시간에 겨울철에는 증기난방, 여름철에는 선풍기의 냉난방 장치가 완비된 온양온천 직통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 경성발(서울발) 온양온천행

- | | |
|---------------|------------|
| ■ 경성발(서울발) 시각 | ■ 온양착 |
| 오전 8시 42분 | 오후 12시 4분 |
| ■ 온양발 시각 | ■ 경성착(서울착) |
| 오후 3시 20분 | 오후 6시 33분 |

28. 온양온천역 기차 및 자동차 발착시간표

(1) 온양온천역 기차 및 자동차 발착시간표

상 행	하 행
■ 오전 8시 3분	8시 7분(광천행)
■ 12시 10분	10시 56분(광천행)



- | | |
|----------------|-------------|
| ■ 1시 36분 | 12시 4분(착) |
| ■ 3시 20분(경성직통) | 1시 32분(광천행) |
| ■ 4시 13분 | 3시 14분(착) |
| ■ 7시 8분 | 5시 42분(광천행) |
| ■ 9시 15분 | 8시 42분(착) |

(2) 자동차 발 시간표 (천안 온천간 소요시간 20분)

- | 천안행(온양에서) | 온양행(천안에서) |
|-------------|-----------|
| ■ 오전 5시 25분 | 6시 30분 |
| ■ 9시 20분 | 8시 50분 |
| ■ 11시 20분 | 0시 20분 |
| ■ 3시 20분 | 2시 10분 |
| ■ 5시 10분 | 4시 20분 |
| ■ 6시 10분 | 6시 30분 |
| ■ 10시 40분 | 11시 40분 |

이 밖에 미리 신입한 내용에 따라 임시 특별 운행도 함.

29. 기타의 여관

온양온천에는 앞서 기재한 신정관 호텔을 제외한 여관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어느 여관이건 모두가 친절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숙박 손님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투숙객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있다.



(1) 내지인 여관 (일본인 여관)

가) 온양관(온천탕 있음)

본관은 온양온천의 원탕으로서 옛날부터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여관인 바 최근 신관을 새로 지어 현대풍인 신식여관과 오랜 전통을 이어온 구관을 대대적으로 개축하여 내탕의 모든 설비가 완비되어 있음으로서 개인이 경영하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로써 부족함이 없는 설비를 갖추고 숙박료와 대실료 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대분발을 거듭함으로서 많은 욕객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다.

나) 숙박료 및 대실료

- 특등 6원(2식 1박) : 양실 침대 있음
 - 1등 5원(2식 1박) : 4첩 규모 시설 우수
 - 2등 4원 50전(2식 1박) : 8첩 규모 시설 우수
 - 3등 3원 50전(2식 1박) : 6첩 규모 시설 우수
- ※ 기차역 환승에는 자동차 무료 제공

(2) 석전여관(石田旅館)

(3) 광양여관(廣陽旅館)

누구나 마음이 끌리는 편안한 여관으로서 손님들의 쌓인 피로를 가시게 하고 새로운 욕망을 일구어 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봉사하고 있다.

가) 숙박료

- 특등 6원(2식 1박)
- 1등 5원(2식 1박)
- 2등 4원(2식 1박)



- 3등 3원(2식 1박)
 - 4등 3원 50전(2식 1박)
- ※ 신병치료나 정신적 평온을 갖고자 장기 투숙하는 손님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인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할인 혜택에 대한 상담도 합니다.

(4) 선인여관(鮮人旅館)

(5) 대성여관(大成旅館)

(6) 광성여관(光成旅館)

이 밖에 몇 군데의 여관들이 있는바 이곳 여관들의 시설이나 친절 봉사정신 등은 다른 지방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평가되며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30. 온양온천 유기(遊記)

1) 호남일보기자 秋芳千萬人

그리 큰 도시는 아니지만 연일 96도를 오르내리는 수은주의 눈금은 적지 않게 괴로움을 당하는 조선(朝鮮)의 금년 여름이다. 흥진으로 허덕이는 창밖의 보행자가 살아가는 고뇌 그 모습만으로도 살인적인 태양 밑을 옛 가래처럼 녹아 걸어가는 모습이 애처롭게 보인다. 바람도 죽음의 신도 같이 묶인 체구는 마침내 깔려 버린다. 오늘 이러한 초열지옥의 와중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기자신이 정말 그리웁게 된 것은 휴일이 없는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피서, 현하 등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늘은 꼭 무심 하지만은 않다. 왕복 24시간이라고 하면 1일이지만... 1일의 짬을 얻은 것은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모든 기억 모든 려행안내를 꺼내 주어진 단시간을



뜻있게 행사할 생각을 하였다. 동래(東萊)는 멀고 유성(儒城)은 너무 가깝다. 바다도 좋지만 바다는 멀고, 산은 1일쯤은 너무 피로하기 일수, 피로하여 능률이 떨어진다면 차라리 가지 안함 만 못하고 이리저리 생각 끝에 온양온천으로... 그렇다. 이름난 조선의 자랑거리인 온양온천으로 온양온천 동경의 땅, 지상의 낙원, 일본의 보충과 맘먹을 수 있는 유명한 1일의 행락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길 마음속으로, 미지의 향리를 밟을 전야, 첫사랑의 여인의 보드라운 피부의 촉감과 같은 떨림과 환희를 갖고 기다리게 됐다.

모월모일 기쁨에 차, 온양온천으로 향하는 그는 맞추질 숙명의 여인과 만남의 심경으로 안고 들끓는 도시의 소음을 깨끗이 뛰쳐나와 곧바로 온양으로 온양으로 달려갔다. 왜 이렇게까지 기쁜 것인가? 뭐 따져서 말할 것은 없고, 그저 기쁘기만 한 것이다. 오, 위대한 온양온천의 유혹! 오, 무서울 정도의 온양온천의 고희!

이것이 당일치기의 외로운 여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할 여유를 갖게 하지 않는 것에 온양온천의 부푼 정서의 침투에 놀란다. 차창에 흔들리며 송양하는 버들의 밑을 풀 뜯는 송아지의 등에 작열하는 따가운 햇볕이 반짝이고 다리 밑서 빨래하는 아낙네들도 멀리 편안한 꿈을 더듬는 것 같고 냇물이 머물러 흐르지 않는 곳 살갓이 검은 어린이들이 헤엄치고, 들판에 섰는 백의의 농부 머리 위 낮게 날으는 백로(白鷺)가 있고, 차츰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世上의 그림을 펼쳐 놓은 것 같은 것에 여름 중 제일 고통스러운 기차여행의 이 시간을 하등의 번민없이 시원함을 맛보며 유쾌하게 계속된 기쁨

조선의 한 여름

멀리 넓어지는 백제(百濟) 뜰의 하늘

천재화가가 그린 유구 한 화폭

푸른녘 없어도, 山 아름답다

계곡 안 보여도 시냇물에 백로 날고

전원을 건너는 솔솔바람 불면

백의의 농부 얼굴에는 안도의 빛 질고

오 진실



조선에 와 사는 몸은
 조선의 여름
 웅대한 대륙의 일각에
 나 자신의 행복에 젖어
 하얀 한줄기 길은
 골짜기에 지워져도 북쪽으로
 로서아에 가고
 파리에 달는다
 성장의 과정에 있어
 너! 조선의 위대한
 유유히 흐르는 뜬 구름의 풍부함이여
 염제의 맹위, 뜨겁게 달아오른 백일의 빛도 차차
 조선에 주어진 애무의 손길이라 생각된다.
 명칭히 선풍기의 소리에 모든 것을 잊고, 식당차에 앉아 반해버린 외경을
 노래했다. 아주 서투른 즉흥 시지만, 천안에 닿자마자 갈아타야 하는 몸이라
 는 것을 잊었었던 고마움이어.

경성(京城)에서부터라면 하루에 몇차례 직통열차가 있다고 들었지만 북행
 열차의 승객인 그는 조금은 번민하면서 열차, 자동차를 갈아타며, 일로 온양
 으로 온양으로, 여객을 흡수하기 위해 옛날의 번영은 보잘것 없이 된 천안
 (天安)을 되돌아보며, 경남철도(京南鐵道)에 그가 앉아있게 된 것은 수분후
 였다.

— 삼십분 경과 —

그가 온양온천에 도착한 것은 정오전 환상적인 남국의 풍광을 구할 길은
 없는 조선이지만, 웅대한 경치는 나그네를 매료하기 충분하다.

신흥의 의기에 불타오르는 온양온천 그래도 온천장에 흔히 있는 속가현
 가의 시끄러움이 없는 미소 구비쳐 흐르지 않는 산봉우리들은 차라리 잠자
 는 사자를 닮은 남성적인 모습을 충분히 보여준다.

쏟아져 나온 열차를 뒤로하고 역전에 한발작 딛은 인상을 어떻하든 여기
 에 집을 마련하여 상사의 그녀(물론 일본이 넓다하여도 누구하나 있을리 없



지만)와 사랑의 보금자리를 꾸미고 싶다하고 아주 평범한 그리고 지극히 대중적, 보편체심리의 흔한 희망이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온양온천을 선택한 것을 조금도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주(九州)의 별부(別府)의 산속에 속화하지 않는 무슨 온천을 그대로 옮겨 온 것 같은 것이 견딜수 없는 매력을 느낀다.

온양온천이 금일의 룡성을 가져온 것은 극히 최근에 속하지만 이전은 온양온천주식회사의 경영이었지만 작년 경남철도주식회사가 거금을 투자 이를 매수하자 전연경영방식을 개선 제일먼저 착수한 것이 이 신정관(神井館) 호텔이다.

시골에는 더구나 조선(朝鮮)의 시골에는 극히 드물게 보는 목조석면 스테트지붕의 당당한 건축은 조금은 뿌듯함을 느끼는 훌륭한 건축이다.

느낌이 좋은 것은 딱딱한 본관의 외부에는 어울리지 않는 내부의 공기다. 여관의 설비 같은 것은 잘 되었지만 묘하게 거북한 안정이 안 되는 여관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신정관의 내부공기는 부드럽고 때때로 들려오는 당구실의 당구 공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조용하다. 그렇다고 부탁을 받아 찬사나 늘어놓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의심이 나면 하여튼 한번은 가 보는 것이 좋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든가.....

아니 그밖에 무슨 좋은 표현이 있긴한데...

본관으로 기어들어 大휴게실에서 잠깐 쉬었다. 욕탕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서둔다.

온천! 온천! 온양온천!

징명무색의 뜨거운 물이 가득넘쳐 흐르는 대욕장 파랗게 빛나는 한여름의 욕장의 장관!

그는 어린이 같이 쾌재를 질렀다. 실로 풍부한 온수의 량. 자연풍경이 아무리 좋다하여도 온천은 우선 온천의 수량의 다과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온수량이 많고 주위의 경치가 좋으면 더할 나위 없지만 이곳 온양온천은 일절의 조건이 구비 되있는 것을 충심으로 기뻐한 그였다.



그는 원래 목욕을 좋아했다. 아침에 좋고 낮에 좋고 밤에 좋은 목욕연모 환자다.

거기다 그의 목욕시간은 길다. 그리고 그가 입욕중 절대 금지 하는 것은 시끄러움이다. 그래서 전탕(요금이 싼 욕탕)에는 부득이한 경우 외는 가지 않도록 하지만 그것도 혼잡한 때는 피한다.

10일이고 20일이고 시끄러우면 입욕을 앓는 그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한테 입욕도피 병자로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그를 잘 모르는 소리다.

그래서 아침 일찍 정숙한 기분에 적합하면 그의 본심은 불현듯 그를 일으켜 세우게 하였다. 그런 그가 한일 각지의 온천장을 편력하여 이렇다 할 온천장보다 온양온천신정관대욕장에 더구나 그와 동행한 K라는 두 사람에 안성맞춤의 욕장이다.

몽게몽게 떠오르는 김 속에서 남자 두 사람의 긴 잡담. 신정관본관의 정원에는 울창한 대괴목이 세 그루 있다.

푸른 수업을 비추는 햇살을 반사시켜서 목욕후 나무 밑에서 더위를 피하는 사람들을 감싸듯 그림자는 넓게 땅을 차지한다.

그는 나무 밑에서 옆을 보니 붉은 기둥에 꿈을 싣고 가운데 쫓긋 돌출해 있는 작은 석비에 호기심의 눈동자를 돌렸다. 바로 이것이다.

신정관이란 이름을 붙이게 한 바로 그 「신정비(神井碑)」로 온양온천의 수호신에 버금가는 비(碑)라고 들었기에 재미있다.

온천장의 유래는 이태조(李太祖) 이전부터 이름이 있고 세조 현종등(世祖顯宗等)의 모든 왕이 그 유명한 조선팔경으로 유명한 충청북도 보은군(忠淸北道 報恩郡)에 있는 속리산(俗離山)에 행차하고 귀로에 꼭 어가를 돌려 입욕하셨다는 고사가 있다.

가깝게는 대원군도 이곳을 아껴 욕실을 설치 때때로 행유를 즐겼다 함. 그 외 왕후비빈에 걸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찬란한 역사에 충만해 있는 온천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근에는 지금도 혜파정(惠波亭), 함락당(涵樂堂), 영괴대(靈槐台) 등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신정관도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 비문에는 「천순팔년이월이조세조대왕남유(天順八年二月李朝世祖大王



南遊)에 즈음하여 역을 온천군온양(溫泉郡溫陽)에 두고 계시게 된 4일 신천(神泉) 갑자기 솟아 마당에 범람하다.

대왕이 이를 보고 기이하게 여겨 명하여 이를 파게 하자 솟아오르는 물은 그 차기는 눈과 같고 그 맑기는 거울과 같고 탕은 뜨겁고 泉은 차갑기에 천안희열에 참. 팔도에 표하여 축하함」

신비의 사실에 비추어 경남철도회사의 경영에 이루어 굴착중 냉온 두 물 줄기가 수척을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용출하여 그 신비의 사실을 확실히 증명한 것이다.

얼마후 그는 신정관내부를 자세히 구경하게 되었다. 세심한 마음씨가 쓰인 전용대실이 수십개, 산뜻한 전용가족탕, 선미를 다한 대휴게실은 무료로 하루의 청유자에게 개방해왔지만 너무나 깨끗하다.

물론 무료로서는 오락으로는 당구장도 있다. 바둑, 장기, 아동실에는 어린이 장난감이 많으니 싫증나기 쉬운 아이들은 더 좋을 수가 없다. 주막도 있고 이발실도 있다.

조용한 여관, 한방에는 온수 두 개의 세면화장실이 있고 여름에는 등나무 의자에 기대 가스가야마의 납량도 좋다. 동계에는 스팀 설비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객실에 보내지는 사실, 일본 안에는 이런 설비가 구비된 것은 한 일을 통해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온양온천 신정관 뿐일지도 모른다. 온천토산물의 매점에는 특유한 명물이 즐비하게 진열 돼있다. 물건을 파는 아가씨도 지극히 애교가 만점인 미인이니, 회사도 그 정책이 매우 좋다. 내식당의 신선한 야채요리에 이루어서는 실로 천하일품, 이 온천 온실에서 재배하는 속성야채는 계절을 망각한 진미를 상에 올려 먼 곳에서 온 손님들을 얼떨떨하게 한다. 아주 상상도 못할 야채가 미각을 도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특필한다. 그렇다고 어류가 없는 것도 아니다. 어류, 육류, 모든 것이 신선함이 각 도시의 시장에 있는 모든 것의 바로 그것이다. 피라미에 이르러서는 뭐래도 신정관 육객에게만 주는 진미중의 진미라는 것을 단언한다. 간이식당에서는 일품요리가, 타 도시에 비교해서 반값에 가까운 염가로 제공된다. 그럼 정식은? 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일품요리를 추천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은 아니다. 하영든 한 번 가보시라! 예쁘고 해맑



은 미소가 넘치는 얼굴이 애교로 아무 불편없게 접대해 줄 것을 보장하니……, 그는 설비가 완벽한 여관부와 너무 잘 돼 있어. 객실부실을 메꾸기 위해 목하 착착 증축하며 원래의 나그네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부심하고 있는 會社의 설비의 완비에 감탄하고 냉온양탕의 맑고 깨끗한 욕실을 기뻐하고 신정관호텔 부속의 쾌적한 승용차에 몸을 싣고 부속유원지인 서남 약 10리 밖에 있는 변천지 혹은 홍공제라 칭하고 수중루각이 존재하는 대저수지를 기웃거렸다. 광망한 파도에 대해안을 보는 것 같다. 그 안에 유선이 있고, 보트가 있고, 모타보트의 질주가 있다. 수중자전차에 흥을 돋구는 것도 좋다. 피로를 풀 수 있는 수중루각의 대건축물은 물 가운데 있어서 더욱 이채롭다. 빌린 망원경을 들고, 저 일청전쟁으로 유명한 아산을 멀리 중첩한 산악의 배후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다. 백로를 카메라에 담아도 좋다. 탕을 사랑한 입욕자에게 이 물 이어주고 실은 그 온양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벌써 온양이란 곳에 매혹되었는지 모른다.

창망한 大自然의 황혼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온천에 민요라도 하나 없는 것과 드물게 보는 가품으로 저수지의 물이 날로 줄어가는 것이다.

- 귀로(歸路) -

길가에 심어져 있는 어린 벚꽃 나무 길은, 그 사이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자동차의 감흥 또한 좋다. 산향의 정숙을 아주 빠져 천안 광천 간의 국도를 따라 귀로에 들어서니 온양의 거리에는 벌써 저녁 불이 켜져 있다. 어둠이 다가오는 온양 거리의 정서 피부에 숨어드는 온천의 내음이 달콤하게 닿는다. 감상마저 살며시 느끼게 하는 창 밖에 불빛 속에 온천을 즐기는 남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주어진 하루의 행락을 온양온천으로 잡은 것을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로 웃음마저 머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짬만 나면 온양으로 가자. 틈 있는 인사면 온양으로 권유하자고 몰래 계획한 것을 고백한다.



왜냐면 그는, 주중 한 번은 꼭 경남철도 열차에 두 세 명의 친구와 즐겁게 타고 있었으니까 조금 섭섭히 여기게 된 것은 시간이 맞지 않아 일청전쟁의 유적지 구아산 백석포의 한적한 농촌과 봉곡사의 경치를 보지 못한 것. 온양 찾는 사람이면 꼭 관상 할만한 곳이라고 생각된다.

31. 관광(漫遊)을 중심으로 한 온양온천 부근 (거리숫자는 온천리를 중심으로 한 추정거리)

(1) 영괴대(靈槐台)

경남철도 직영의 신정관호텔의 정문에 들어서면 그 좌측에 몇 그루의 늙은 느티나무가 울창하여 옛 모습을 남기고 있는 것이 있다. 그 수하에 고색창연한 비가 있는데 이를 영괴대라 부른다. 비는 지금으로부터 170년전 이조영조왕 36년 8월 당시왕세자장조왕 온궁(李朝英祖王 36年 8月 當時王世子莊祖王 溫宮)에 행차하시어 궁의 북쪽에서 어친사의 의식을 행하여 홍봉신(洪奉臣)에 명하여 느티나무 세 그루를 심어 사약지를 표해놓게 하였다.

그 후 35년을 거쳐 정조29년 봄에 이르러 괴대가 몹시 허물어지자 그 때 본군군수 변위진(本郡郡守 卞偉鎭)이 그 취지를 궁에게 계문하였다. 여기에 이르러 정조(正祖)는 즉시군수에 하명하여 대를 수축하여 석비를 태전에 건립시켜 대에 어친명 하셨다.

어찌 영괴대명(御製靈槐台銘)

지나간 발자취를 우두커니 바라보니,
온천수(溫泉水) 물가에
울창(鬱蒼)하게 무성(茂盛)하여
제왕(帝王)의 일산(日傘)과 같은



세 그루 회나무(槐山)가 서 있는데,
 칼칼 솟는 온탕(溫湯)의 물이
 신령(神靈)한 뿌리에 물을 대 주어,
 두어 자(尺) 높이의 축대(築臺) 둘레를
 에워싸고 있네.
 나 홀로 조용히
 천지(天地) 신령(神靈)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품종(品種)을 사랑하고 있노라니,
 그 위에 아름다운 오색(五色) 구름이 덮여 있네.
 점(占)치건대,
 뿌리와 줄기가 백세(百世)에 전하여,
 장차(將次)
 후세(後世) 사람에게 적덕(積德)의 여경(餘慶)이
 유전(流轉)됨을 경험(經驗)하리라.
 소자(小子 : 正祖)가 즉위(卽位)한 지 20년 되는
 을묘년(乙卯年 : 1795) 가을 9월,
 소자(小子)의 생일(生日) 3일 전(前)에
 두 손 모아 절하고,
 공경(恭敬)하여 명(銘)하나이다.

옛날, 경진년(庚辰年 : 英祖 36년 : 1760) 8월에(思悼世子께서) 온궁(溫宮)에 행행(行幸)하시고, 온양 군수(溫陽郡守) 윤염(尹琰)에게 명(命)하사, 활터(射臺)에 회나무(槐木) 세 그루를 심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아름이나 되고, 아름다운 그들이 땅에 드리웠나이다. 초봄에 비로소 온양 군수(溫陽郡守)에게 들으니, 활터를 증축(增築)하고, 그 유적(遺蹟)을 표지(標識)했다 하기에, 윤염(尹琰)의 아들 윤행임(尹行恁)이 지금 규장각(奎章閣) 각신(閣臣)이 되었으므로, 그로 하여금 비석(碑石) 후면(後面)의 글씨를 쓰도록 하였나이다. 通政大夫 예조참의 규장각 검교 지제교 신 윤행임 봉교 근서



(2) 육군요양소(陸軍療養所)

20사단부속요양소에 욕탕은 경남철도가 특히 공들여 설비한 것이라 훌륭하다. 나라를 위해 봉사하다. 부상한 장병에게는 돌도 없는 요양소다.

(3) 야구장 및 정구장

모두가 경남회사의 경영하는 것으로 매일 공을 날리는 뱃팅소리와 공이 라켓에 맞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린다. 스포츠맨에게는 목욕후의 운동에는 절호의 설비다.

(4) 변천지(辨天池 : 西南約 1哩로)

온양면 방축리에 있는 온양수리조합 저수지로서 전아산군수 홍석송(洪祿崇)氏가 수리조합설립초에 공이 있어 홍공제(洪公提)라 이름 붙이었다. 대저수지지만 목하경남철도주식회사에 의해 설비완성 춘백화만개의 계절, 여름의 량풍을 그리는 석양, 가을 단풍의 철, 겨울 스케이트장으로 좋고 면적 100정 여 수중에 60평의 누각이 있어 변천지라 이름 붙여 온천유람객 목욕자등 사시 여기에 노니는 사람 많다.

(5) 과수원

일고씨(日高氏) 개인 경영으로 매년 사과, 배 등 기타 수확고는 별표와 같고 경남연선중 드물게 보는 온양 토산물임.

(6) 효자암(1명 정신비(鄭信碑)라고도 함. 2km)

온천리로부터 온양에 이르는 길가를 더듬으면 고개의 오름길 우측 암석에 다음과 같이 조각해 놓은 것이 보인다.



천 감 기 성(天 感 其 誠) 벽 암 사 은(劈 岩 賜 銀)

이게 효자암으로서, 이 전설은 믿기 어렵지만 지방민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옛날 가난하기 짝이 없는 한 가족이 이 부근에 정신(鄭信)과 그 어머니 단들이 살고 있었다. 늙은 어머니를 보양하기 위해 그 아들은 날마다 농가의 품팔이로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으로 샅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굶기를 밥 먹듯 하였다. 모자는 서로 끌어안고 죽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때 개 한 마리가 마당에 와 똥을 누었다. 그것을 본 아들은 그것이 깨끗한 보리쌀임을 알자 크게 기뻐하여 바로 주어 몇 번이나 닦아서 밥을 지어 어머니께 드리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정신은 어느 농가에 품팔이를 나가 논을 매고 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번개와 함께 심한 천둥을 친다. 정신은 평온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지금도 벽지의 조선인간에 굳게 믿어지는 것 같이 천둥번개는 그 안에 한 사람의 불의부정한 행동을 하여 하늘이 이를 벌주려고 치는 것이라 한다. 이 안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하늘이 노했다. 스스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이 안에서 나가라고 떠들어댔다.

그 아들 전날의 행동을 깊이 부끄럽게 생각하여 보리쌀이라 하지만 부정한 것을 어머니께 드렸으니 하늘이 노하였다고 생각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와 바위 끝까지 왔을 때, 번쩍하는 번개와 파란 벼락이 바위를 쳤다. 그 아들은 조금도 다친데 없고, 지금 벼락을 맞은 곳을 보니 바위는 부서졌고 가운데에 은솔이 있었다. 아들은 크게 기뻐하며, 내 효심이 하늘에 통하였다고 믿고 근처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도 놀래, 정신의 효성에 대한 칭송이 대단했고, 읍내 말을 전해서 그 후일에 이르기까지 바로 남게 되었다.

(7) 송림(2km) (충남모범림)

흑송 울창하여 수령이 몇 年 안되지만 충남(忠南) 모범 림으로서 타에 자랑한 무상의 것이다. 총 면적 10정 3단여.



(8) 온양읍내(3km)

원 온양군청(溫陽郡廳)의 소재로서 온양천 서안에 위치. 아직도 이조시대의 건조된 건축물 존재함. 현 온양 보통학교(現 溫陽 普通學校) 교사도 그 일부로 온양면사무소 표문(溫陽面事務所 表門)도 같다. 군합병후 온천리에 제관서(諸官署)의 이전을 보고 왕년의 번영을 볼 길은 없지만 호수 약 400, 인구 약 2,000, 상업의 중추지로 우수한 시장으로서 선전됨.

(9) 설화산(雪華山 : 4km 糶半)

온양읍내 리의 북방에 있는 높은 산으로서 남방오령으로 갈라져 중복에 오봉암이 있고 (일명 남방에 면하고 있기에 남산사라고도 부른다.) 절 안에 이조초에 있어 세력을 천한 김자점(金自點)의 묘적이 있고 경남철도 회사의 부속유람지로서 온양면 좌부리로부터 등산하면 산은 발끝으로 올라가게 되어 노유부녀도 용이하게 등산 할 수 있고 산정의 전망은 시계가 넓어 남산의 풍물이 지척에 있어 온천의 목욕객이 하루의 청유로서는 이상적 선향임.

(10) 복부성(伏釜城 : 五糶)

지금으로부터 1,000년 이전 고려태조 왕건의 즉위 전 혼란의 과중에 방황하고 있을 때 전라북도 전주에 성곽을 만들어 논 후 백제왕 견훤왕(百濟王 甄萱王)의 세력을 알볼 수 없어 이에 대비하고자 왕건(王建)은 부장 유검필(部將 庾黔弼)로 하여금 배방산정(排芳山頂)에 축성케 하여 후에 백제침공(百濟侵攻)에 대비시켰다고 전해져 있음. 현재성지는 완연하게 판명되어 있고 경남철도를 빌려 천안으로부터 서쪽으로 온양온천을 향하는 도중 모산역(毛山驛) 부근에서 좌쪽에 보이는 산이 이것이다. 현재 온양 공립 보통학교 유림으로, 그 관리하에 있음.

(11) 오행대 (5糶半)

배방면(排方面) 중리(中里)에 있고 이조시대의 총리대신 맹사성(孟思誠)의



출생지로서 맹씨(孟氏)는 치덕이 크게 흡화하여 민중 이를 고불상공이라 칭하고 500년 후의 今日에 이르러 맹고불(孟古佛)이라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옛 집은 의연히 흔적을 남기고 자손들이 이 고장에서 번성하고 있음.

(12) 관선제(송악면 강당리에 있음)

온양으로부터 자동차로 7km, 송악면 역촌리(松岳面 驛村里 : 역촌이라 함은 고대의 역전의 주요지로서의 읍이다)부터 갈라져 흐르는 물을 따라 광덕산을 바라보며 계곡을 거슬러 2km 쯤 가면 계곡은 더욱 깊고 물은 더욱 맑아 급류에 침식되어 깊은 웅덩이가 이루어졌다. 이를 양화담이지만 급류의 침식으로 기암괴석이 되어 양안 송가거 등 울창하여 하늘을 덮고 그 화강암 가운데 5, 6인이 앉을 수 있는 넓은 바위가 있어 여기에 앉아 바위에 부딪혀 눈보라 같이 부서지는 맑은 물을 떠 천하의 시원함을 나 혼자 맛보는 듯한 절경 속의 피서지임. 여기에서 십수보 상류로 올라가면 수거 울창한 속에 한 동의 낡은 건물이 표연하게 서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년 전의 옛적 외암 이간(巍岩 李柬)과 천서 윤혼(泉西 尹焜)이 수학한 곳이다. 옛 사람은 속진을 떠나 깊은 골짜기 물 맑은 영경을 구해 대자연의 품속에서 탁마연찬(琢磨研鑽)의 공을 쌓다고 전해오는 것이라는 것은 긍정이 간다. 후에 이 건물 뒤에 서원을 건조하여 외암 선생을 제지내고 청년자제 강학의 장소였다.

지금부터 60여 년 전 대원군의 위동서원은 철훼령에 의해 철훼되어 현재는 관선재만이 남아 이 근방 경승은 그리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산자수용유아(幽雅)함은 고히 온양군마계(溫陽郡馬溪)로서 혹은 온양금강(溫陽金剛)이라 하여도 거짓은 아닌 절경임. 특히 봄에서 여름에 이르는 만앵 가을 넝쿨 단풍은 판 곳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13) 사기소(砂器所 : 11km)

송악면 유곡리(松岳面 楡谷里)에 있고 고려소의 가마가 있었던 곳이라 동리 사람들에게 전하여 옛 가마의 터전으로 그릇 조각이 땅속에서 많이 나온다.



(14) 봉곡사(鳳谷寺 : 14km)

송악면 유곡리(松岳面 楡谷里)에 있고 창립년대는 미상이지만 삼한고찰이라 불리우며 석암만 있던 것을 이조 숙종(지금으로부터 250여 년전) 대수선과 동시 봉곡사라고 개명된 것이 분명하다. 사위풍수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계절이 되면 풍풍 노리에 많은 사람이 모여든다.

(15) 연암산(燕岩山)

일명 봉화대라고도 하며 음봉면 동암리(陰峯面 東岩里)에 있다. 급한 일을 보고할 때 산정에 봉화를 올리고 또 타곳에서 올린 봉화를 다음 봉화대에 신호를 보내는 구시대의 유일한 경비통신 시설이다.

(16) 학성산(鶴城山)

온천리로부터 서쪽 일리유반(기차로 12분거리) 신창역으로부터 남방 30정전 신창군 관아의 소재지로서 신창면 읍내리에 있음. 산의 표고는 겨우 181.8m에 지나지 않지만 울창한 미림산령(美林山嶺)의 전망 옛 성벽의 현재 상태 등을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온다.

동쪽 일면(一面)은 울창한 송수림으로 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늙은 거목이 중간에 있는 읍내리를 거쳐 동쪽의 철마산과 마주보는 드물게 보는 넓은 밀림으로 신창공립보통학교의 실습림에 속한다.

사시사철 그 경치가 아름답지만 특히 늦가을 서리에 물들은 상수리나무의 칙냉쿨에 이슬 맺는 풍경, 산전부가 붉게 물드는 철마산의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아침 햇살은 그 절경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산꼭대기의 성벽 축성년대는 알길 없지만 주위4정 높이 수척의 돌로 쌓여있음.

옛 기록에 의하면 우물이 있다고 하지만 판명할 수 없고 중앙에 작은 사당이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산이 높지 않아 등산하기 쉽고 산 정상 성벽에 서면 시야는 멀리 이웃고을 당진과 예산 양 군의 평야를 전망할 수가 있고 멀리 아산만의 고기잡이 배의 돛이 가물가물 보인다.



동쪽 미림(美林)에 따라 향교. 신창농업실습학교, 신창보통학교가 있고 북쪽 기슭에 인취사가 있다. 현재 신정관 정원에 있는 5중탑은 남쪽 기슭 옛 절의 유물임. 소화3년(1928년)

금상폐하어대예봉축기념(今上陛下御大禮奉祝紀念)으로 이식한 학교림 중의 송이버섯은 다행히 지질이 맞아 성공할 시는 학성산의 명물이 하나 더 붙게 될 것이다.

(17) 신창 공립농업보습학교(新昌 公立農業補習學校)

1928년 고 지상정무총감(昭和3年 故 池上政務總監) 및 학무국장 이진호각하(學務局長 李軫鎬閣下). 동4년에는 산리총독각하(山梨總督閣下)의 어순시를 수행한 이국장으로부터 특히 장려금 일봉 산리 총독으로부터 액자를 하사 받고 기념 식수의 광영을 입은 본교는 학성산 기슭에 있다. 소화2년(1927년) 6월 1일에 창립되어 아직 일천하지만 수학년한은 2개년, 격년모집 일학 급편성으로서 생도 겨우 15.6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이지만 다음 시설 경영에 의해 세상의 주의 끈다.

가) 교육방침

찌든 듯한 가난에서도 분연히 일어설 줄 모르고 타에 의지하려들며 근로를 천시하고 봉급생활을 꿈꾸고 있는 현실 속에서 추호도 봉급생활 따위는 희망하지 않고 스스로 팽이를 들고 모범이 되는 중견청년으로서, 쇠퇴한 농촌을 구제하고자 하는 지조가 굳은 자만을 수용하며 수의 많음을 원하지 않는다.

나) 학교실습

훈련도야를 주로 하고 실습은 보습학교의 생명으로 여기고 있지만 극도로 근로를 천시하고 실습을 싫어하는 폐습을 갑자기 탈피 할 수 없기에 당분간은 가정실습으로 그 목적을 달성시키고자함은 아주 곤란한 과도기에 있어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없이, 학교 실습을 택한다.



다) 통년제

학교실습으로서 실습의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관건으로 통년제를 택함.

라) 기숙사제

풍우청담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한 날씨에 순응하여 이를 이용, 그 피해를 피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농업은 성공하는 것이다. 햇볕, 우중, 일모, 야밤이라 할지라도 응변의 작업을 게을리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듯이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학교실습으로 실습의 목적을 달성코자 함으로서, 전생도를 기숙사에 수용 실제적 농업생활을 시키므로 규율 있는 농업훈련과 면학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량한 습성을 기르코자 함.

마) 자로자치

기숙사의 부식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실습지 수익에 도움 받으며 충당한다. 이는 졸업 후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책임을 질 청년은 우선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고 타의 의뢰함이 없이 살아나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바) 실습지 및 실습

생도 1인당 1단보를 목표로 함. 이는 졸업 후 농군이 되어도 충분히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심신의 단련과 기숙사 생활비를 자급자족하는데 적당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비의 관계상 아직 미흡하여, 현재 밭 2정2반보, 논 사반보(논은 전부 소작) 즉 생도 1인당 1반7묘를 경영함. 그리고 양잠, 양우, 양돈, 양계가 있다.

사) 학과와 실습

청경우독, 농번기는 실습을 주로 농한기에는 학과를 주로 하며 조석 수시로 작업에 임한다.



아) 특수연구

모내기전 마령서 재배 2기작 마령서 재배. 공업원료로서 자리재배 아올리 싸리세공등은 본교의 특수연구에 속하며 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많다.

(18) 이순신의 묘(李舜臣의 墓 : 8km)

온천리에서 북쪽을 따라 아산 가도를 1리쯤 달리다 좌우로 갈라지는 분기점에 이른다. 좌는 아산으로 가는 길이고 김옥균의 묘와 명치 27~28年 전쟁으로 유명한 청국병의 상륙지 백석포 방면이다. 이순신의 묘를 찾는 사람은 우측 길을 다시 1리 가량 가지 않으면 안된다. 길은 넓지 않으나 구릉의 기슭을 구불구불 돌아가게 되어 봄, 가을의 경치가 좋다. 물이 마른 개울의 경치가 좋다. 물이 마른 개울이 두서넛 있지만, 자동차로는 그대로 드라이브가 된다. 산에 닿는 곳에 새로운 학교가 1동 보인다. 이곳이 삼거리로 묘는 뒷산에 있다. 학교로부터 묘까지는 2.3정이지만, 길같은 길은 없고 겨우 갈 수 있는 이름뿐인 소로이다. 도중에 비석이 2개 있고 길이 겨우 닿는 곳에 광장이 있으며 그 안쪽에 이끼 낀 돌로 싸인 속에 잔디에 덮인 묘가 있다. 이것이 문녹 역(임진왜란)의 용장 이순신의 묘이다. 묘의 곁에는 상충정무지비가 영웅의 공을 자랑하듯 의연하게 솟아있다. 비면에는

살았을 제는 수레와 옷을 주어 영화롭게 하고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며 음악에 올리고, 죽은 뒤에는 다섯 술의 용승한 제물로 제사를 올리며 대대로 녹을 내려 봉양하게 하고, 공로를 기폭에 새겨 그 밝은 빛과 아름다운 절개로 하여금 천지에 빛나고 산천에 짝하게 함으로써 호국하는 직책을 맡게 하여 백성에게 좋은 복을 입혀주도록 함은 옛적 임금들의 공신을 표창하던 바이더니 주나라 이후로는 그 법이 점점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비를 세워 비명을 새기는 것은 실상 기폭에 써서 전하던 옛 뜻이 오히려 남은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것은 임금이 비문을 짓는 것이다. 왕조의 빛머리에는 「지극한 덕이 있는 원로」라 썼고 서달의 빛머리에는 「충성스런 뜻에 티한점 없는 이」라 썼거니와 이런 특전을 받는 분이야千年 동안에 몇이나 되



라. 어허 우리나라 충무공 이순신 같은 이는 그 공훈이 비문 짓는 법에 맞는 인물이라 내가 비문을 짓는대로 오히려 또한 부끄러울 것이 없으리라.

충무공의 자는 여해요. 대대로 덕수 사람이며 일찍 그 어머니 변씨의 꿈에 시아버지 말씀이 「아기가 나면 반드시 귀하게 될 것이니 이름은 순신이라 부르라.」 하더니 아버지 정이 그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겨 점을 쳐보매 「길하다. 나이 50이 되면 응당 칼을 짚고 명장이 되리라.」 하는 것이었다. 충무는 이런 이상한 징조를 좇아지고 태어나더니 과연 어려서부터 범상치 않았으며 또한 큰 뜻을 품었더니 자라나 활 쏘는 제주도 남보다 뛰어났고 만력병자 무과 시험에 급제하여 첫 벼슬로 변방에 나가 여러 번 공을 세우매 모든 사람들이 대장 재목이라고 칭송하였다.

문충공 유성룡이 애써 조정에 천거하여 특별히 뽑아 전라좌도수군절도사를 삼자, 때는 또한 왜인들이 우리나라를 치겠다고 떠들어 혼란이 생긴 적이라, 충무는 못내 걱정하며 주야로 군사를 훈련하고 병기를 다듬으며 접전하고 수비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위에 특별히 배를 창제했는데 그 모양이 엷드린 거북형상이라 이름을 거북선이라 하니 해전에 익은 이들은 그것을 옛날 「몽충배」에 비기는 것이었다. 임진년에 왜적들이 크게 쳐들어와 부산 동래를 함락하고 또 여러 길로 나누어 서쪽으로 올라가는지라 충무는 곧 군사를 이끌고 옥포로 달려나가 적선 20여척을 쳐서 불지르고 경상수군절도사 원균과 노량에서 만나 적을 협공하여 사천에 이르러선 10여 척을 불태우고 당포로 나가서는 적선 20여 척을 만나 괴수를 죽이고 졸도들을 무찌른 다음 전라우도수군절도사 이억기와 함께 당항포에서 군사를 합하여 적의 괴수가 탄 3층 배를 깨뜨리고 한산도까지 피어내어 또다시 크고 작은 배 70여 척을 무찔렀으며 패군을 쫓아 안골포에 이르러 또다시 40여 척을 불질러 깨뜨리자 소문이 크게 떨쳐 적이 무서워 떨었으며 그 승첩의 보고로 계급을 높여 정헌에 이르렀다.

그 다음 계사년에 조정에서 처음으로 삼도수군통제사의 제도를 창설하고 본직을 가진 채 겸임하게 하였으며 진을 한산도로 옮기었다. 이 때 원균(元均)은 절제 받는 것을 부끄러이 여겨 자주 헛소문을 돌리고 대간을 피어 마침내 충무는 적을 치지 않고 머뭇거렸다는 죄목으로 옥에 갇히고 균이 그를



대신하더니 두어 달 만에 우리 군사는 패하고 원군은 달아나다 죽었으므로 조정에선 다시 충무로써 통제사를 삼았었다. 충무는 수십 명의 부하와 함께 말을 타고 순천부로 달려가 병선 10여 척을 얻고 여러 군데서 흩어진 군사들을 거두어 난도에서 적을 깨뜨리고 또 벽파정 아래서 적을 맞아 30여 척을 무찌르는 위에 적장 마다시(馬多時)를 목 베자 적들은 견디지 못하고 전군이 도망하고 말았다.

무술년에는 명나라 장수 진린(陳璘)이 광동군사를 유정(劉綎)이 사천군사를, 또 등자룡(鄧子龍)이 절강직예(浙江直隸) 군사를 각각 이끌고 연달아 왔었는데 충무는 고금도로 나가 진린(陳璘)과 함께 진을 합쳤다.

이때 진린은 진심으로 그 재주와 책략과 기량과 능간에 굴복하여 모든 군중 기밀을 처결함에 묻지 않는 일이 없었고 또 우리 선조대왕께 아뢰되 「이순신은 천지를 주무르는 재주와 나라를 바로 잡는 공이 있는 분이라」하고 또 저희나라 현황제(顯皇帝)에게도 자세히 아뢰어 충무에게 도독인을 내려주게 하였다. 그러자 이미 풍신수길(豐臣秀吉)이 죽고 소서행장(小西行長)이 철병하고자 하여 곤양(昆陽)과 사천 등지에 진치고 있던 저희 군사들과 약속하고 날을 정하여 노량으로 나오는데 충무는 명나라 장수와 함께 해군을 정돈하고 서로 협력하여 섬멸할 것을 의논한 뒤 그대로 배 위에서 축원하되 「오늘이야말로 사생을 결단하는 날이오니 하늘이여 내게 이 적을 무찌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하고 빌기를 마치자 장수별이 떨어지므로 모든 군중이 불길하게 여기더니 새벽녘에 적을 맞아 결전하여 200여 척을 무찌르고 다시 추격하여 놓지 않고 따라가 남해에 이르렀을 때 적이 명나라 군사를 여러 겹으로 에워싸는지라, 충무는 친히 화살과 포탄을 무릅쓰고 마구 포위 속을 뚫고 들어가 싸움이 한창 어울렸을 때 지나가는 탄환에 맞아 돌아다니 그가 을사생이라 나이 54세이었다. 이듬해에 아들 회(齧)등이 아산으로 모셔가 장사하고 갑진년(6년 뒤)에 훈공을 정하여 호를 내리고 증직은 의정부좌의정덕풍부원군이요 시호는 충무이었다. 그리고 싸움하던 터에 사당을 세워 지금껏 끊지 않고 제사를 받들지마는 어찌 이것으로 그 공훈을 표창하매 족할까보라.

슬프다. 우리나라에 인재가 많이 나기로는 목육(穆陸) 시대를 제일이라 하



며 또 명나라 황제의 명령을 받아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러 왔던 장수들도 모두 다 한 때의 영웅이로되 적이 쳐들어와 고기와 새우가 뛰고 바닷물이 뒤집히는 때를 당해서는 그저 백리나 물러나서 나갈까 말까 하는 두 가지 생각은 안 품는 이가 없었는데 8년 동안에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수비하면 반드시 보전하여 나라 운명이 공의 동작을 따라 강해졌다 약해졌다고 하고 적의 칼부리는 그 때문에 꺾어져서 마침내 여러 곳에 소굴을 짓고 날뛰던 간교한 놈들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느라고 덤벼들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 장하신 선조께서 나라를 다시 일으킨 세우심에 기초가 된 것은 오직 충무 한분의 힘 바로 그것에 의함이라 이제 충무공에게 특별히 비명을 짓지 아니하고 그래 누구 비명을 쓴다하랴.

또한 듣건대 옛날 시경(時經)의 증민편(蒸民篇)은 번후(樊侯)의 업적을 쓴 것인데 선왕의 덕이 거기에 있다 하거니와 과연 신화된 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대로 곧 그 임금이 밝다는 것이다. 무릇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맡은 일을 다함으로써 공을 세우고 또 그 공으로써 임금의 덕을 길이 기록하여 받드는 것이 옛 사람의 법도여니와 지금의 비명에 옛날 時의 뜻이 있음이니 내 어찌 비명을 짓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이에 의정부영의정을 증직하고 그 시호를 따라 빗머리에 전자를 쓰되 「충성을 높이고 무용을 표창하는 비」라 하고 다시 서문을 쓰고 노래를 지어 역사 말은 이에게 알리노니 노래하되

옛날 사훈씨(司勳氏)의 공로 표창하는 법을 상고하건대
훈(勳), 공(功), 다(多), 당(唐), 노(勞), 역(力)으로 나누거니
충무 같은 이야

어느 누가 전쟁과 임금과 나라에 공로 있다 아니하랴
첫 번 싸워 한산이 평정되고 두 번 싸워 碧波가 편안하고
세 번 싸워 노랑에 왜적이 없어지니
이것이 「다」 아니고 무엇이며

말 잘하는 선비도 혀만 놀리고 무서운 장수도 목을 움츠릴 제
천자의 명령을 받든 자는 오직 동국의 외로운 군사만이었으니



이 또한 「훈」이 아닐까보냐.
 임금의 수레는 서울로 돌아오고 모든 백성들 제 자리를 잡아
 우리 억만 년 동국을 다시 회복했거니
 이것이 또한 「공」이 아니라.
 어허! 까마귀 머리의 정려 거리에 있고
 제사지낼 짐승을 매는 돌은 무덤에 있거니
 마침내 빗머리에 전자를 새기는 은총까지 받는도다.
 강물에 씻은 듯 깨끗한 영이로다.
 해와 달이여 그 빛을 같이 할지로다.

명나라 송정기원(崇禎紀元) 후에 세 번째 되는 갑인년(정조대왕 18년 1794) 10월 초4일에 세우다.

비를 앞에 하고 잔디 위에 앉아 300년 전의 당시를 추억하는 것도 재미있다. 비문에도 있지만 주요한 것을 몇 들쳐보자.

■ 성장과정

충무공 이순신은 인종원년 천문 40년(仁宗元年 天文 40年) 을사(乙巳) 3월 8일 한양 건천동(漢陽 乾川洞)의 집에서 탄생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과 전쟁놀이를 할 때에도 언제나 장수로 추대됐다. 처음에는 백중 두형을 따라 유업을 받았지만 가슴속에 품은 뜻 있어 붓을 던지고 후 북변의 수비에 공을 나타내 그때의 대신 유성룡(大臣 柳成龍)에게 발탁되어 전라좌도수사(全羅左道水使)를 맡게 됐다. 순신의 활약시대는 차차 다가왔다.

가) 거제도(巨濟島)의 해전

九鬼義隆 脇坂安培(구기요시다끼와끼사까야스베) 加藤嘉明 藤堂高虎(가도누요시아끼도도누다까도라) 등은 부산 근해에 있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경상우수사 원균(慶尙右水使 元均)은 수백의 병선을 이끌고 거제도에 진을 치고 일전을 기다렸다. 3월 3일 고희는 병선 500척을 거제도 부근에 진



군시켰다. 원군의 병선과 충돌 싸움의 막을 열렸다. 원군은 백여척을 갖고 응전하였지만 수십척의 병선과 700여명의 부하를 잃고 거제도 본진으로 도망쳐 버렸다. 도망치는 적을 쫓아 본진으로 돌진한 가명은 원군의 군선에 포위되어 고전상태에 빠졌다. 원군의 도착으로 겨우 구출되었다. 격전 수시 각 바닷물은 피로 붉게 물들었다. 원군은 다시 패하여 將李英男을 보내 이순신에게 구원을 청했지만, 순신은 「각자 분계가 있어 조정의 명이 없이는 한계선을 나갈 수 없음」이라고 거절했다.

그러나 사신은 5, 6번 받고서야 드디어 일어섰다. 순신은 그 독특한 거북선을 갖고 용전본투 원군의 패전을 단번에 되찾으려 했다. 싸움은 차츰 격렬해져 양군의 전사자 셀 수 없고 일본군선도 다수 불타버렸지만 순신도 어깨에 총탄을 맞고 싸움에 지쳤다. 양군은 서로 물러서 전운도 가라앉았지만 이 일전으로 순신의 용맹은 혁혁히 빛나게 되었다.

나) 장문포(長門浦)

경장이년 재차의 출병에 있어 소서행장(小西行長)은 부산에 온 후 통변 요시라(要時羅) 사신으로 경상우병사 김응서(慶尙右兵使 金應瑞)를 만나게 하여 말하기를 「대장소서행장(大將小西行長)은 말한다. 금번의 화의가 성립 안되는 것은 가등청정(加藤清正)의 주전론 때문이다. 나는 무척 이를 싫어한다. 모일 청정(清正)이 건너와 질이 될 것이다. 나는 청정(清正)의 배를 알아내 한사에게 알릴 것이다. 조선 수전을 잘한다. 통제사 주사로 하여금 바다에서 맞으면 사로 잡든 베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은 복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며, 행장도 패재를 부를 것이다. 김응서는 도원사 권율(都元師 權慄)에게 통보하고 권율은 이를 조정에게 보고 하였다. 조정에서는 무척 기뻐하였다. 도원사 권율은 즉시 한산도의 이순신의 진지로가 청정이 가까운 시기에 바다를 건너온다고 함. 공은 신중을 기하여 일을 놓치지 말 것」이라고 권했지만 순신은 생각한 바가 있는 듯 움직이지 않았다. 청정은 장문포로부터 요생포에 도착하였지만 순신은 아직 출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노하여 엄벌에 처하여, 양식 병기를 몰 수, 원군에게 쥐 다시 통제사로 임명하고 순신은 서울 옥중으로 호송하게 되었다.



다) 한산도

한산도는 거제도 남 3리의 해상에 있다. 문록의 역후 이순신은 이곳을 진소로 하고 운주당을 건조하여 제장과 담론하였다. 순신의 투옥 후는 원균이 대신 병을 지휘하였지만 절영도(絶影島) 부근의 해전에 패하여 자신은 붙잡히고 섬도 일본군에 점령되어 순신은 고심 경영하던 진소도 흔적도 없이 되었다.

라) 명양협(鳴洋峽) 싸움

일본군은 한산도 점령후 화원반도명양협(花源半島鳴洋峽)에 있는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을 점령 단숨에 제해권을 잡으려 덤벼들었다. 이에 대해 조선은 국운의 갈림길로 여겨 명양협의 전라우수영에게 전력을 경주하여, 그 용맹 높은 이순신을 기용하여 전라우수 김억추(全羅右水 金億秋)로 하여금 이를 도우게 하여 이 수영에 패전의 장병을 집중시켰다. 그렇지만 그 함정 병력의 미약함은 도저히 우세한 일본 해군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순신은 절대의 명장이라 불리우는 장군이다. 그의 생각에는 어떠한 전술이 숨겨져 있을까? 처음 한산도 싸움에 있어 통제사 이순신을 사임시켜 원균으로 이를 대신 시켰기 때문에 철저히 패전하게 되 이를 후회하고 조선 정부는 다시 이를 기용하였지만 정부는 군세의 현격한 차에 위구를 느껴, 육전을 명하였지만, 그는 상소하여 말하기를,

「임진의 개전 이래, 일군의 반도를 유린하기를 5, 6년에 이루고 있지만 한반도 량호를 뚫지 못하는 것은 우리 해군의 힘으로 그 진로를 막고 있기 때문이요. 지금 신의 병선 아직 남은 것이 12척이요. 미약한 이 병선을 가지고도 사력을 다하여 항전 한다면 아직 일군의 북진을 막을 수 있다. 지금 흑시해군의 활동을 전부 그만둔다면 즉, 이것은 적의 행으로 여기는 바이며, 일군은 즉각 호우로부터 한수를 압도해 올 것이 틀림없다. 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이다. 지금 우리 전함은 과소하지만 신이 있는 동안은 일본의 해군도 추호도 우리 해군을 알볼 수 없는 것이요!」 라고 답하고 있다.

반도의 흥망은 이제 그의 양어깨에 걸쳐있다. 그는 과연 어떠한 비책을 가지고 필승은 명양협상(鳴洋峽上)에서 기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해 9월 7



일에 이르러 처음으로 일본 함대는 진도 해상에 출몰하기 시작하였지만 13 일에는 그 전함대가 오마로도의 바다에 접근했다. 여기에는 협판안치(脇坂安治), 모이길성(毛利吉成), 관평우위문(菅平右衛門)이 이끄는 400여척, 총원 20,000명의 함대이다. 16일 밤, 때는 가을 하늘은 물같이 맑고 중천의 달은 서쪽에 기울어 진도의 산 그림자가 바다에 떨어져 물가에 검은 그림자를 길게 끌고 있었다. 이때 이순신의 수군은 진도의 벽파진(碧波津)에 집합해 있었지만 어둠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 순신은 영을 내려 움직이지 않았다. 어둠속에 그저 명양협의 노도소리가 세차게 들려올 뿐, 일본의 수군은 하늘의 도움으로 여기고 산그림자 속을 진군하여 순신의 수군에 가까이 다가갔다. 이 때 돌연 순신은 포화를 쏘게 하고 방전하며 서서히 명양협으로 후퇴하여 그 북쪽 입구의 전라우수영에 진을 잡았다. 그리고 그는 미리 증발해 놓은 민선 100여 척으로 하여금 명양협 입구 바다에 닻을 내리게 하여 정렬시켜 이를 의병으로 하여 일본 함대를 유인하게 하였다. 일단 벽파진에 집합한 일본 함대는 명양협의 의병을 바라보고 순신의 출동으로 오인 진격하여 명양협의 입구에 다가갔다. 그 때 해협의 조류는 벽파진 쪽에서 전라우수영을 향하여 흐르고 있었다. 일본 함대는 조류를 따라 피하는 민선을 쫓으며 함대를 해협으로 들어갔다. 순신의 전략은 들어 맞았다. 소대년고(昭代年考)에는

【해석문】

왜적의 선봉 10여척이 밤에 진도에 접근하자 이순신은 이를 미리 알고 영을 내리되 전선과 군사를 정돈하여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도록 하였으니 모든 장수들은 이에 따라 만반대비 하고 있었다.

때마침 달이 서산에 기울어지고 산 그림자가 해변의 어설피래한 그늘에 깔릴 무렵 적이 검은 그늘 속을 따라 진격하여 오자 이순신은 병사들에게 화포를 집중사격 하도록 독전하고 모든 배들은 이에 응하여 일제히 사격하니 적은 이에 퇴각하였다. 따라서 이순신은 우수영으로 회군하였다.

명량해 가운데 피난선 100여척으로 하여금 배열하여 먼데서 보아



마치 병선이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장식하여 놓고 전선을 종류에 정박하여 대비하고 있던 중 적이 이순신의 전선을 보고 출현하여 각자 노를 젓고 북을 울이면서 용감하게 진격하니 깃발과 전선이 바다에 가득하였다.

일체 명양협은 명량이라고 쓰여있다. 명양도라고도 한다. 진도와 화원반도 사이를 흐르는 좁은 해협이다. 서쪽의 마로해로 나오는 협구에 벽파진의 있고 동쪽을 나오는 협구에 전라우수가 있다. 서쪽 협구에 오마로도가 누워 있는 것은 해협급류가 쏟아내는 토사가 섬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해협에 이르는 사이는 항로 좁고 낮은 곳이 많고 조류가 급한 험난한 곳이다. 이러한 위험한 해협에 일본 수군을 유인한 것은 실로 순신의 계획에는 무서운 것이 감춰져 있었다. 이 명양협의 조류는 머물 때는 마로해의 해수가 일시에 이 해협을 서로 향하여 흘러 정협해로 밀어내는 것이다. 썰물 때는 이와 반대로 정협해에서 오는 해류가 이 해협을 동쪽으로 흘러 마로해로 나온다. 흐름은 한 시간에 7돛트의 급류 범람하여 흐른다. 주야 4회 동서로 흐름이 변하고 있다. 이것이 명양협의 이름이 붙여진 유래다. 물이 흐르지 않는 시간만을 빼고는 위험한 항로라고 일러진다.

민선도 이곳을 지나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해석문】

명량은 우수영 3리의 땅에 있으며 물살이 사납고 급하여 파도 우는 소리 매우 크게 들린다. 또한 양쪽에는 돌산이 화살처럼 서있고 항구가 심히 좁다. (남해현지)

명량은 벽파섬의 상류에 소재 하고 있는데 바다 입구가 심히 좁고 물살이 거세어 그 소리가 우는 것 같다. 이순신이 이곳에서 왜적을 대파하여 크게 이겼다. 그 비가 우수영성 밖에 새워져 있다. (진도근지)

일본의 수군이 순신의 계책에 빠져 의병선을 쫓으며 해협에 들어간 것은 때 마침 달이 서산에 기울은 만조시였다. 해협의 조류에 따라 적 선을 추격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순신은 전라우수영 앞까지 일본 함대를 끌어 들여 처음으로 포화를 쏘아댔다. 열세한 패전의 조선함대가 우세하고 용맹한 일본 함대를 방어하는 것은 적잖은 고전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됐다.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 흐르는 협중의 조류를 거슬러 이 강세의 일본 수군을 방어하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이순신의 막료는 도저히 필승의 기회가 없다고 보고 퇴각을 권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리고 악전고투하여 마음속 깊이 조류의 동향으로 변하는 것을 기다렸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마음속 깊이 숨겨둔 필승의 군략이었다. 일본함대로서는 지금까지 적 함대를 격파하여 개가를 올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협토의 조류가 서향할 동안에 승리를 거둬야 됐던 것이다. 서류의 조구 순항하여 자유로이 함대를 조종하면서 더구나 강세의 일본함대를 가지고서도 이와 반대로 조류에 역항하면서 약세의 함대를 가지고 방어하는 적 함대를 격파한다는 것은 마치 철퇴를 갖고 계란을 깨는 것보다 쉬웠을 것이다.

이순신의 고심은 이 위기를 벗어나는데 있었다. 교묘히 이 결전의 위기를 피했다. 그리고 조류가 변하여 동향하는 것을 기다렸다. 이렇게 해서 승패가 아직 결말나기 전에 해협의 조류는 조금도 쉬지 않았다. 달이 서산에 지고 나자 조류는 밀물에서 썰물로 변해갔다. 일본함대가 승리할 시기는 이미 사라지고 만 것이다. 운명은 일찍이 이순신의 편에 선 것이다. 서류는 동류로 되어 흐르기 시작하였다. 급류범란 한 조류는 전라우수영 방면에서 굉음을 울리며 동류하였다.

이순신의 함대는 조류를 따라 순항하며 진격하였다. 일본함대는 역항하며 방어하게 되었다. 우열 승패는 전혀 장소를 바꿔버렸다. 일본함대는 이 급류에 역항하며 싸우기에는 너무나 불가항력이었다. 뿐만 아니라 바람까지 조류와 함께 동쪽을 향해 불었다. 승기를 잡은 이순신은 미리 마련해 놓은 수 천가닥의 쇠줄을 양 기슭에서 끌어 조류에 떠내려 오는 일본 함대의 함렬을 착란시켰다.

그리고 거기에다 바람을 이용, 불을 일본함대에 지르고 탄환을 비 오듯 퍼부었다. 그리하여 일본함대는 무참한 패전을 맛보게 되었다. 산산히 패해 겨우 부산으로 도망쳐버렸다. 전사자는 관평우위문정음(管平右衛門政陰) 이

하 4,000여명의 다수를 잃은 대 패전이였다.

【해석문】

명량의 좁은 해협은 조수가 크게 일고 물살이 급함으로 적이 상류를 따라 조수를 타고 가로 막고 있음으로 마치 그 전세는 태산이 짝어 누르고 있는 것과 같으니 우리 군사가 보아 실색하였으나 조수가 물러나가는 항구의 물은 몹시 빠르고 사나웠다.

안위는 조수에 따라 내려가고 바람이 빠르게 부르니 배의 행진은 화살과 같이 적전에 이르자 적이 사면으로 포위하니 죽음을 무릅쓰고 돌전하되 이순신이 모든 군사에게 독전을 계속하니 먼저 적선31척을 격파하고 적선 소수는 도망갔다.

이순신이 정중히 여러 군사에게 맹서하고 승승전진 하니 적은 이에 두려워하여 감히 대적하지 못하고 남은 군사를 이끌고 도망간 것이다.

(소대년고)

그 기세는 바다를 뒤덮다시피했으니, 태산에 억눌린 계란과 같은 위태로운 형국이였다. 그러나 우리 장수들은 모두 두려워하지 않았으나, 군사들은 모두 겁을 먹고 후퇴하고자 했다.

(당시 일본 수군은 330척의 전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명량해협을 거쳐, 서해의 해상권과 전라도를 장악하려 했으나, 이순신의 조선 수군(13척)이 걸림돌이였다. 그들은 우세한 전력을 믿는 한편 이순신을 사로잡으려고, 음력 9월 16일 오전, 우선 그들은 133척으로 명량으로 들어섰다. 전투가 시작되자 일부 수군은 겁을 집어먹고 후퇴했으나, 싸우다가 때를 맞춰 모두 후퇴했다. 그러나 해류의 방향이 바뀌자 조선 수군은 뱃머리를 돌리어 공격하니, 적선은 마구 엉킬뿐만 아니라. 조선 수군의 화포 앞에 무참히 참패를 당했던 것이다) (순신행장)

명량협의 패전은 일본군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 손해였다. 그것은 조선해상의 제해권을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육상의 아군에 대한 군수품 수송을 못하였던 것이다. 조류의 이용 여하가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가져 왔는가? 舜臣은 순간의 변화를 잘 이용, 드디어 대승한 것이다.



(마) 순천해상의 싸움

경장3년(慶長3年) 8월 명선(明鮮)의 수륙군 합쳐 40만이 남하해왔다. 일본군과 회전은 8월 10일에 벌어졌다. 명장진린(明將陳璘)은 순신의 책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되려 내가 들은 조선인은 겁이 많고 싸우면 꼭 진다고 지금 공의 말을 듣고 그 진실을 알았다.

나 적을 보길 어린애 같다. 무슨 전략을 정해 싸울 필요 있으니 호언장담 스스로 앞장서 500여 척을 이끌고 진군하였다. 격전 수시각 진린은 오른 팔을 맞고 선렬마저 흩어져 패전 직전에 막다뤘다. 순신 스스로 뱃머리에서 큰 소리로 영을 내려 구원에 힘써 일본 선박에 불을 질렀기에, 해풍에 휘말린 맹화는 삼시간에 배를 뒤엎고 불꽃은 해상을 덮었다. 일본군은 퇴각하였지만 싸움에 지친 순신은 추격을 하지 않았다.

(바) 순천성의 싸움

소서행장(小西行長)이 지킨 순천성(順天城)에 대해 명의 육장류정(陸將劉綎)은 바다의 이순신. 진린과 핵륙에서 공격했지만 조류의 이용을 놓친 순신은 펄에 들어가 진퇴의 때를 잃어 40여 척을 불태우고 3척의 배에 의하여 간신히 퇴각하였다.

(사) 로량(露梁)의 싸움

경장3년(慶長3年) 8월 수길(秀吉)이 사망. 일본의 제장은 모두가 귀국을 서둘렀다. 행장도 그 중의 한사람이었지만, 육지에는 명장 류정, 바다의 이순신에게 막혀 철수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싸스마(薩南)의 명장 도진의홍(島津義弘)은 스스로 수백 척의 병선을 이끌고 밤에 조류를 이용하여 구원하러 왔다. 순신의 군은 남해의 관음포에 진린은 곤양의 죽도에 진을 치고 있었다. 순신은 야습을 하여 일본선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불타는 군선도 많았지만 명선(明鮮)의 수군도 패하여 관음포(觀音浦)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아침 순신은 선두에서 다시 일본군을 쳤다. 싸움은 격렬해서 일본군선이 불탄 것도 50여 척에 이르렀다. 그러나 의홍 행장(義弘 行長)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되려 역습으로 나와 의홍



은 진린에게 행장은 순신에게 대항했다. 순신은 극심한 고전상태에 빠져 진린과 그 아들 구경도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 도망쳤다. 등자용(鄧子龍)도 죽었다. 배도 붉게 불타버렸다. 그때, 소리를 내며 날아온 유탄이 순신의 가슴을 뚫었다. 용맹한 순신은 좌우를 향해 「싸움이 급하다. 조심하여 전사를 말하지 말라」고 비장한 한마디를 남기고 드디어 쓰러졌다. 순신의 조카 荒이 깊이 죽음을 감추고 독전하여 행장의 군을 친 것은 「죽은 공명 중달(孔明 仲達)을 뛰게 하였다는 격이다」

아~ 명장은 드디어 쓰러졌다. 조선 수군이 받은 타격은 백, 천의 군선을 잃은 것보다 더 컸다. 싸움이 끝나고 영구는 조용히 고향 아산의 땅으로 운반되었다. 묘는 전에 수정 떨어진 서쪽에 있었지만 사자가 차례차례 죽는다고 하여 현재의 장소로 옮겨졌다고 전해온다. 부근에는 자손이 많이 살고 있다. 본저는 고상면 백암리(鹽峙面 白岩里)에 있어 당지는 13대 자손으로 찾아가면 이순신의 요대, 칼, 병풍, 갑옷의 장식구슬, 관, 일기, 서한 등을 보여준다. 온천리(溫泉里)로부터 1리 가량 되기 때문에 찾아가기 아주 좋다. 그리고 유적으로는 전라남도 해남군에 로량묘비 충렬사 서원(全羅南道 海南郡에 露梁廟碑 忠烈祠 書院)등이 남아 있다.

【해석문】

(아) 이통제사를 애도함.

- 유성룡

한산도는 어느 곳에 있는고? 큰 바다 가운데 두어 점 푸른빛이 보이는 곳
고금도는 어느 곳에 있는고? 아득한 남쪽바다에 터럭 한 가닥 같이 보이는 곳이다.

그 당시 백 번 싸운 이순신장군은 새로이 쌍수로 중천의 별을 잡아 운영 하였으니

악한 무리(왜적)을 다 섬멸하여 검푸른 바다에 피로 물들인 것은, 맹렬한 포화로 물귀신의 굴까지 태워 버렸기 때문이었네.

공의 공적은 산동의 한 조각돌만치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목숨도 가벼이 여기어 몸은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아~ 쓸쓸한 두어 칸의 민충사는 여러해 동안 비바람에 허물어 져도 보수하는이 없으니 남은 구부러진 집에 흐느껴우는 곡소리만 가득하네.

(19) 둔포 (5리 13정)

둔포는 충청남도의 최북단. 경기도하고는 겨우 개천 하나 사이에 있다. 멀리 충북 일대까지 공급되는 막대한 소금도 평택, 안성, 목천, 천안, 충북 등에서 생산되는 많은 쌀도 모두가 둔포를 거쳐 인천과 그 외 지방에 반출되기 때문에, 둔포는 그런 중요 산물의 거래지로서, 아침저녁으로 떠나는 배 1,000척 들어오는 배 1,000척 부산항과 호수도 1,000에 이르고 그 이름도 조선 각지에 널리 알려졌었으나, 지금은 노인들의 옛 이야기에 조금 남은 뿐, 정부선의 개통으로 둔포의 생명은 전부 빼앗기고 말았다.

소금도 쌀도 사람까지도 전부 철도편을 이용하게 되고부터는 하루하루 시장도 한산해지고 지금은 호수도 겨우 400 출입하는 배도 일 년에 수 10척에 지나지 않는 쇠퇴해 갈 뿐이다. 혹시 성시를 이루던 옛날을 아는 사람이 지나친다면 영고영서의 심한데 놀랐을 것이다.

그러나 둔포 사람들 가슴속에는, 성시 시절에 옛날처럼 회복되길 바라는 데 노력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움직이고 있다. 추녀를 맞대고 서있는 정미소에서 들려오는 저 경기 좋은 발동기의 폭음과 인부들의 힘찬 노래 소리는 마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해 주는 듯 들린다. 회복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으리.

(20) 아산읍 (온천리로부터 2리 30정)

군 폐합 전에 있어서 아산군청 소재지로 당시는 상당히 번영했었지만 대정3년(大正3年: 1914年) 온천리(溫泉里)로 군청이전과 동시에 기타의 제 기관이 이를 따라 이전했기 때문에 일시 쇠퇴하였다. 소위 구읍내로서 영인면 아산리다.

호수 200, 인구 1,000(일본인 16호 63명)을 헤아리고 면사무소, 소학교, 보통학교, 우편소, 금융조합지소, 시장 등이 있어 지금도 지방의 한 중심지이



다. 남에는 준봉 영인산(3,283미터)이 높이 섰고 그 맥이 三方을 감싸고 북방에는 산은 높지 않고 그 모습 단정한 학교산(鶴橋山 : 日清戰跡數개소 있음)의 전망이 아주 좋다. 일방이 조금 트여 백석포(白石浦)에서 멀리 아산만(牙山灣)에 이른다. 교통이 아주 불편하지만 온천리(溫泉里)로부터 3등도로는 이 지역을 거쳐 백석포, 둔포, 성환, 평택에 통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정기 왕복하는 공세리, 백석포, 둔포에 편하게 이른다. 일청 전쟁시 청병이 이 지역에 주둔 5旬 그 유적이 지금도 역역하다. 공세리 백석포 삼거리(이순신의 묘있음)은 지척간에 있다.

(21) 백석포(아산으로부터 1리)

백석포는 영인면에 속한다. 아산만에 임하여 13리 밖에 만 구(灣口)에 달한다. 고래 지방 유일의 항구로서 근시 기선의 기항하던 것도 있었지만, 경부선의 개통이 되고, 행장내는 개펄이 깊고 간만의 차 30척에 이뤘, 정박하기 불편하여 옛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그런대로 지방의 항구로서의 면모는 아직 잃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만의 특색은 여기에서만 잡히는 “강다리”가 서해안 해물 중 그 이름이 높다. 전면에 있는 영웅암 계두봉(英雄岩 鷄頭峰)은 기암으로 이름 높다. 이 땅은 일청전쟁(日清戰爭) 때 청장섭사성(葉志超)이 병력 5,000을 이끌고 상륙한 곳으로 당시 목표로서 포구의 백암을 칠한 것은 지금도 그것을 볼 수 있다. 호수 150, 반농반어로서, 겨울철 철새의 무리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이곳과 이 근처에는 이토정에 관한 전설이 많다. 그리고 안성천에 큰 섬이 있어 경기도에 면하고 경치가 좋고 특히 석양을 볼 때 세 번 감탄을 한다고 하며 사시사철 구경꾼이 끊기지 않는다.

(22) 공세리(아산으로부터 1리)

인주면사무소 소재지로서, 아산만에 접하고 있음. 옛날 해운판관을 두고 아산, 신창, 온양, 천안, 목천, 전의, 연기, 청주 7읍의 공세미를 받아들여 수



로 경성에 보내던 곳이다. 부근은 전원이 크게 펼쳐져 좋은 쌀이 생산된다. 현재 호수 200여, 인구 1,000 면사무소 외에 주재소, 천주교회당, 시장 등이 있어 지방에 있어서의 정치산업의 일중심지다. 정기자동차의 편이 있어 교통편이 좋다. 겨울철에는 부근 물논에 군집하는 기러기 등의 대군은 보는 이로 하여금 놀램을 금치 못한다. 여름철은 어업 또한 활발하다.

(23) 군명산(아산으로부터 반리)

염치면 서원리에 속한다. 온천리로부터 2리 아직 아산에 닿기 전 반리 좌측에 있다. 산은 높지 않지만 산정에는 기암이 있어 마치 맹수의 어금니를 방불케 하여 절묘신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옛날 아술 또는 아주라 칭하고 목하 아산군이라 칭하는 것도 그 기원을 아산에서 찾을수 있다고 한다. 이 기암을 뚫는 하나의 암맥은 약 1리에 걸쳐지며 많은 금이 포함 되어있다고 한다.

(24) 형제송(아산으로부터 1리반)

인주면 해암리에 있다. 눈어림 1장여. 흑송으로 두 구루 있다. 간격 약 20간 구능 위에 나란히 섰으며 마치 형제가 손을 마주 잡고 있는 형상이다. 수령 300년 이상으로서 수 또한 왕성, 각 10수 가지가 멀리 뻗어 땅에 닿고 있다. 수고 3장 형용서로 닮았다. 근처에서 볼 수 없는 큰 나무로 장관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옛날 형제가 있어, 이를 키우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 나무에 기원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며 누구도 이 나무를 다치는자 없다.

(25) 하라다농장(原田農場 : 아산으로부터 2리)

인주면 문방리 아산만에 돌출한 간척지이다. 면적 500정보을 갖고 논외의 간척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성공의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처음은 고하렴삼(고가렌소)씨가 경영하든바 소화4년(1929년)부터 현 원전강씨(히라다다계시)의 경영하고 있다.



(26) 걸매리 제염장(아산으로부터 2리)

인주면 걸매리 및 밀두리에 제염장이 있다. 아산만에 접하여 그 해수를 이용하여 제염한다. 한때 년 생산 2,000석에 달하던 때도 있었지만 연료부족과 제조법의 조잡함으로서 수지상 종래 몇몇 경영주가 있었지만 오래가는 시간이 없다.

(27) 아산전(牙山戰)과 백석포(白石浦)

1) 전전에 있어서의 청군(靑軍)

1872년 5월 한국개국503년 청국광서20년(1872년 5月 : 韓國開國503年 清國光緒20年)

조선의 「남부지방에 소위 동학당의란이 일어났다. 그 세가 몹시 창궐, 군읍, 잇달아 함락되어 韓兵의 힘으로는 이를 진압할 수 없게 되 끝에 가서는 이를 진압코자 淸兵의 힘을 빌리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국(淸國)은 직례제독엽지초(直隸提督葉志超)로 하여금 이를 치게 하였다.

즉 6월 6일부터 8월의 사이에 태고(太沽) 및 산해관(山海關)을 출발 우리 아산으로 향하였다.

참고. 아산만에 상륙한 이유

- ▶ 인천 ... 펄이 많고 상륙이 불편하고 변란의 땅이 멀다.
- ▶ 이호포 ... (귀암포, 이도포, 귀용海라고도 불리운다) 펄이 멀고 풍량이 심해 불편하다
- ▶ 가로린 만 ... } 미실측
- ▶ 천수 만 ... }
- ▶ 자인 만 ... }

(가) 태고(太沽)에 있어 궤남호(圓南號)에 의한 도한병(渡韓兵 : 강 건너 오는 군대)

- 지휘관 ... 총병섭토성(總兵聶土成)



- 병 910명 ... 포병 천진무비학당출신학생(天津武備學堂出身學生) 약간 포함
- 산포 ... (南京製黃銅 2과운드 6珊瑚) 4門
- 마필약90두
- 6월 6일 밤 대고발 8일 아산만 구일상륙 아산에 주둔

(나) 산해관(山海關)에 있어서는 해안(海晏) 해정(海定)의 양선에 의하는 것

- 총지휘관 직례제독엽지초(直隸提督葉志超)
- 병 1,555명 ... 동전
- 포(그룹프 8산 칠구포) 4문
- 저지초 해안호(著志超 海晏號)에 탑승 6월 8일 출발 해정호(海定號)는 7일 혹은 8일 오전에 출발한 듯
- 해안호(海晏號)는 9일 해정호는 10일 아산만에 들어와 12日 중에 상륙을 끝내고 엮은 11日에 상륙 바로 아산으로 들어왔다. 이상은 제 일차 파한 병으로 바로 남진 전주 방면으로 출동하고자 했지만 재경성원세개(在京城袁世凱)는 한왕 적란의 진정에 의해 청병의 진정함을 원하지 않아 또한 일본의 파병에 의해 일이 벌어질까 우려 당분간 아산에 주둔하다. 후에 명을 기다리도록 원하였다. 아산 부근에 주둔하였다. 이어서 대고에서 해정호에 실린 것은 22일 출발 24일 아산만에 도착 25일 상륙 아산에 합세 주둔하다.
- 병 400
- 마필 70두

즉 우는 제 2차 파병으로서 여기에 일청양국(日淸兩國)의 파한 병은 적극 화하여 드디어 일본으로 하여금 재 인천(仁川)의 제 일차 수송제대를 용산으로 이동, 제 이차 수송제대를 우지나항(宇品港)을 출발시키도록 하였다. 즉 청병의 병력은 다음의 병2,865명, 마160두, 포8문

처음 엮은 아산에 이루자 전주 방면 비장 정찰을 하고자 그 일 지대는 6월 14일 전주에 도착하였다. 그 후 섭(聶)과 협의하여 이홍장(李鴻章)의 의사에 반대하여 스스로 보병기병 1,000명 포3문을 이끌고 29일 공주(公州)에



도착하였음. 비세 더욱 강승하였다 하여도 원세개(袁世凱) 및 이홍장(李鴻章)의 급전과 아울러 일본군(日本軍)의 인천상륙 등의 사정으로 7월 10일까지 공주에 주둔하였음. 후 다시 일청교섭 및 한정의 의도 청국에 불리한 것을 보고 아산에 주둔한 병을 그 본국으로 철수시키고자 10일 오전 공주를 떠나 아산으로 돌아오지만 드디어 철수하는 일은 중지되어 牙山 부근에 집합 주둔하게 되었다. 때마침 영 로의 거중 조정이 있었다. 또한 이홍장도 일본군의 준비 충실함을 알고 청부터 전론을 벌릴 것을 좋아하지 않고 철수하고자 했다.

그러나 엽(葉)은 의기왕성한 것이 있어서 일본군 무서울 것 없다고 여기고 수원으로 진격하여 일본군과 대하고자 원하고 내외 실정을 보고 아직 아산에 주둔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사태가 더욱 급하게 돼 牙山에 있는 淸兵의 병력은 더욱 증원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북당(北塘), 호대(芦臺), 천진(天津)의 각지에서 7월 19일 파견 증병하기로 결정함.

1. 영선(英船). 비경 애인 양호(飛鯨 愛仁 兩号)에 승선한자. 1,300명
2. 동고승호(同高陞号)에 의한 병 1,200, 포12문(혹은 포 14문, 합계 병 2,500명, 포12문)

군함 제원(濟遠), 위원(威遠), 광을(廣乙)의 세 함정은 7월 21일 태고를 출발하는 비경(飛鯨), 애인(愛仁), 량호(兩号)를 호송하여 23일 아산만에 들어와 다음 24日 백석포(白石浦)에 상륙(上陸)하였다. (우리 군함 武藏(무사시)는 이 상황을 정찰하였다)

그러나 7월 23일 오후 태고(太沽)를 출발한 고승호(高陞号)는 도중에 조강호(操江号)를 만나 25일 아산 근해에 도착하였다. 때마침 제원 광을(濟遠 廣乙)의 두 함정은 우리 군함에 발포하여 어이없게 개전하게 되었다. 불행이도 우리 군함 랑연(浪連) 때문에 고승호(高陞号)는 격침되었다. 겨우 독일인 “한벡켄” 이하 16여명이 쇼바이워 — 루도에 표착한 이외는 바다 밑 고힌이 되었다. 즉 조선반도에 있어서 엽(葉)이 파악한 병력은

병 4,165명 포 8문

기타 마필이 있는 실정임.

7月 21日 원세개(袁世凱)대리 당소의(唐紹儀)는 경성에서 엽(葉)에게 다음



경고를 발송하였다. 20일 일본공사는 조선정부에 향해 3일 이내로 재선 청병을 구축할 것을 강제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본은 별도로 이를 일으킬 뜻이 있다는 것을 이르고 전장은 급하게 되어 아산에 있는 병은 자중, 자비의 신중을 기하라고 하다. 즉, 섭사성은 주력으로 성환을 점령하고 스스로 병력 1,000을 가지고 천안으로 이동하였다. 섭(聶)의 인솔하는 병력은 병 2,040 포8문을 26일 새벽 아산을 출발 오전 9시 성환에 도착, 다음 27日 오전 강자강(江自康)은 1,000의 병력을 이끌고와 합류하였다. 위의 병력을 배치하는데 주력부대의 대부분을 성환부근에 타의 일부 약 1,000 및 전포병을 우혈리 부근에 별도 80의 초병을 직산에 두고 각 방어공사를 하여 일본군의 남하를 기다려 7월 29일에 이른다.

2) 일본혼성여단의 남진

일본혼성여단은 육군소장 대도의창지(大島義昌之)이 통솔하여 경성에 있었다. 위기 목적에 다급해져, 한정의 의뢰의 유무에 관계없이, 우선 아산의 병력을 치고 속히 돌아가 북방의 청병(평양 이북의)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며 25일 경성(京城), 용산(龍山), 인천(仁川) 등에 각 소요되는 병력을 배치하고 출발 남하하기로 결정함. 당시 직접 여단장의 수하에 있는 병력은 보병, 기병, 포병, 공병, 병참, 전신 급양의 제대를 합하여, 전투 요원 3000, 산포8, 기병47, 그 밖에 병참 동수송 군부등이다. 여단장은 척후 등의 보고에 의해 청병의 주력은 아산에 있음을 알고, 제부대를 수원에 집합시켜 무전중좌(武田中佐 : 다께다)가 인솔하는 전위대의 엄호에 의해, 별도 동로 독립지대를 동작진(銅雀津)으로부터 용인(龍仁), 안성(安城)을 거쳐 직산으로 나와 여단의 좌측을 경계하게끔 하도록 하였다. 25日 인천으로부터 혹은 아산방면에 포성이 있음은 해전 아닌가 하는 보고를 받고 즉일 아산방면의 정찰을 명하여 무전전위사령관으로 하여금 기병을 수원으로 보내게 하고 제 부대는 남진의 길을 떠났다. 26일 본대 수원(水原)도착, 동일 오전 3시 남양(南陽), 아산(牙山), 천안(天安)의 각기병 척후에 보탐에 있어, 장고 척후를 보내 공주(公州), 천안에 청병도 없고, 성환(成歡) 및 소사장(素沙場)에 약간의 청병 있



음을 보고하고 다시 아산 방면의 수색에 향하다.

동일 오전 중에 재대는 편성을 하여 수원에 체재. 오후 4시반 척후의 충돌이 있었으나 성환방면으로 격퇴함. 오후 10시 대도공사(大島公使)로부터 청병의 아산을 철수 시킬 논의에 있어 조선 정부로부터 의뢰한다는 뜻의 서신을 여단장에 전함.

동로지대는 무사히 용인에 도착. 27일 전투준비 행군에 옮겨 진군하여 진위부근에 야영함. 이날 청병의 대부분이 아산으로부터 성환, 천안으로 이동하였음을 알고 더욱 방어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판단하여 오후3시 동로지대에 이를 통보하고 29일 새벽부터 전투를 개시할 것이니 적의 우측 뒤에 나서 그 퇴로를 끊으라고 훈령함. 별도 일개소대 및 기병 3기로 하여금, 계두진(鷄頭津)나루를 감시 시켰다. 28일 오전 4시 여단은 진위를 출발, 동 8시 반 소사장 북방에 도착, 전진을 개진하여 일본대는 소사장(素沙場) 북방 2,000m 돌출한 도로 서쪽에 개진함. 이 날 한 조선인(朝鮮人)으로부터 청함(淸艦) 3척중 2척이 격침되었음과 기타를 알게 되었다. 더욱 군물리 독립지대를 파견하여 오전 11시 15분 아산 방면에 보낸 장교 척후소위 금정의일(金井義一: 이마이) 돌아와 적정을 보고함.

오후 3시 22분 기병 척후가 돌아와 牙山의 淸兵은 근소하여 주력은 3~4천으로 성환에 있음을 보고함. 경성의 공사관으로부터는 우리 해군은 청국 운송선 1척을 격침 군함 광을호를 불태우고 조강호(操江号)를 나포함을 통보해 옴.

3) 성환(成歡)의 전투

28일 오후 11시 각대장을 소사장에 모여. 그 구분을 알려 각대의 임무를 명령하였다. 이 밤에 있어 우군의 배치는 계두진 군물리에 각일지대, 동로지대는 사현에 여단의 주력은 소사장에 있다. 구분은 다음과 같다.

우익대(사령과 무전중좌(武田中佐))

좌익대(사령과 서도중좌(西島中佐))

포병대



예비대

독립기병

우익대는 성환방면부터 진격 적을 찾아 제압하고 여단장은 스스로 좌익대, 포병단 및 예비대를 인솔 동쪽으로 우회하여 적의 우측 뒤로 다가서기로 하고, 군물리 독립지대는 멀리 우익대의 우측을 경계하며, 그리고 청병이혹시 아산 방면으로 퇴각하면 그 퇴로를 막도록 하고, 위생대는 안성(安成)나루 제2 야전병원은 소사장 고지에 병참사령부는 칠원(七原)에 있도록 명하였다. 여단장의 직접 지휘 하에 있는 제대는 28일 야밤 12시를 기하여 행동을 개시하는 것도 극단으로 나쁜 도로에서 행군이 몹시 지체되어 오전 3시 20분 가용 부근에서 그 병력으로 전투는 개시되어, 지형 몹시 불리한 속에 약 1시간에 청병 약 100명의 저항을 축출함. 이때 마쓰사끼 대위(松崎大尉木口) 나팔수는 불행히 적탄에 쓰러지고 말았다. 좌익대는 오전 6시10분 앵속방주산(罌粟坊主山)을 공격함.

포병대 또한 동 시각부터 신정리 동쪽에서 그 포화를 열었다. 좌익대 역시 동 시각부터 계선동(鷄仙洞) 부근에서 전투를 개시 오전 6시 30분경부터 앵속방주산(罌粟坊主山) 및 월봉산(月峰山)을 수비하는 적과 사이에 맹열한 포화의 교환함에 있어 우리 제대대는 크게 분발하여 이에 응수함. 적장 섭사성(聶士成)은 백마에 걸터 우혈리(牛歇里)의 포병 진지에 있었으나 성환방면의 전투 맹열하여, 청병의 기가 움직이자 그 예비대를 이끌고와 지원함. 그러나 7시에 이르자 우리부대는 드디어 돌격으로 이를 격파 성환 서방으로 패주하는 적의 추적에 임하였다. 섭사성 역시 전주(全州) 가두로 남쪽으로 도망쳐버렸다. 오직 성환 북방의 막사 주변에 있던 자들은 끝까지 저항하였음.

동로독립지대는 오전 6시 30분부터 직산 동남 방축리(防築里)부터 공격하고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는데 이른다.

우익대는 오전 5시 20분 가룡리(佳龍里)의 전투지를 출발 오전 6시 10분 우혈리 북방 병부지에 적병 400을 보고 일제사격으로 적을 압박하며 전진함. 적의 우익 후면에 있는 포병 역시 우리를 향해 응전함. 포화가 치열하게 되고 백열화하게 되고자 할때 본대가 와 지원하게 됨. 더욱이 포병단의 목

표를 이적으로 바꾸게 되다.

예비대 역시 이에 합세 7시 15분부터 점차 격렬한 싸움이 됨. 7시 30분 돌격준비에 들어가게 되자 적병 겨우 움직이어 제일선 퇴각을 시작. 그간 공병대는 멀리 서방으로부터 적의 후방에 다가갔다. 7시 40분 드디어 전선에 돌격을 개시 청병 크게 놀라 모두 서남방으로 도망침. 즉 각대는 추격사격을 하면서 집합, 대를 정돈, 기병대도 퇴주하는 적을 추격 하였지만 그 대부분은 이미 멀리 패주하여 직접 보지 못하고 본대로 돌아옴.

오전 8시 30분 각대는 집합 정돈함. 군물리(軍勿里) 독립지대 그 나루터를 감시하여 주력의 성환 공격과 동시 기회를 봐 아산에 들어가도록 명을 받았다. 즉 29日 오전 2시 30분부터 행동을 개시 도중에서 성환 방면의 포격을 듣고 전진하고 오전 8시경 적병의 집단 서주함을 보고 거리 멀지만 상토교(上土橋) 동방고지부터 일제사격을 가해, 그 흩어져 서주하는 적을 쫓으며 전진을 계속 아산에 향함.

4) 아산의 전투

이 전쟁, 성환방면을 지키든 청병의 주력은 섭성(聶成) 이를 이끌고 남방 천안을 향해 후퇴 우혈리(牛歇里) 방면의 청병은 서남방으로 쫓겨 일시 아산의 방향으로 후퇴 다시 돌아서 남쪽으로 뛰어 주력에 합친 듯 하다. 그러나 대도 여단장은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음. 더욱 아산을 적의 근거지로 믿고, 성환 방면의 적은 그 근거지인 아산으로 퇴각하고 다시 그 땅에서 저항할 것이라 판단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아산으로 진격, 이 날 증으로 그 본거지를 점거코자 결정. 오전 9시 20분부터 10시 30분 사이에 여단 전부를 출발시켰음. 그러한 후 어제밤 7시 아산발 평성(平城) 기병소위(28일 파견척후)부터 청병은 성환 천안에 이동. 아산에는 한명의 적도 못봄이라는 보고를 받은 것이지만 전의 결심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전대(각지대 포함) 오후 3시 전후에 아산 부근에 도착함. 적은 일시 성환 방면부터 퇴각해 왔지만 다시 신창(新昌) 방면을 향해 퇴각한 것을 알고 아산현리(牙山縣吏의 말) 여단의 일부 아산으로 들어가고 병기 양식을



압수하고 신창, 백석포(白石浦), 신례원(新禮院) 방면에 대해 전초를 배치하고 아산의 점령을 확실히 하고 일부는 아산 부근에 야영을 하고 그 밤을 세우다.

7월 30일 여단장은 전야부터의 제 정보를 얻어 또 한 주민의 말에 의해 적병 각 방면으로 괴멸 패주한 것을 확실히 알고 독립기병중대를 신창(新昌) 방면에 파견. 청병이 그 지역에 없으면 아산으로 귀환하도록 명함.

그 날 계두진(鷄頭津) 독립지대도 아산으로 들어옴. 이 지대는 28일 임지에 도착. 나루터를 감시하고 있던 중 29일 오후 2시 30분 지대장 본간중위(本間中尉)는 병졸 12명을 인솔 해안 백석포에 건너가 정찰중 오후 5시 군물리(軍勿里) 독립지대의 일소대 이 지역으로 온 것과 만나 성환방면 전승의 전말을 듣고 수비지를 철수하고 돌아온 것임. 오후 3시 10분 기병중대 아산으로 귀환하고, 어제밤 적의 보병 기병 약 150명 신창에 숙박하고 주민의 의복 식량을 약탈하여 오늘 아침 변장하여 홍주(洪州) 방면으로 도주했다는 보고를 가져옴. 이에 여단장은 적병은 완전 패멸하고 아직 전투력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판단하고 그 무력한 병력을 상대로 허송세월 하느니 보다는 우선 경성으로 귀환하여 빨리 북방의 적에 대처할 계책을 세우는게 좋다고 결정 다음날 출발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날 일부를 성환에 파견하고 보병 각 중대로부터 선발된 병졸 80명과 수마(馱馬) 약간을 아산에 주둔시키고 두 곳의 전리품을 정리 수송케 함. 즉 해로로 인천에 닿는 것과 육로 경성(京城)으로 귀환하는 것이었다. 각대 7월 31일 오전 4시 아산을 출발 정오 평택에 도착 야영에 들어갔다.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건데 청병은 처음 성환 진출 전은 아산읍내에 가득 차한 두 사람의 제외한 다른 조선인(朝鮮人)은 모두 피난을 하여, 각 민가는 물론 그 간부는 현 면사무소, 주재소, 보통학교 등 주요 건물에 묵고 있었다. 청병(淸兵)이 만든 산병호(散兵壕) 및 감시소의 흔적은 읍 북 학교산 북쪽 산기슭 서쪽 기슭으로, 또 영인산 북쪽 기슭에 남아있고 간부가 거주한 건물부근에서는 소총탄이 많이 발굴되었다. 그리고 소총 등의 부분품이 지금도 왕왕 발견된다.



5) 귀환

당시 더위 맹렬하여 대낮의 행군은 크게 어려웠다. 그래서 야간행군을 택하여 다음 8월 1일에는 오후 4시 평택을 출발 진위(振威)에 도착 야영하였다. 이 날 여단장은 소사장(素沙場)에 있는 야전병원 및 위생대에 명하여 귀환에 오르도록 하였고 전신대로 하여금 통신소를 개설케 하였다.

8월 2일은 오후 5시 반 진위(振威) 출발 다음 3일 오전 6시 수원(水原)에 도착 여기서 야영함. 연도의 조선민(朝鮮民) 전일의 배일배척은 없었던 듯 밥과 장을 갖고 아군을 마중함. 연일의 야간행군은 큰 피로를 느끼게 하여 8월 4일 오전 3시 수원출발, 10시 반 과천(果川)도착, 8월 5일 오전 1시 과천(果川)발동, 4시반 동작진(銅雀津) 착동, 8시반 한강(漢江)의 도강을 마치고 용산(龍山)으로 향함. 도중관민 개선문을 설치. 국왕의 칙사 및 대도공사(大島公使) 이하 일본관민(日本官民)이 나와 마중, 개선식을 거행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군대를 위로하고 천황폐하(天皇陛下), 조선(朝鮮)국왕 및 아군의 만세를 축하고 그 소리 천지를 진동하다 식이 끝나고 각 부대는 용산(龍山)의 병영으로 들어감.

6) 말미

혼성여단 청병 소탕 때문에 7월 25일 남정의 길을 떠나 여기에 12여일 그간 지리에 어둡고 병참이 뒤따르지 못하기 일수. 거기에 삼복의 맹염이 돌을 불태우고 하여 행군이 몹시 어려웠다. 전투부대 뿐만 아니라 제대 모두 곤란을 겪다.

더구나 그 병력의 비교는 아군 3047, 포8문에 대해 백중한 병력으로 청군에 대치했지만 공수의 위치가 다르다보니 그 곤란은 이루 말로는 다할 수 없다.

생각건대 천안(天安)에 있는 엽지초(葉志超)의 병력 1,000 및 고승호(高陞)의 1200 간격을 두고 포 12문을 합할 때 그는 우로 우리를 능가 승패의 운수 여기에서 역전되었다.

이 전투에서 청군의 사상은 500을 밀돌지 않고 아군의 사상은 82명으로서



들어서 격렬한 싸움은 아니었지만 육상에서의 일척 양군의 시련으로서 그 효시다. 그 승패는 실로 양국 군대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다른 방향 남정한 여단으로서 후환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경성 부근의 모든 부대의 공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번 명치의 대발전사를 벌리게 되는 전환기며 일척전쟁에 이르자 우리 아산땅은 성환과 더불어 깊이 뇌리에 새겨지게 되며 대발전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다.

7) 부 장강장군담(附 長岡將軍談 : 당시 여단참모)

오늘 아침 오전 10시 너머 상토교동방(上土橋東方) 고지부터 행진을 시작하여 적을 추격하며 여단본대의 우측에 있는 평행도로를 전진하자 무전중좌(武田中佐)의 우익대하고는 하천 범람으로 그 연락이 완전히 단절됐다.

물론 여단장을 비롯 우리 막료 일동에 있어서는 적은 아직 그 일부를 아산에 주둔시키고 있다고 생각해 여단명령 제 일항에는 「여단은 금일 아산을 향해 전진하여 어제 패주한 적을 섬멸함을 바램」이라고 하는 의미의 목적을 들 수 있다는 것을 보아 안다.

우익대는 당면의 잔 적을 소탕하고 어젯밤 늦게 아산에 진입한 것이다. 후에 이 일을 듣고 일동 마주보고 아연해질 수밖에 없다.

이리하여 7월 30일 오전 10시에는 여단의 제대는 전부 아산에 집합했다. 아산은 적의 상륙 근거지로서 오래 그 본영을 두고 수륙 연락의 병참 기지였기에 동지 및 해안의 백석포에는 소총이나 탄약 등의 병기 재료를 비롯, 보리 등 식량에 이르기까지 다량의 군수품이 집적해 있었기에 아산의 전투 보고의 말미에는 「기타 노획품 산과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30년이 경과한 오늘이 있어도 그 초안자인의 허풍이라고 전해지지만, 조선 상륙이래 쌀, 보리, 야채 등에 대해 절대의 결핍을 느낀 우리들의 눈에는 일견 그것이 후지산보다 높게 크게 보인 것은 정말이다. (일척전사 성환전기 등에 의함)



28. 김옥균(金玉均)

1) 金玉均 年譜

1. 1세 ... 철종왕 행해2년 정월 23일 충청북도 옥천군 김병태(실부) 댁에서 탄생(가영4년 황기2511년 1929년부터 79년 전)
2. 6세 ... 경성 김병기의 양자가 됨.
3. 15세 ... 모사건으로 하옥 됨.
4. 18세 ... 이미 이태왕에 알리게 됨.
5. 22세 ... 문과에 최우등으로 급제(이태왕 임신 9년 1872년)
6. 32세 ... 박영효등과 일본에 가 북택론길(福澤論吉)과 알게됨(1882년)
7. 33세 ... 유학생 및 차관문제에 관해 일본에 사신으로 감
(1883년 6월부터 익년 1월의 사이)
8. 34세 ... 12월 갑신의 변으로 일본에 망명(이태왕 21년 1884년)
9. 37세 ... 소립원도에 유배됨(1887년). 후 동경에 돌아옴.
10. 39세 ... 북해도로 유배가게 됨. 잠시 연기 병을 치료. 병이 약해져 북해도로 감.
11. 41세 ... 북해도에서 동경으로 돌아옴.
12. 42세 ... 동학당의 란 일어남.
13. 44세 ... 3월 28일 상해동화양행 2층 제 1호실에서 홍종우의 독수에 가다. (이태왕 갑오31년 1907년 일청역개전전 4개월)
14. 부(附)
 - 가. 4월 14일 양화진에서 시신을 능지의 형에 처함.
 - 나. 5월 20일 동경에서 친지의 모임에서 유발을(유해) 청산 외인 묘지에 묻다.
 - 다. 남대문에 효수 된 수급은 한 친지가 야밤에 훔쳐 동경본향구입 진정사(東京本郷駒込 眞淨寺)에 장사지내다.
 - 라. 1912년 사자 김영진 모당(金英鎭 母堂 : 미망인)의 희망에 따라 동경으로가 대외중신(大隈重信), 두산만(頭山滿)과 의론 청산(靑山)묘



지로부터 분발하여 일청전쟁 최초의 고전장인 아산으로 이장함. 대정3년(1914년) 미망인 유씨(俞氏) 병사하여 이를 합장함.

2) 고균(古筠)金玉均 사력(事歷)

(가) 김옥균(金玉均) 처음으로 일본(日本)에 오다.

1882년의 경성사건은 원래 조선자체의 폭거로서 조선은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닫고, 일본이 필히 대병을 일으켜 그 죄를 추궁할 것을 예기했다. 그리하여 청국(淸國)은 마건충(馬建忠), 정여창(丁汝昌), 오장경(吳長慶)을 파견군함을 이끌고 조선에 임하여, 대원군을 유인 북경으로 호송하고 조선으로 하여금 우리 예봉을 피하게 하였다. 고로 우리 전권대사 정상형(井上馨 : 이노우에가오루) (外務卿) 전권공사 화방의질(花房義質)의 경성에 들어와 단판을 진행하자 조선정부는 손해 배상과 기타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약체결 후 박영효를 사죄사로서 김만식을 부사로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새삼 사의를 표하였다. 당시 사절 일행에 따라 많은 포부를 갖고 많은 기책을 숨기고 래조한 것이 김옥균(金玉均)으로서 실로 김옥균(金玉均)이 일본에 처음 온 것이다.

당시 조선은 소위 사대당이 날뛰는데 맡겨져 요로의 대관귀족은 한결같이 청정의 제재를 받아 그 주재 관리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상태였다.

김옥균 등 독립당의 지사 제국의 망상을 목격할 수 없어 국정의 근본적 개혁을 단행하여 그 숙원을 타파하여 독립의 결실을 올릴 것을 기하고자 하였다.

즉, 우선 조선에 있어서 청국의 세력을 구축하고 정권을 본국의 손으로 회복하여 서서히 후사를 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힘이 부족함으로, 우리 일본에게 의지할 필요를 느껴, 사절 일행과 같이 래조하여 후일 일본에 대하여 원조를 청하게끔, 자기입각의 기반을 개척하고자 한 것이다. 김옥균이 오자 즉시 암중의 대비약을 시도하였다. 우선 일조 양국의 친선을 기할 몇 가지의 안건을 제시하고 유학생을 파견하여 호산학교(戶山學校)에 입학하게끔 하고 아울러 국정개혁의 원자로서 정상(井上)외무경의 주선에



의하여 십칠만원을 차관할 것을 약속하고 박영효와 더불어 귀국하였다.

(나) 김옥균의 재유

이러하듯 김옥균은 우리나라부터 170,000원의 차관을 얻은 것은 그 차관은 국정개혁을 수행할 비용으로서는 너무나 적은 액수이다.

다음해 1883년의 여름 김옥균은 서재필, 서재창과 같이 호산(戶山)학교에 입학한 유학생 17, 8명을 이끌고 조선의 광산을 담보로 하여 3,000,000의 차관문제를 들고 다시 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우리 정부의 대한 책은 항상 소극적이어서 자칫하면 청국과 갈등이 생길까봐 꿩이고 있든 바 더구나 차관문제는 달갑지 않을뿐더러 변리공사죽침진일랑(辨理公使竹添進一郎) 같은 사람은 그 성공을 방해하고자 그 위임장을 부인하였다. 김옥균 크게 실망하여 재야의 유력인사에게 부탁하여 이를 원조를 구하고자 하였다. 사정을 말하고 복택유길(福澤諭吉)에 청하였다. 복택(福澤)은 그의 친지백작 후등상차랑(後藤象次郎)에 소개하였다.

이 사이에 그는 한편 미국인 모루스에 부탁 미국부터 차관할 뜻을 세우고 있었던 듯 했다. 그리하여 옥균은 후등(後藤)에 원조를 바랐으며 후등(後藤) 역시 옥균의 희망을 받아들여 청불 양국의 개전을 계기로 불국공사 워끼 밀상하여 불국을 도와 청국을 쳐 조선을 구하고 평생의 난국을 떨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밀의가 아직 있기 전에 옥균은 급속히 귀국해야 하는 사정이 일어났다.

후등(後藤)는 육오종광(陸奧宗光)과 도모하는 바 있었다. 육오(陸奧) 3,000,000원은 급히 조달하기 어려워 급한대로 200,000원을 조달하여 목하의 급한데 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선왕국부터 그 정권을 후등(後藤)에게 위탁한다는 국서를 얻어, 후등(後藤)으로 하여금 그 땅에 가도록 하고 또한 군사상의 일에 대하여는 강본유지조(岡本柳之助)에게 말도록 해야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고전정춘(古田正春) 글을 쓰고 육오(陸奧) 이를 수정 다시 복택(福澤)의 부정(斧正)을 거쳐 아주 세밀한 위임장의 초안이 되었다. 당시 후등(後藤)의 결심은 완강하여 의기팔도를 삼키고 남을 기개였다. 그는 복택(福澤)에게 말하기를 「왕명을 받들어 왕도에 들어가 천하의 대사를 결행함은 대장



부의 일이다. 전국의 열사 린상여(蔭相如)의 벽을 완성하는 것 좋고 혹, 불행히 패하여 옥쇄하여도 또한 좋지 않은가라고 복택(福澤)도 후등(後藤)의 호언에 승복하였다. 호사다마 세상사 풍파있다.

드디어 200,000원 조달의 성공되려는 시각에 그 융통처인 제일은행은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이를 응할 수 없다고, 이에 후등(後藤)은 참의 이등박문(伊藤博文)과 회합 그의 동의를 얻고자 함. 이등(伊藤)은 걸으론 이를 찬성하고 비밀리에 정상형(井上馨)에게 고하였다. 정상(井上)은 크게 놀랐다. 정상은 이등(伊藤)에게 말하기를 「정부는 목하조약 개정에 착수하여 전력을 경주하고자 하는 이 때 후등(後藤)의 손을 빌려 조선개혁의 임무를 맡긴다는 것은 심히 불가한 것이다」. 도리어 육오(陸奧)를 권유하여 구주로 외유토록 하고 또한 그 뜻을 죽침공사(竹添公使)에 이르고 독립당으로 하여금 조선개혁의 대사를 수행시키고자 하였음.

이렇게 해서 후등(後藤)의 권도도 복택(福澤)의 고심도 끝내 수포로 돌아갔고 옥균은 궁여의 몸을 이끌고 공허히 귀국하였다.

(다) 일본의 대한정책의 일변

김옥균 공수 귀국하자 몸은 사대당의 중첩 중에 싸여 고심초사, 백방계획 사신을 강본유지조(岡本柳之助)에 보내, 내원을 촉구하기를 빈번히 하였다. 이때에 이등(伊藤), 정상은 후등(後藤)의 조선에 있어 일이 안 된다는 것을 듣자 갑자기 대한정책을 일변하여 조촌(鳥村) 대리공사로 하여금 독립당 즉, 김, 박의 환심을 구해 암암리에 한정 개혁의 뜻을 도울 것을 시사하였다.

이 일은 복택(福澤)의 수기에 명기되었다. 그 대요는 「김옥균은 다년간 국왕의 신임을 얻어, 사대당의 주의를 크게 분개 1882년 수신사 박영효와 같이 일본에 와 비밀리에 일본정부에 의뢰할 것을 도모하였지만, 당시 정부의 의사를 득하지 못하고 겨우 그 줄의 호의를 얻어 일금 170,000원을 횡빈(橫濱)은행부터 채용했을 뿐 170,000원을 갖고는 국사에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즉 1883년 초 여름경 본국부터 3,000,000불 외채의 위임장(이 외채 위임장을 죽침(竹添)공사는 가짜라고 말하여 김씨의 계획을 방해했음)을 갖고 다시 일본에 와 미국공사의 비밀리의 주선을 얻어 횡빈(橫濱)재류인 모-루



스에 부탁 미국에서 외채 모집의 일을 꾸몄지만 이 일은 성사가 안됐다.(제일은행의 삽택영일(澁澤榮一)가 김옥균에 100,000내지 200,000원을 빌려주려고 했지만 외무경 정상(井上)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중지됐지만……. 1884년 1월경) 1884년 빈손으로 귀국하였다. 위 일을 주선하는 중 일본 정부가 조선에 대하는 정략을 보건데 되려 후퇴한 주의로 보이며, 그리하여 김옥균의 거동 하나하나가 일본정부의 뜻에 드는 것이 없고 김옥균 박영효의 이름만 들어도 경거망동하는 부랑자 같이 경시하며, 외무성 같은 곳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일본에서 이러하니 재 조선의 일본공사관에서도 같았다. 당시 귀경 중인 조선 공사의 죽첨씨(竹添氏) 같은 이는 김, 박과 절교 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재임의 대리공사 도촌씨이하 공사관의 직원들도 보조를 같이 하였다. 그러한데 김옥균씨가 귀국한 것은 3월로서, 그 후 주의하여 공사관의 동태를 살폈든바 본년 8, 9월경부터 상태가 이상한 것을 느껴 서서히 접근하려고 마음먹었다. 정상각오랑(井上角五郎)은 원래 김옥균, 박영효 등과 조선에 건너와 그후 그 정부에 고용되어 한성순보에서 집필하였다.

올 해 이른 봄부터 중국사람(支那人)을 비난하는 자가 많고 또한 조선 정부로부터 급여되는 봉급이 몹시 적으므로, 하나는 신변의 보호, 하나는 생활의 보호를 본 대리공사 도촌(島村)씨에게 청원했지만 들은체도 하지 않았다. 다분, 일본인은 각오랑(角五郎)을, 김, 박과 동일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각오랑(角五郎)은 5월 경성을 떠나 귀경하였다. 이때 청불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7월에 이르러 세인은 이 전쟁이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외무성에서는 각오랑(角五郎)에게 약간의 보호금을 주어 다시 건너오게 하였다.

그 큰 목적은 한성순보를 중국사람(支那人)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각오랑(角五郎)이 다시 건너온 것은 8월 중순으로서 이때 도촌씨(島村氏)는 조선정부와 일한무역 장정 곁에 요구하는데 열중하고 있던 중이었지만 조선정부는 이를 듣지 않았다.

이때 일본 공사관에서 한규직 이조연과 친하고 일본인은 일본당이라 칭하였지만 아직 김, 박과 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오랑(角五郎) 재래를 전후하여 도촌(島村)씨와 김, 박 친하여 무역협정 체결의 답판에 대하여도 그 상



의를 하였다. 9월 중순 일본으로부터 선편이 있었다. 그 신문에 의하면 중국(支那)은 국내에 선포하여 프랑스(佛)와 싸우는 이유를 고하였다고 또한 북경몽침(北京夢枕)이라고 제목의 금회(錦繪 :니시끼에) 및 시사신보가 기재한 각국 정부가 중국을 분단 점령할 의도라고 하였다. 이때 조선 상하의 소동은 대단했으며 청불 진실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의 논의가 있을 때 도촌(島村)씨는 김옥균 또는 한규직에 내고하여 속히 중국병(支那兵)의 철수를 중국(支那)에게 요청하라고 하였다. 10월 초순이었다. 민영익은 혹은 중국인(支那人)의 향연 혹은 중국인(支那人)과 유엽하며 일본인을 배척하라고 하였다. 도촌(島村)씨는 내심 불평이었지만 김옥균은 조선 관리 및 도촌(島村), 천산(淺山), 기림 송미(磯林 松尾)등을 초대 향연을 베풀고 일본 공사관에 대해 호의를 표하기를 적지 않게 하였다. 이러한 일로 도촌(島村)이 김옥균에 대한 정분은 날로 깊어 갔다. 이것보다 이전에도 박영효는 공사관에 자주 왕래한 일이 있다. 그래서 박과 김의 교제는 처음부터 일신동체, 금번 김이 공사관에 출입할 수 있는 길을 텃다는 것은 독립당에 다행이어서 이로써 그 수령인 박영효,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이외도 서재필은 나이 어렸지만 주모자의 한 사람이었다)의 무리는 모든 계획에 일보 전진, 점점 깊이 도촌(島村)씨와 교제 왕래 빈번하였다.

어느날 김옥균은 도촌(島村)씨에게 종용하여 말하기를 방금 조선의 사태는 귀하가 목격하듯이 나라의 주권은 모두 중국에 속하고, 우리 조선의 대신 등은 오직 중국인의 콧김에 굽실할 뿐 자국이 있음을 모르고 또 국왕이 있음도 모르고 있다. 이에 우리 동지는 죽음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할 것을 맹세했지만, 일본 정부는 중국을 몹시 무서워하고 가깝게는 옥균이 작년래 귀국 체제 중에도 외무성을 비롯 도리어 귀국 정부의 줄에 소외되어, 추호의 도움도 빌리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일에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임.

그리하여 믿지 못할 지경이지만 우리는 죽음을 결심하고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가령 타의 응원이 없다 치더라도 그 뜻을 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불평과 분개를 섞어 말하니 도촌(島村)은 원기 있게 김을 위로하여 조선 개혁은 깊이 동의하는 바이다.

또 일본 정부가 중국을 겁내어 조선의 일에 손을 댄다는 것은 처음부터



없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꼭 조선의 독립을 도울 것이다. 지금이라도 군들이 뿔인가 꾸민다면 우리는 이것을 깊이 헤아릴 것이다. 그 어휘가 몹시 활발한 것을 보고, 김은 마음으로 기뻐하며, 더욱 동지들과 협의하여 10월 말경에 이르러는 도촌(島村)의 마음 확고부동 더욱더욱 독립당을 돕는데 이상 없을 것을 확인 드디어 세목의 밀담에 이루어 할 때 죽첨(竹添) 입경을 맞게 되었다. 그래서 죽첨(竹添)의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려한다는 소문을 듣고 독립당의 무리는 크게 낙담하여 죽첨(竹添)이 와서는 예의 인순 퇴수(적극적 의지가 없는)로서 함께 대사를 논할 수 없자 김옥균은 평생 죽첨(竹添)과는 견인지간으로서 비상하게 방해가 될 지언정 일을 도모할 수 없다. 그 일을 김으로부터 도촌(島村)에 말하니 도촌(島村)은 조금도 근심하는 빛 없고 죽첨(竹添)과 나 하고는 의견의 차이가 있는게 아니다. 군과 공사와 평생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나의 교제하는 일이 아니다. 일이란 사사로운 것이 아니나 죽첨(竹添)과 군과 일을 도모하는데 어찌 평생의 사사로우움을 개입시킬 것인가. 추호도 근심할 일이 못된다고 웃으며 말한다. 이 모양은 독립당의 무리에게 낙담하지 마라. 특히 힘이 되는 듯하였다.

10월 30일 죽첨(竹添)공사는 일본으로부터 다시 경성으로 들어와, 그 10일 쯤 전에 선대(仙臺)의 진대병(鎭臺兵)을 교대했다. 죽첨(竹添) 입경 다음 31일은 조금 불쾌하다며 입궐을 하지 않았음. 그 날 죽첨(竹添)은 대리공사 도촌(島村) 및 정상각오랑(井上角五郎)을 초청 우리정부는 금번 중국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으로 하여금 틈이 있으면 이에 편승하려고 욕심이 나며, 그 인망을 얻고자 400,000불의 상금을 환여한다는 등, 여러 가지 말이 있었다. 이 일이 일찍이 김, 박의 귀에 들어가자 차은 즉시 죽첨(竹添) 공사를 공사관으로 방문하였지만 면회를 못하고 이튿날 11월 1일 재차 방문 국사에 대해 묻하고 일본의 힘을 빌려 개혁을 시행코자 한다는 뜻을 말해 죽첨(竹添)도 역시 개혁의 필요함을 묻하고 크게 장려하는 말투였지만 쌍방 세밀한 점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오후 김옥균도 역시 공사관을 방문 죽첨(竹添)에 면회, 재회의 인사후 김은 조선의 국정을 말하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국가는 차차 쇠퇴하여 중국의 나라가 되든가. 또는 멸망하여 흔적도 없이 되겠지. 우리는 시비와 아울



러 아직 멸망하기 전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죽첨(竹添)은 이를 듣자 아주 지극히 옳은 말이지만 그 집의 멸망을 구하고자 하면 어떠한 수단이 있겠는가 하고 반문 김은 말을 돌려, 그 수단 책략은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에게 말하자면 우선 그 사람을 신임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런데 귀공사는 년래 옥균을 심하게 의심하여 옥균 명확히 이것을 알고 사람에게 의심을 받으면서 그 사람과 일을 말하고 일을 도모할 수는 없는 일. 귀하가 이렇게까지 옥균을 의심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또 어떤 증거가 있는가? 거침없이 진실을 말하니 죽첨(竹添)은 침묵하여 답변 없다. 조금 있다 말하기를 만일 조선의 국사에 대해 타국부터 이를 도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는 귀공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김은 대답하기를 폐방의 형세에 있어 국사에 착수하자면 타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도리 없지만, 그에 대하여는 동지들과 상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고별하였다. 그실 김의 심중 죽첨(竹添)의 심기가 변하였을 건지 또 일본 정부의 정력도 크게 변하였다고 고찰 기쁨에 넘쳤지만 우선 내 자신의 신용을 두텁게 하겠다고 생각, 또 한편 죽첨(竹添)이 너무 득의만만하여 경솔하게 기를 놓칠까봐 근심도 적지 않았다.

우선 당일은 아무 말도 없이 헤어졌다. 11월 2일 죽첨(竹添)공사 입궐하여 알현의 예를 행하고 400,000불의 상금 반환하는 공명을 말하고 또 촌전(村田) 총 16정을 진상 공사 내알을 청하여 그 자리에서 공사는 중국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또한 서양바람 불어오는 것을 말하여 크게 국왕을 독립에 장려하는 것 같았다.(죽첨(竹添) 도촌(島村)은 이조연, 한규직을 진실한 일본 당이라고 생각 내알 할시도 이 한 사람만을 배척시켰다.

또 이들을 막지 못하였기에 죽첨(竹添)의 소망은 즉시 조선, 중국 양국에 새었다)이 알현시 민태호 이하 제 대신은 입궐 김옥균도 역시 같이 죽첨(竹添) 공사가 통변 천산(淺山)씨와 어전에 있을 때는 수행이 도촌(島村)씨도 다음 장에서 제 대신과 떨어져 있었기에 김씨는 일본어로 도촌(島村)과 담화, 거사할 뜻을 말하자 도촌(島村)씨는 빨리 착수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상 복택논길(福澤論吉) 수기) 당시 일본 정부의 실권은 대부분 이등(伊藤), 정상(井上)의 장악에 있고 백사 모두 이 두 사람의 결단



에 의했지만, 그들은 후등(後藤), 복택(福澤) 등 민간지사(志士)들이 조선 개혁의 대사를 결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정부 단독으로 그 공을 갖고자 욕심을 내어, 죽첨(竹添)으로 하여금 급히 귀임 시켜 그 일을 맞도록 하였다.

당시 묘의 결정하려는 때에 각료 한 사람 깊이 위협을 느껴 말하기를, 죽첨(竹添)은 유생이다. 도저히 이 대사를 결행할 수 있는 인물이 못된다. 원산의 총영사 전전헌길(前田獻吉)만이 적임자다. 이렇게 주의했지만 이등(伊藤), 정상(井上)은 이를 배척 죽첨(竹添)을 경솔히 신임하여 끝내는 국가의 대사를 그릇쳐 그런 실패를 초래하게 되었다.

(라) 참간(斬姦)과 한정(韓廷)의 곽청(廓淸)

죽첨(竹添)공사는 정부의 명을 받아 귀임후 주로 조선 개혁의 계획을 수행코자 김옥균 등과 회합하여 구교를 두텁게 함도, 그 언행이 경솔하여, 그 용의 신중함이 결여되어 계획이 밖으로 새어 사대당의 시기를 사기를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옥균은 죽첨(竹添)의 태도에서 일본의 대한책의 일변한 것을 간파하고 일거에 숙원을 관철할 것을 계책하고 동지를 규합하여 그 준비에 착수하여 12월 4일을 기하여 경성우편국 개업식에 즈음하여 드디어 그 봉화를 올리려고 했다. 이 날이 우리 공사관에 있어서는 이미 독립당의 변에 응하기 위해 준비에 바빴고 아침부터 병영에서 양식 병기 등을 운반, 오후에는 병사를 집합시켜 시국의 발전을 기다렸다. 땅거미가 질 무렵 외국 사신 조정의 대관 귀족 등 줄지어 우편국에 모여들어 연회가 한창 무르익어 갔다. 돌연 폭음이 일어나고 함성이 나며 한줄기 화광이 연회의 유리창에 비쳤다. 놀래어 이를 보니 집 뒤의 민가가 불에 타고 있으며 불꽃이 곧 우편국으로 튀게 되었다. 다시 큰소리로 외치는 자가 있다. 대궐부근에 큰 불이 일어나고 있다고, 객석은 갑자기 어지럽게 혼란해지고 말았다. 대신 민영익이 급히 앞장서 승강구로 달려갔다. 기다리고 있던 자객이 이를 찢러 쓰러뜨렸다. 귀빈들은 놀라 그 혼란 극도에 달했다. 여기에서 옥균과 박영효는 같이 대궐로 달려가 국왕을 알현하고 그 전말을 상주하고 급히 경복궁에 천좌를 요청.(후 桂洞宮에 이르러 다시 대궐로 즉시 환궁) 또 일본공사를 초청. 일



본병으로 궁궐을 호위토록 의론 하였다. 왕, 즉각 친서를 박영효에게 내려 죽침(竹添) 공사 병력을 이끌고 입궐했다. 이미 궁중은 독립당으로 충만하고 모든 문은 모두 일본병력에 의해 경계가 되었다. 군신들은 변고를 듣고 용안을 배알코자 궁문에 이르자 위병 이를 제지. 김, 박, 서(재필)의 명찰을 가진 자 이외는 들여보내지 않고 사대당의 대관이 도착하면 양에 들여보내 모두 베었다. 민영직, 조영하, 민태호등 잇달아 내전에 쓰러졌다. 이조연, 한규직, 윤태준의 3인은 이미 입궐하여 궁중에 있었기에 이를 벨 이유가 없자, 옥균은 이 세 사람을 재촉하여 빨리 밖으로 나가 병력을 이끌고 와 경계를 말도록 하였다. 그들이 제1문에 이루자 전후 협격하여 이들은 쓰러뜨렸다.

이날 밤 옥균이 제거하고자 한 자들은 대부분 쓰러뜨리고 아직 주청하지 않았고 세간은 몹시 소연하였다. 이때, 왕비를 비롯 궁녀들 대궐로 돌아가기를 무척 주장하였다. 玉均 즉시 병사들로 하여금 궁중에서 제일 세력이 있는 궁관의 장유화현(長柳花賢)을 결박지어 오게 하였다. 편전 가까운 복도에 끌어다 꿇어 앉혀 그 죄상을 선고하고 이를 베니, 선혈이 튀어 특히 어의를 더럽힐뿐 이었다. 만좌실색 숙연하여 말이 없고 환궁을 말하는 자 없다. 참간(斬奸)의 거사 일단 끝나고 정부의 실권이 전부 독립당에 속하자 관리를 경질, 문벌을 폐지, 조세를 개점, 관내성을 신설하여 궁중, 부중을 별도로 세우는 등, 그 상황이 마치 우리 유신의 당초 막병을 조우복견(鳥羽伏見)에서 깨치고 점령이 즉각 경도(京都)에서 나오듯이 독립당의 세력 융창하여 천지를 진동하는 상황이었다.

(마) 청병의 내습과 개혁의 실패

12월 6일 김옥균 글을 청국 주재관 원세개(袁世凱)에 보내어 어제밤 청병의 공문에서 비례 개문을 요구한 것을 책 했지만 답서는 오지 않았다. 그는 도리어 병사 600을 이끌고 국왕에 알현을 요구해 왔다. 옥균 대답하기를 항시 호위병이외는 대검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때 우리 병력이 경성에 있는 것은 1개 중대에 지나지 않았으며, 궁중에서 이를 몹시 불안이 여겨, 도리어 청병에게 의뢰할 기미를 보였다. 오후 2시 원세개(袁世凱) 상서를 국왕에게 올리며 동시에 병력을 갖고 대궐에 다

가와 발포하니, 한병은 이응전 궁 뒤에서 발포하였다.

이때 대왕비, 왕비, 세자, 세자비 등, 몰래 궁문을 나와 북묘에 이루어 청병의 보호하에 들어갔다. 남은 것은 국왕 하나 뿐, 옥균은 청병의 폭거를 분노 달려가 질타하였지만 그들은 「궁중을 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일병을 치는 것이다」고 말하였다.

옥균이 사라지다 즉시 발포하여서 총탄 궁중에 날아들어가 폭발하였다. 국왕 크게 놀래, 대왕비, 왕비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을 요구, 시종의 간언을 듣지 않는다. 옥균 및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의 무리 이에 따르다. 죽침(竹添)공사 역시 이에 수행하였지만 아주 주저하는 빛이 역역하였다. 북문에 이르자 옥균 다시 인천으로 피할 것을 상주하였지만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이르러 죽침(竹添)공사 드디어 안색이 변하여 고별을 말하고, 탈출하여 돌아가고자 하였다. 이에 이르자 옥균 「대사는 결정되었음」이라며 국왕의 앞에 부복 고별을 고하였다. 왕 말하기를, 「그대 어느 땅으로 갈 것인가?」 옥균 대답하여 말하기를 「대사 여기에 이르러 국가를 위해 진력할 것을 기약, 신은 지금부터 일본에 가 수년래의 은혜에 배반하지 않고 군국을 위해 죽음을 다할 것이며 청천백일하에 다시 천안(임금얼굴)을 우르러 뵙고자 합니다」고 군신이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다. 여기에서 옥균은 박영효 등과 같이 죽침(竹添)공사를 따라 우리 공사관에 도착하였다. 청한의 병력 도중에 차단 폭도 봉기하여 이에 합세 우리 겨루민을 살상하여, 드디어 공사관을 포위하였다. 공사관 안에 파수병은 적고 양식은 바닥이 났다.

오래 버틸 수는 없다. 7일 오후 포위를 탈출하여 인천으로 향하였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 공사관은 햇불 하나로 초토화되고 말았다. 일행은 도중 가끔 적의 내습을 받았지만 8일 저녁때 천신만고 인천에 도착 겨우 배에 오를 수 있었다. 이변으로 기림(磯林)대위를 비롯 우리 장병의 전사자가 적지 않았다.

(바) 독립당 실패의 원인

김옥균이 죽침(竹添)공사와 계획하여 단행한 개혁의 거사는 이리하여 실패로 돌아가 도리어 조선으로 하여금 청국에 복종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하



는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실패는 꼭 옥균 혹은 독립당을 책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그 실패의 책임은 우리 정부 당국자에 있는 것이다.

만일 이등(伊藤), 정상(井上)으로 하여금 한국의 형세를 확실히 파악, 대한 정책의 방침을 확정하여, 후등(後藤), 복택(福澤)등의 계획을 원조하여 이에 충기와 자금 양식으로 하고 독립당과 함께 개혁의 대사를 맡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 물리칠 수 있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후등(後藤) 등의 계획을 우습게 여기고 죽첨(竹添)공사에 임하는데 이 대사를 가지고 혼자 그 공을 차지하고자 하였다. 그 사려천박, 계획경홀, 마치 어린이 장난 같았다.

우리가 그 죄를 독립당에 전가 옥균을 경시 청국을 두려워하고 사대당에 아첨 그를 확대하는 것 같은 일은 필경 그 실패를 감추고자 하는데 불과하다. 요컨대 옥균의 실패는 옥균의 실패가 아니고 우리 정부의 실패다. 정부에 일정한 방침 정책 없고, 더구나 그 계획 소홀하고 그 인물 대사를 맡길 수 없다. 이 모두가 정부의 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보라. 17년 이래 청국의 속방정책 착착 진척을 보고 독립당은 일망타진되어 제국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린 일 얼마나 되는가. 이로부터 약 10년간 조선의 실권은 거의 다 청국 주재관 원세개(袁世凱)의 손에 떨어져 조선으로 하여금 청국의 속방이 되게 하였다.

우리나라가 아무 대항도 못하는 것은 그 원인 일정한 방침, 정책 없음에 있다. 그리고 옥균의 큰 꿈도 공허히 호기를 놓치고 그 경론 화병에 돌아갔다 하여도 그가 대사에 임하여 조국에 봉사코자 하는 일편의 기백은 연연히 빛날 것이다.

생각건대 17년 경성의 변이 우리나라에 달하자 외무서기관 율야신일랑(栗野愼一郎) 즉일 인천으로 향하고 참사원 의관 정상의차(井上毅次) 다음에 인천에 도착했다. 24일 정상(井上) 외무경 특파전권대사가 되어 옥균중장 고도혁내지조(高島革內之助) 해군중장 화산자기(樺山資紀) 등과 같이 살마환(薩摩丸 : 싸스마마루)에 승선 호위의 육해군을 이끌고 30일 오후 인천에 도착 1월 3일 경성에 입성함. 청국 역시 그 관계의 지대함을 알고 흠차오대징

(欽差吳大徵)으로 하여금 육해의 장병을 이끌고 조선으로 향하게 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여론은 어디까지나 청한 양국의 불법을 추궁, 십분 만족한 답판을 얻지 못하면 병력으로 이를 응징해도 가하다는 편이었다. 혹은 이런 수속을 취한다는 것은 미온적인 방법이다. 즉시 문죄의 사신을 보내야 한다는 자 마저 있었다. 특히 청국에 대한 주전의 기세는 전국에 충만하였지만 2월 7일부터 동9일에 이루기까지 정상(井上)공사의 답판은 5개조 제안에 대한 그의 승낙을 얻어 끝냈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왕의 국서를 갖고 일본 황제에 사의를 표할 것. 우리 부상자의 구휼 기타 손해배상으로 금 100,000원을 교부할 것. 우리 장교를 살해한 흉도를 엄벌에 처할 것. 공사관의 지기 방옥을 교부 20,000원의 공사비를 제공할 것. 호위병의 병영을 공사관 부근에 선정할 것」

청국 정부에 대해서는 관내향이등박문(官內鄉伊藤博文) 전권대사로서 참의 서향종도(西鄉從島), 해군소장 인례경절(仁禮景節), 육군소장 야진도관(野津道貫) 참의원 의관 정상의(井上毅)를 대동 2월 18일 살마(薩摩)에 승선 3월 14일 천진에 도착 일단 북경에 들어가 총리 위문의 제 대신과 회견하여 4월 3일부터 천진에서 그쪽 전권 이홍장과 절충하였지만 우리 정부에 주전의 결심 없고 그 태도 미온적으로 기우러 천진조약의 결과는 겨우 청한병의 철수와 금후 출병의 상호 사전통보를 약속에 그치고 말았다. 여론 모두 그것을 탓하였다.

(사) 망명중의 김옥균

김옥균이 도망하여 우리나라에 오자 복택논길(福澤論吉) 크게 동정하여 옥균을 그의 집에 유숙케 하였다. 그러나 그는 오래 그 가정을 방해할 수 없다고 생각, 그 집을 나와 다른 곳에서 기거하였다. 이 때(1887년) 정부는 청국의 의중을 끄러 이를 내지에 두는 것을 원치 않아 소 입원도로 유배하였다.

그는 오래동안 절해의 고도에서 병 때문에 심신의 건강을 해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정부는 또다시 22년 그를 북해도로 유배하기로 결정. 경시청으로 하여금 이 명령을 전달하자 김옥균은 그 병석에 있어 진퇴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더욱 정부의 독촉 몹시 급하였다. 강본유지조(岡本柳之助) 이를 듣고 사법대신 산전현의(山田顯義)를 면담. 옥균의 병상을 호소 출발의 연기를 청하였다. 산전 이를 승낙. 강본(岡本)에 말하기를 「조선의 지사를 공허하게 병사 시키는 것은,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일이다」며 급히 경보국장 청포규오(警保局長淸浦奎吾)를 불러 출발 연기의 허가를 전하게 하였다.

이래서 그는 즉시 좌본(佐本)병원에 입원 그 병이 치유되자, 강본(岡本)의 소개로 산전(山田)을 만나, 청한(淸韓) 양국의 사정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 후 북해도로 가 24년에 이르러 겨우 귀경할 수 있었다.

(아) 김옥균의 횡사와 동방변국의 동기

1892년의 봄, 동학당이 조선에 일어나려하자. 김옥균의 동지 비밀리에 그 상황을 알려와 옥균의 귀환을 재촉했다. 그러나 그는 10년의 와심상당 10년의 계획 하등의 효과를 못보고 이에 응하자니 적수공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외로히 고국 산천의 풍운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릴뿐이었다. 이보다 앞서 갑비군치(甲斐軍治)라는 자 있었음.

예전에 조선에 와 지냈고 옥균과 친선을 맺었다. 여기에 이루어 그는 대원군의 측근자부터 통신 한통 얻어내어 옥균으로 하여금 인천에서 이모와 회합시키고자 하였다. 옥균 이에 응하여 출발코자 하였다. 이때 동지 중의 한사람이 불가함을 간언하는 자가 있었다. 옥균 드디어 이를 중지하였다. 이때 동경 주재 청국공사 왕봉조(汪鳳藻) 비밀리에 직속 총독 이홍장(李鴻章) 부자의 밀지를 받아 참찬관 유경분(劉慶汾)으로 하여금 옥균을 지포 해수육장의 여관에 방문케 하며, 또한 한인 홍종우와 함께 이를 상해로 유인할 계획을 강구하였다. 이제부터 형, 이경방의 일본공사시절 경방(經芳) 자주 옥균과 왕래하여 이홍장(李鴻章)의 뜻을 받아 설득하고 있었다. 경방(經芳) 전임후 옥균을 초청하는 글은 왕봉조(汪鳳藻)에게 봉조(鳳藻)는 이를 옥균에게 전하는데 유경분(劉慶汾)으로 하여금 전달케 했다. 옥균의 답서도 이를 왕봉조(汪鳳藻)에 전하고 후에 이를 경방(經芳)에게 보내게 하였다. 이로부터 옥균은 마음속에 위협을 느껴가면서도 청국으로 건너가 경방(經芳)에게 부탁하여 이홍장(李鴻章)과 회합을 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이르러 27년 3월 10일 옥균은 경판(京阪) 지방으로 여행한다며 돌연 서생화전(書生和田) 연차랑(延次郎) 및 홍종우(鴻鐘宇) 오보인(吳葆仁 : 청국공사 서기관)과 같이 동경을 출발 대판(大阪)에 도착하였다. 옥균 일행 대판(大阪)에 도착하자 이일식(李逸植)은 홍종우(洪鐘宇)를 초청 비밀리에 말하기를 옥균과 같이 상해에 도항, 배가 밤중 도착하면 동화 양행(東和洋行)에 가는 도중에 이를 총살하고 만약 한낮이면 동화(東和) 양행에 투숙 후, 동가 3층이면 이를 총살하고 2층이 하면 이를 참살하고 어느 쪽이든 목을 잘라 이를 가방에 넣어 휴대하고 도주하라 그러나 위급할 때는 임시응변을 취해도 좋다」며 그 살해에 쓸 단도, 권총 및 흥기 은익할 수 있는 조선 옷을 교부하였다. 23일 김옥균 일행은 도항의 준비를 마치고 서경환(西京丸)에 승선 신호(神戶)를 출항 도중 장기(長崎)에 기항하고 27일 상해에 도착. 미조계 철마로(米租界 鐵馬路)인 동화(東和) 양행에 투숙. 옥균은 양행 2층 제1호실에, 보인(葆仁)은 제2호실에 종우(鐘宇)는 제3호실에 유숙하였다. 다음날 28일 옥균은 선중에서의 피로를 풀기 위해 침상 위에 누워서 서생화전(書生和田)을 시켜 밖에 나가 일을 보도록 하였다. 이때 옥균의 충복을 가장한 종우(鐘宇)는 갑자기 자객의 본색을 드러내 호기를 놓칠세라 권총을 잡아 옥균의 좌측에서 후두를 향해 이를 조격하였다. 옥균 자리를 차고 일어나려 했으나, 힘에 겨워 그대로 쓰러졌다.

종우(鐘宇) 다시 옥균의 두부 복부를 난사하였다. 아깝다. 그는 천고미료의 뜻을 누설하여 헛되게 하루 아침에 이슬로 사라졌다. 아~ 옥균은 반도의 풍운아. 그는 조국을 위해 회천의 계책을 세워 일패 땅에 쓰러졌음. 일본에 유랑하였지만 잠시도 회복의 뜻을 잊지 않았다. 적국의 술중에 떨어지는 체하고 그 숙원의 뜻을 달성하고자 한 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 새끼를 얻고자 한, 고육지계로 이홍장(李鴻章) 부자를 이용하고자 했지만 끝내 그 함정에 빠져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었으니 아 천추의 한이로다. 우리들은 옥균을 위해 한 줄기 눈물을 아끼지 않으리라.

(자) 김옥균 시체의 조치와 국론의 비등

김옥균 황사의 비보가 우리나라에 전해지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분개와



동정은 삼시간에 전국에 퍼졌다. 우리의 지기우인은 옥균선후의 책을 강구하기 위해, 김씨우인회(金氏友人會)를 조직하여 사무실을 교순사(交詢社)에 두고 우선제일 조건으로 시체를 우리나라로 인수할 것을 결의하고 재승 신일랑(齋勝 新一郎)을 상해에 파견하였다. 강본유지조(岡本柳之助) 사태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같이 출발하였다.

그러나 강본(岡本), 재등(齋藤)가 상해에 도착하자 옥균의 유체는 일단 동행의 서생 화전연차랑(和田延次郎)에 의해 수용되었다. 일본으로 환송하고자 각국의 관계자들이 공동부두에 나왔으나 아니나 다를까 청국 관헌은 폭력으로 이를 탈취하여 청국군함 위원호(威遠號)에 탑재하여 자객 홍종우(洪鐘宇)와 함께 조선으로 보낸 후였다. 여기에 이르러 강본(岡本)은 대월(大越) 상해영사에 교섭하여, 각국 영사의 결의로 옥균의 시체에 대해 참형을 가하지 않는다는 희망을 청한 양국의 정부에 보냈다. 또한 김씨 우인회에서는 대정헌태랑 삼택표삼석정신(大井憲太郎 三宅豹三石井信) 등으로 하여금, 외무성에 대해 김옥균은 일단 일본법권 보호하에 있었던 바. 그 시체는 일본에 돌려보내야 된다고 조선에 교섭할 것을 진언하였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김씨 우인회는 옥균의 시체 혹은 기타의 유물을 회수하는데 실패할 수 없이 빈 유패를 설치 천초 본원사(淺草 本願寺)에서 장엄한 추도식을 거행. 다음 청산(靑山) 묘지에 매장하였다. 도리어 조선으로 보내진 옥균의 시체는 4월 14일 양화진(楊花鎭)에서 이를 촌단하고 그 목과 사지를 옥문에 걸어놓고 나머지는 땅위에 버려졌다. 또 그 두수의 왼쪽에는 한자님은 표말에 「모반대역불도죄 옥균 당일양화진두불득시릉지처참(謀叛大逆不道罪 玉均 當日楊花鎭頭不得時凌遲處斬)」라고 적었다.

그 잔인 무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리하여 당시 이홍장(李鴻章)이 홍종우(洪鐘宇)의 신상에 대해 취조상 누를 남기지 않도록 훈령 전문을 보냈다. 또한 축전을 조선국왕에 보내는 등, 재 향권(香港)의 민영익(閔泳翊)부터 같은 축전을 보내고, 또한 조선정부가 종우(鐘宇)의 옥균을 살해한 공로를 가상하여 중직과 중상을 내린 것 등. 이렇듯 청한 양국이 국제상의 예의를 무시한 폭역의 조치는 뼈아프게 우리 국민의 공분을 자극하여 국론은 죽 끓듯 하였다. 여기에 있어서 대외 강경파의 동죄론이 되고, 혹은 동학당을 후



원하여 한산에 포호하는 천우의 기회라 하였고 혹은 대원군(大院君)을 옹립 대궐에 들어가 선기를 촉진시키는 지사의 일단이 되었다. 드디어는 정청(征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국의 독립을 완벽하게 하였다.

그 후 10년 日露(日露)의 전쟁이 되고 백만대군 바다를 건너 로국(露國)을 만주평야에서 몰아내고 금일 일한 병합하여 팔도의 산하가 천황의 혜택을 입게 하고 국무정치의 근본을 그 국시와 일치하고 동방 평화의 기초를 신립 할 수 있는 것은 황운(皇運)의 융창에 의한 것이라 해도 玉均의 한 방울의 선혈이 힘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옥균의 죽음은 헛되이 되지 않았고 이를 동방 평화의 희생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갈생 현장씨저(葛生 玄曄氏著)

「김옥균」에 의함

손양아산근대사료집 (옛 일본어 아산군지)

2008년 12월 20일 인쇄
2008년 12월 31일 발행

발행 및 편간

손 양 문 화 원
손양아산향토사연구소

인쇄 : 도서출판 한 국 문 화

(비매품)